

Public Space →

A

B

Public Facilities ←

Public Visual Media →

C

서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

SEOUL PUBLIC DESIGN GUIDELINE

Public Space →

A

B

Public Facilities ←

Public Visual Media →

C

서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

서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

SEOUL PUBLIC DESIGN GUIDELINE

Contents



→	Intro	가이드라인 개요	6p
Part A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18p
Part B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90p
Part C	→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192p

과업명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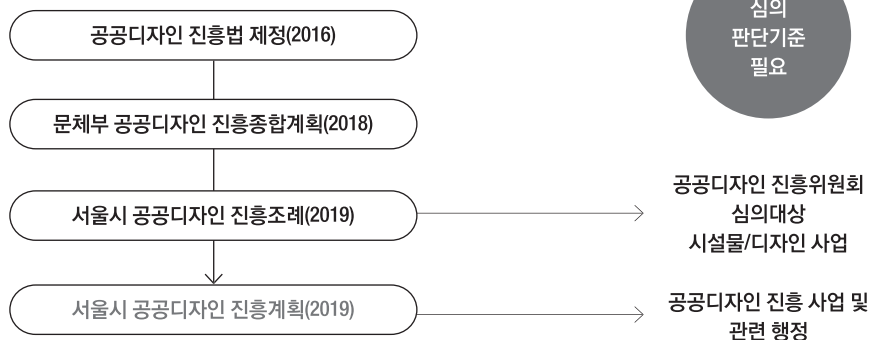
과업의 목적 최초 수립(08년)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사회, 정책, 기술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서울의 정책 방향과 목표에 맞는 비전, 목표, 원칙 등의 업그레이드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련 정책 전개



국가 및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시행하고 심의기준 등 사업의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전개



과업 범위

1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관련 기초조사

-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연도별 조사, 분류 및 분석
- 국내외 정책 및 유사사례 수집,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 기존 가이드라인의 적용 실태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충분한 당위성 및 타당성 조사

2

가이드라인 목표 및 디자인 원칙 설정

- 다양한 시대적 환경변화와 정책적 수요 조사·분석을 통한 목표 및 디자인 원칙 설정

3

분야별 영역, 적용범위 및 대상 검토·설정 및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

- 물리적 영역과 더불어 정보, 환경, 서비스 등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환경을 반영한 적용대상 확대
- 획일적, 개별적 기준을 벗어나 지역의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맥락을 유지하는 배치,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4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 설계·심의·시공·평가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
- 도시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가이드라인 통합화 방안 제시
- 실무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단계별 프로세스 제안
- 공공공간, 시설물, 시각매체 등 관련 법·제도 등 개선사항 제시
- 관련기관(부서) 및 시민참여, 전문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방안 제시

과업추진 주요사항

기존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연장선에 가이드라인의 활용성을 재검토하여 보완 필요

가이드라인 개발

기존 도시디자인 분야
공간/시설물/
건축물/시각매체



공공디자인 분야

체크리스트는 기존 서울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음
사회문제해결 분야는 이미 개발된 내용을 활용 가능함

체크리스트 개발

공공디자인 분야
공간/시설물/시각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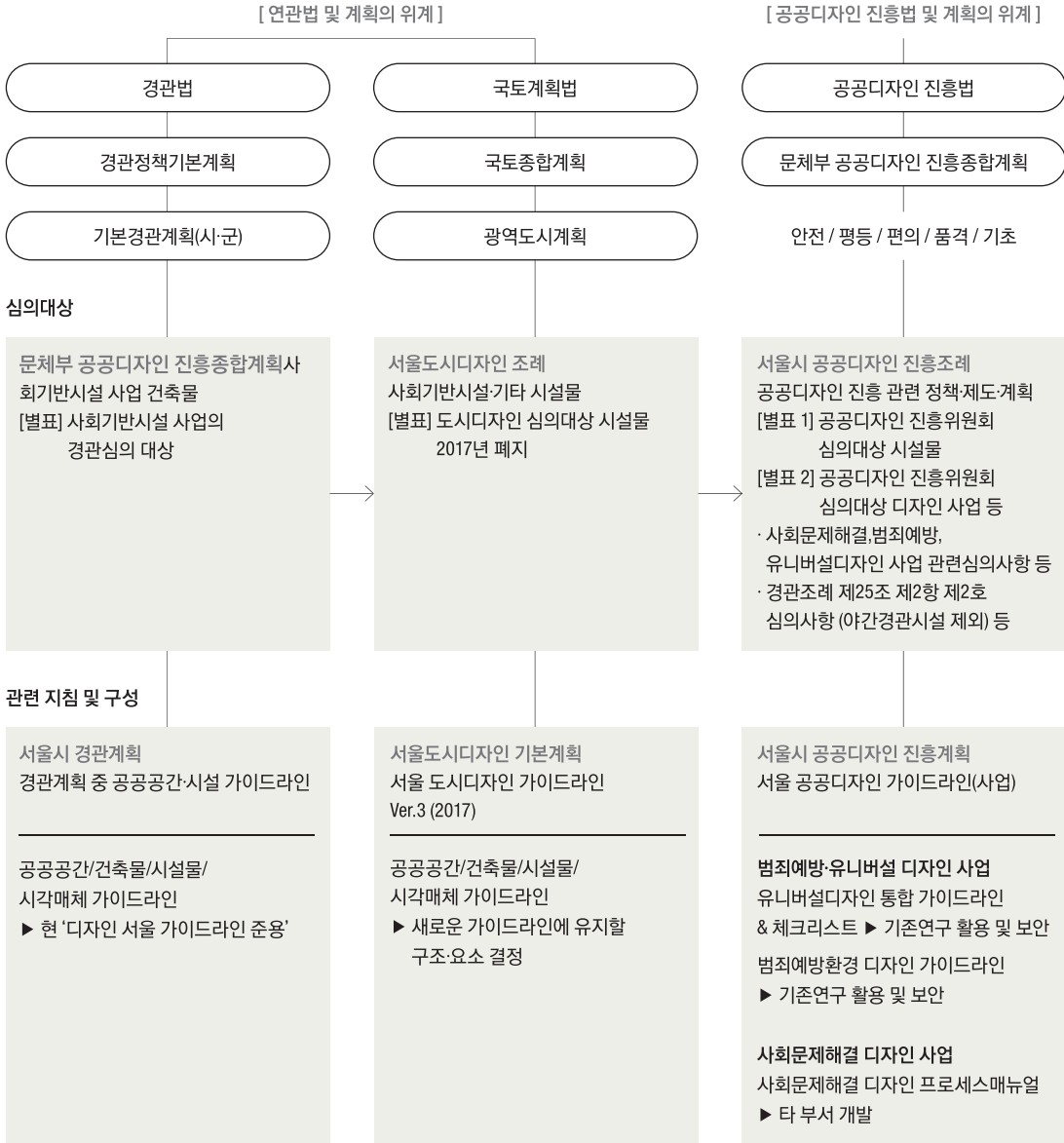


공공디자인 사업 분야
UD/CPTED/사회문제 해결

담당과에서 별도심의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제외함
가이드라인이 없는 요소의 가이드라인은 새로 개발함

가이드라인 작성된 모든 요소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작성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개발함

관련성 분석



*서울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참고의 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부칙 제5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제5조에 따른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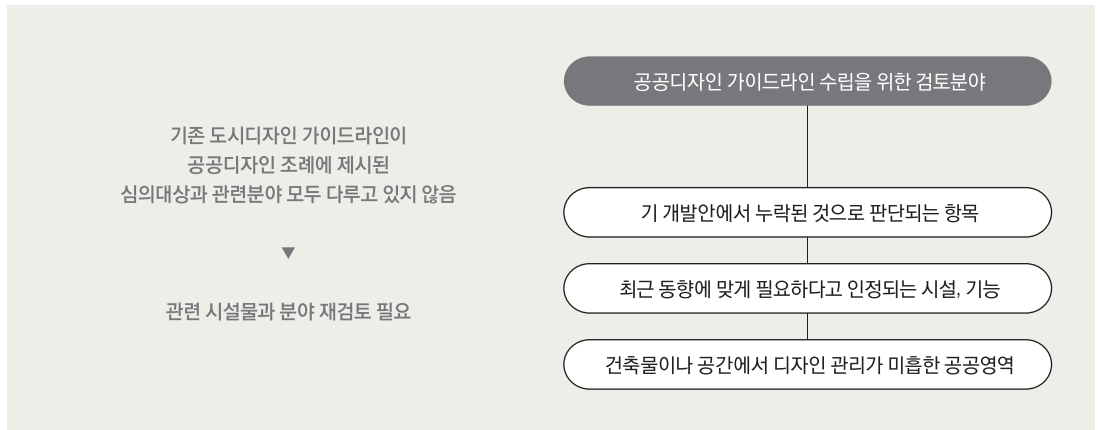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에 따라, 기존 도시디자인 영역과 경관계획 대상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능을 담당하게 됨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변화

- 2008년 1차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대상을 5개 항목으로 분류, 디자인 지침 수립.
- 관리부서의 분리에 의해 2017년 3차 가이드라인에서 4종으로 간결화 함.



2017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3.0



실제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관부서가 다른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개발 대상을 제외하거나 추가 하였음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2017)의 구성



공공디자인법 제정의 목적

-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공공디자인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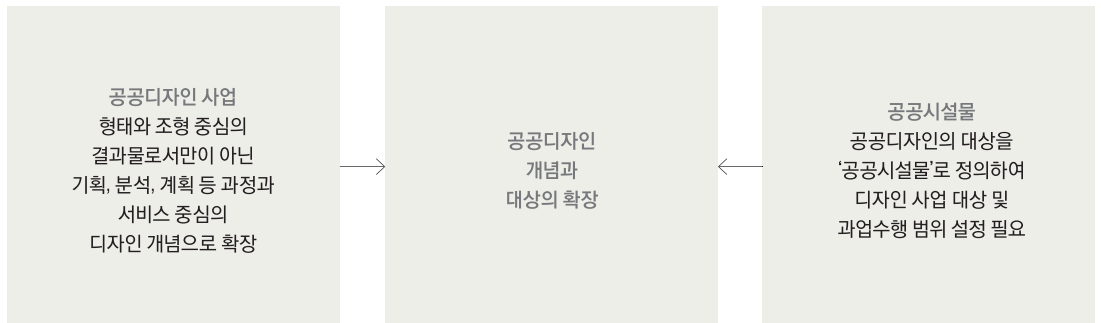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디자인법 제1장 제2조(정의) 2

국가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함.

공공시설물이란 공공디자인법 제1장 제2조(정의) 3.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함.

-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공공디자인의 대상 '공공시설물'과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정의됨에 따라
과업수행 범위로 설정 하였음

- 조례의 목적**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 및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 결정.
 - 서울시의 정체성 및 품격 제고,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가이드라인 수립**
- 제2장 제6조에 의하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22조에 따른 사업 시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심의 대상**
- 제3장 제8조에 의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G.L 중점 개발 영역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별표 1) 및 디자인 사업(별표 2)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7. 제24조 제7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9.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
10.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제13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심의사항
11.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 (단, 야간경관시설은 제외)
12.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항의 상세항목(심의대상)

시설물	디자인 사업
사회기반시설 도로시설물 / 도시철도시설 / 하천시설물 / 전원설비 / 자전거 이용시설 등 약 20여 종 그 밖의 시설물 전기통신설비 / 정보통신망 / 문화관광시설 / 가로녹지시설 / 환경관리시설 / 교통관련시설 / 도로점용허가시설물 / 그 밖의 시설물 약 42여 종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 인구변화 / 차별해소 / 안전안심 / 심신건강 / 생활개선 / 행정편의 / 제도개선 / 기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정보매체 / 시설물 / 공간 / 지역 /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정보매체 / 시설물 / 공간 / 지역 / 프로그램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12개 항목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중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가 필요한 항목(4,8~11)을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과업을 진행함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비전과 전략

누구나 제약없는 사회 참여를 위한 안전/편의/배려/품격 공공디자인

공공환경의 디자인 향상을 통해 사용자 가치중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국제적 위상의
선도적 디자인 리드를 위한 서울형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제안

기본방향

서울시 공공디자인 관리 대상에 대한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가치 적용
3차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성 도출

서울 도시디자인 G.L. v3 (2017)

<p>기능중시 시설물의 기능에 초점을 맞춤</p>	<p>지역성 색채와 모양 등의 지나친 동일로 디자인적 획일화</p>	<p>개발유도 설치/조성 관점에서 가이드라인 제시</p>	<p>무정체성 단순하고 특색없는 디자인 경향</p>
-------------------------------------	---	---	--------------------------------------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

<p>기능성 안전하고 활력있는 공공공간 디자인</p>	<p>심미성 기능과 함께 미적가치를 더함</p>	<p>지속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p>	<p>정체성 서울시 정체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디자인</p>
---------------------------------------	------------------------------------	------------------------------------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2017)의 구성

Move Seoul	Play Seoul	Green Seoul	Grow Seo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행의 연결성 확보 2. 진입 장벽의 제거 3. 이용하기 쉬운 길찾기 정보 4. 온/오프라인 정보 상호보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한 여가 공간 2. 다양한 세대의 수용 3. 변화에 대응하는 시설 4. 콘텐츠 통합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 기술 적용 2. 자원의 순환을 고려한 소재 3. 날씨에 대응하는 사용성 4. 오염에 대비한 시설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의 역사성 강조 2. 새로운 트렌드와 조화 3. 공동체 참여 유도 4. 예술과 놀이로 접근

심의 대상

- 기존 공공디자인 범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의 디자인 관리를 위한 관리 대상 구체화
- 서울시 주요 공공디자인 관리 대상의 선정으로 서울시 공공디자인 목표 구현
- 공공디자인 사용자 가치 향상을 위한 안전/편의/배려/품격 디자인 관리 방안 마련
- 사업전 적용 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향상 방안 도입
- 지역 특성화와 통합이미지 구현의 조화를 추구하고 지역 특성화 적용 지침 제언
-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선행과제 실행을 위한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
- 기존 시설에 적용가능한 공공디자인 전략 발굴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비전과 전략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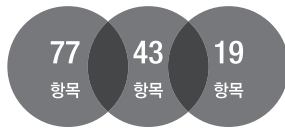
기 가이드라인 항목 분석을 통하여 신규 개발 항목 도출하고
202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추가함

2017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항목구분

건축물(행정, 복지시설 등 7분야)_18
공간(도로, 광장 등 6분야)_25개
시설물(녹지시설물, 보호시설물 등 5분야)_49개
시각매체(교통관련, 보행관련 등 3분야)_28개

전체 120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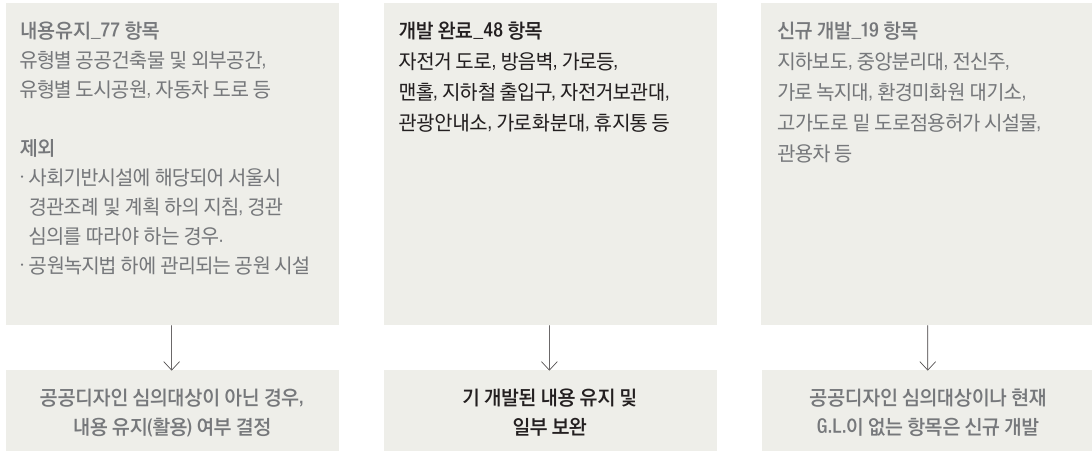


202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심의대상 시설물 항목 구분

사회기반시설	그 밖의 시설
도로 시설물 _12개	전기통신 설비 _9개
도시철도시설 _4개	정보통신망 _2개
하천시설물 _2개	문화관광 시설 _3개
전원설비 _1개	가로녹지 시설 _5개
자전거이용시설 _1개	환경관리 시설 _3개
	교통관련 시설 _11개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_4개
	그 밖의 시설물 _5개

전체 62항목



기 가이드라인 개발 대상 또는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공공건축물 실내 시설물 / 실내외 안내사인 / 공원녹지법에 규정되지 않은 일부 소규모 공원 시설

분야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20)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 '공공건축물'분야를 제외하고 '공간/시설물/시각매체'3분야로 한정하기로 함
- 다만 그동안 관심과 관리가 미흡했던 건축물 실내공간과 실내외 안내사인 등은 그 필요성을 고려하여 포함하기로 함.
- 분야별로 체크리스트 이외에, 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사회의 이슈가 된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업 체크리스트 개발을 검토하였음

공공 공간

도로
친수공간
광장
건축물 외부공간
도시구조물 주변공간
옥외주차장
공개공지
+
건축물 실내공간
소규모 공원

공공시설물

휴게 시설물
위생 시설물
서비스 시설물
판매 시설물
통행 시설물
녹지 시설물
보호 시설물
관리 시설물
조명 시설물
기타 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교통관련 시각매체
교통안전, 도로안내, 주차안내,
신호기, 버스, 지하철, 택시

보행관련 시각매체
보행자안내, 도로명, 건물번호,
공원안내, 문화재안내, 관광,
자전거도로안내, 장애인 안내

영상정보 시각매체
환경정보, 도로교통정보,
대중교통정보, 기타영상정보
+
건축물 실내외 안내사인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체크리스트

범죄예방디자인 체크리스트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필요성

- 기존의 체크리스트는 사후 단계에서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 제작, 설치와 같은
가시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 역할을 해왔음
- 그러나 이는 특정 주제를 가진 디자인 사업(사회문제해결, 범죄예방, 유니버설디자인 등)의
시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무형의 디자인 과제에 대한 실행 및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미흡하였음
- 본 체크리스트는 기존의 유형별 체크리스트에, 사업의 목표와 지속, 확산 등을 위한 연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는 주제별 체크리스트를 더해 공공디자인 사업의 과정과
결과물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였음

구성방안

- 공공디자인 사업 체크리스트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3분야를 다룸
- 기획·조사 / 설계·제작·설치 / 유지관리·확산의 3단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함

202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의 구성 방향



구분의 기준

<p>시설의 유형별 구분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개발·설치된 개별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시적인 디자인 지침 준수 여부를 판단</p>	<p>사업의 주제별 구분 3개의 주제별 공공디자인 사업(사회문제 해결, 범죄예방, 유니버설) 시행 과정에서 시행의 근거 마련 및 사업 지속을 위해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가를 판단</p>
--	--

구성 방향

<p>가이드라인 구성체계를 기준으로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영역으로 구분. 각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기재 + 기본내용은 기존 체크리스트를 준수하나 심의용과 사업자용으로 주체를 구분하여, 제한 정도에 차등을 둠. · 심의자용 : 최소한의 규정 준수 판단, 방향성 확인에 중점. · 사업자용 : 구체적 설계 지침의 준수 판단, 부연설명 포함.</p>	<p>진흥조례 제2조 2항을 참고로 사업 시행 과정을 다음의 3단계로 구분. 3개 주제별 사업 각각의 시행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기재. 기획 단계 : 기획 / 조사 및 분석, 실행 단계 : 설계 / 제작 · 설치, 운영 단계 : 유지 · 관리 / 확산</p>
--	--

· 공공공간의 시설물과 가로환경조성에 관련하여 다양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진행됨



실제 추진중인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가 심화되고 있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시에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관련 자료를 비교검토 및 활용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였음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및 목표	20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7원칙	22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29
규정항목 및 관련지침	30
공공공간 세부 가이드라인	32

Part A

Public Space Guideline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서울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의 기능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공간의 조성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공공간 디자인 7원칙'을 제시한다.

2020 서울 공공디자인. 공공공간의 목표



공공공간의 조성 목표가 전반적으로 반영되도록 2020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디자인 원칙 및 각 세부지침을 수립하도록 한다.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7원칙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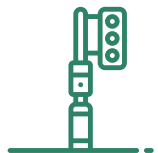
지역의 정체성을 부여하되
조화롭고 안정된 가로 환경을 조성한다

4.



서울의 자연, 문화, 경관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조형물, 식재를 지양한다

6.



입체적 횡단시설을 지양하고
지상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공간은 시민의 보행을
우선으로 디자인한다

3.



지속가능성, 건강성, 환경영향,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보행구간의 유효폭 확보와 장애물 최소화로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한다

7.



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을
적용하여 디자인한다

1

공공공간은 시민의 보행을 우선으로 디자인한다

○
권장

- 인접 공공건축물, 공개공지, 완충녹지, 옹벽, 교통섬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보행영역을 확보한다.
- 가로시설물은 통합설치하거나 설치를 최소화하고, 좁은 가로에는 보행등, 교통안내시설 등 보행 필수 시설만 설치한다.
- 보행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
지양

- 무분별한 가로수 식재 및 가로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 휴지통 등 위생 시설물의 보행가로상 전면 노출을 지양한다.
- 교통관련,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물 주변부에는 시설물 인지와 이용을 방해하는 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를 자제한다.



2

지역의 정체성을 부여하되 조화롭고 안정된 가로 환경을 조성한다

○
권장

- 지역 정체성 부여는 일관된 공간의 질 향상에 집중 한다.
- 공간의 맥락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공간구성 기법을 적용한다.
- 함축적이고 단순간결한 디자인, 크기, 색상을 적용한다.



×
지양

- 일반 시설물에는 지역상징 적용을 자제하고 심볼 마크 등이 지나치게 두드러지지 않게한다.
- 지나치게 다양한 패턴과 조형요소 등 장식성이 과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 자극적인 고채도·고명도 색채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3

지속가능성, 건강성, 환경영향,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권장

- 시간이 지나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쉽게 공간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청결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한다.
- 기존 공간형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계획한다.
- 도시 유희공간의 다양한 활용 계획 및 디자인을 제시한다.



×
지양

- 일시적인 유행이나 유행을 반영한 디자인은 지양한다.
-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
- 도시경관을 해치는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4

서울의 자연, 문화, 경관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조형물, 식재를 지양한다.

○
권장

- 주요 동식물 서식처 및 하천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 장소의 성격을 존중하고 주변공간을 유사한 맥락으로 조성한다.
- 도시 스카이라인과 공간 스케일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서울시의 역사성이 잘 드러나도록 한다.



×
지양

- 시설물과 식재가 주요 상징 건축물, 문화재, 경관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문화 경관의 품격을 훼손하는 장식적 전통 요소 사용은 지양한다.
- 지나치게 자극적인 조명이나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 이용 편의 위주로 녹지 내 수목을 무분별하게 절단하지 않는다.



5

보행구간의 유효폭과 평탄성을 확보하여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한다

○
권장

- 유효보도폭은 2,000mm 이상 확보를 권장하고, 불가시에는 교행구간 등 대응책을 계획한다.
- 돌출물을 최소화 하고, 시공 완성도가 높은 무채색 계열의 대형사각 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 주요 보행 진입로와 보행가로의 수직 단차를 최소화 하고 보행약자를 배려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을 함께 설치한다.



×
지양

- 보행약자가 통과하기 어려운 간격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 보도에 돌출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이음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 경계부의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표면요철과 경사가 심한 시공방법은 피한다.



6

입체적 횡단시설을 지양하고 지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디자인한다

○
권장

- 가능한 모든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한다.
- 횡단보도 고원화 등을 통하여 보행 연속성을 확보한다.
- 보행자 보호 및 조명, 노면표시 등으로 횡단보도 식별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불가피하게 육교나 지하도 설치시 최소 성인 2명이 보행할 수 있는 보도폭을 확보하고, 자전거 등의 운반이 용이하도록 한다.



×
지양

- 육교나 지하도 등 입체 횡단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보행약자를 위한 승강기 등의 시설을 설치 한다.)
- 육교 진입부나 지하도 출입구로 보행공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 지면과 엘리베이터 진입부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경관을 해치거나 어두운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을 적용하여 디자인한다.

○
권장

-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 범죄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시와 접근통제 방법을 계획한다.
- 어린이, 노인, 환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구역단위 통합계획을 활성화한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한다.
- 공간의 인지성을 높이고, 위험지역의 경계와 안내를 확실히 한다.
- 위급시 쉽게 이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계획한다.



×
지양

- 사각지대가 발생되거나 은폐가 쉬운 공간계획은 지양한다.
- 노후된 공간이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 이용자의 행태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계획은 지양한다.
- 설치기준을 미준수하여 계획하거나 임의 변형을 지양한다.



-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의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에 초점을 둔다.
- 건축물 내외부 또는 준 외부공간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제외한 공공디자인 영역에 대해서만 다루며, 건축물 디자인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된다.
- 2017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 3.0 을 기초로 하여, 202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서울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한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을 포함하였다.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공공공간)	대분류	코드	공간요소	내용검토	비고	페이지 수
도로		A1-1	보행가로			p 33
		A1-2	자전거도로			p 42
		A1-3	자동차도로			p 45
		A1-4	지하보도	신규개발	심의대상	p 49
		A1-5	고가도로 하부	신규개발	심의대상	p 53
광장		A2	교차점광장		심의대상	p 59
			역전광장		심의대상	
			중심광장		심의대상	
			근린광장		심의대상	
			경관광장		심의대상	
			건축물 부설광장		심의대상	
친수공간		A3	하천			p 65
			도시내 수경공간			
소공원		A4	근린·소공원	신규개발	심의대상	p 71
			어린이공원	신규개발	심의대상	
공공건축물 실·내외공간		A5-1	공공건축물 실내공간	신규개발		p 77
		A5-2	공공건축물 실외공간			p 82
		A5-3	옥외 주차장			p 87

**가이드라인
규정 항목**

지형	공간의 거시적·미시적 레벨과 땅의 형상, 경사도 및 평탄도 등을 규정한다.
배치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및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대상들의 공공공간 내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형태	공간의 구성과 외관 형성의 기준을 규정한다
재료	공공공간을 구성하는 무기물 재료의 속성을 규정한다.
패턴 및 색채	공공공간의 표면을 규정하는 시각 요소의 속성을 규정한다.
식재	공공공간을 구성하는 식물 재료와 식재 방법을 규정한다.

**관련 가이드라인
설계지침**

서울시 공원 내 공공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2009. 서울특별시)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Ver 2.0 (2018. 서울특별시)
서울시 수공간 디자인개발 및 활성화 방안 (2009. 서울특별시)	G밸리 UD 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2018.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0. 서울특별시)	서울시 창의어린이놀이터 가이드라인 (2019. 서울특별시)
서울시 가로변 꽃 식재 기본지침 (2010.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계기준 (2019. 서울특별시)
공원시설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2011.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공 지하공간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2013. 서울특별시)	동주민센터 UD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Ver 3.0 (2013. 서울특별시)	서울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시 보도 턱 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 개선계획 (2015. 서울특별시)	하천시설 이용 가이드라인 (2011. 국토해양부)
서울시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계획 (2015. 서울특별시)	생태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 (2014. 환경부)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	역광장 설계 (2015.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201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2016. 국토교통부)
서울시 가로설계 매뉴얼 (2017. 서울특별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가이드북 (2016. 도로교통공단)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 서울특별시)	공공청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안내책자 (2018. 행안부)
학교환경개선 컬러 컨설팅 가이드라인 (2017. 서울특별시)	한국형 저영향개발 수변·친수 도시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 (2018.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9. 국토교통부)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2020. 산림청)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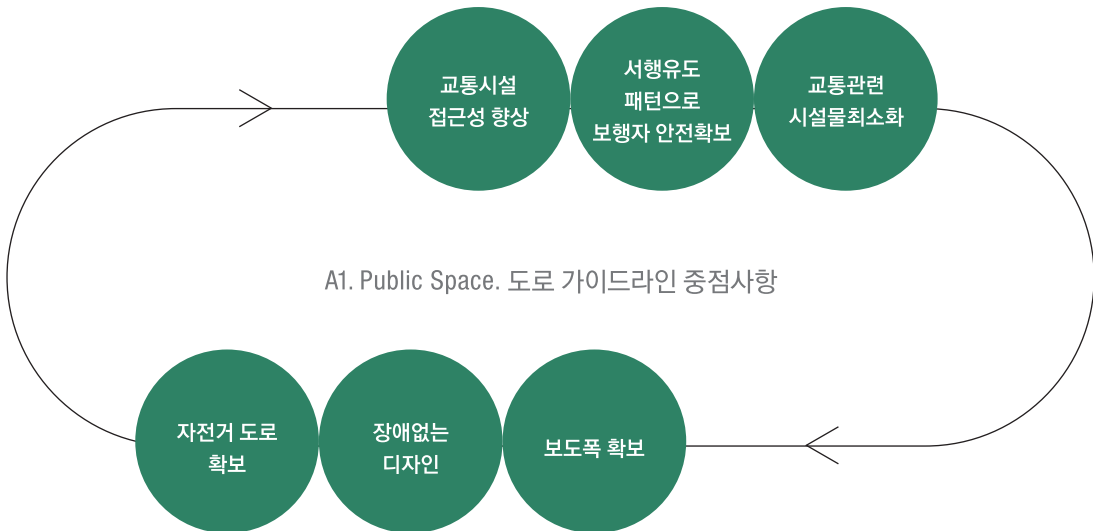
대분류	관련요소	관련법규사항 및 매뉴얼	서울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공통	UD, CPTED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2016.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0. 서울특별시)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2013. 서울특별시)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Ver 3.0 (2013. 서울특별시) 서울시 보도 턱 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 개선계획 (2015. 서울특별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2017. 서울특별시)
도로	보행가로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지하보도 고가하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2016. 국토교통부)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가이드북 (2016. 도로교통공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9. 국토교통부) 서울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조례	서울시 가로변 꽃 식재 기본지침 (2010. 서울특별시)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 서울시 가로설계 매뉴얼 (2017. 서울특별시)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Ver 2.0 (2018. 서울특별시) G밸리 UD 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2018. 서울특별시)
광장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중심광장 근린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역광장 설계 (2015. 한국철도시설공단) 가로수 조성관리매뉴얼 (2020. 산림청)	서울시 공원 내 공공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2009. 서울특별시)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
친수공간	하천 도시내 수경공간	하천시설 이용 가이드라인 (2011. 국토해양부) 한국형 저영향개발 수변·친수 도시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 (2018. 국토교통부)	서울시 수공간 디자인개발 및 활성화 방안 (2009.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원 내 공공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2009. 서울특별시)
소공원	근린·소공원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 (2014. 환경부)	서울시 공원 내 공공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2009. 서울특별시) 공원시설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2011. 서울특별시) 서울시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계획 (2015.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 서울특별시) 서울시 창의어린이놀이터 가이드라인 (2019.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실내·외공간	공공건축물 내부공간 외부공간 옥외 주차장	공공청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안내책자 (2018. 행안부)	동주민센터 UD 가이드라인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 서울특별시) 학교환경개선 컬러 컨설팅 가이드라인 (2017.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계기준 (2019.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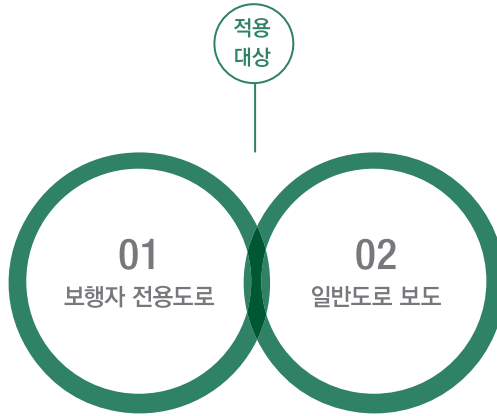
A1 | 도로 가이드라인

도로는 개별 면적 공간들을 연결하여 도시의 공공공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선적 공간이다. 이러한 도시의 공공공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시 녹지 체계는 강화되고, 연속성 있는 이동과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도시의 공공성은 증진된다.

본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분류하는 보도, 자전거도로, 차도를 포함한다. 단, 보도·자전거도로·차도의 기능적 구분보다 도로의 통합적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은 적용대상을 '보행가로',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지하보도', '고가도로 하부'로 한다.

A FOCUS





- [보행구역] 통과 및 이동의 보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구역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 되어야 하는 구역
- [시설물구역] 가로수, 가로시설물, 녹지대 등 지면으로부터 돌출된 시설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
- [전면공지] 건축선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사이에 위치한 공지

B	C
현황 및 문제점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중심의 도로 계획으로 보도폭이 최소화되어 있다. · 시설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유효보도폭이 좁고 보행권이 침해된다. · 지반 침하나 돌출 등의 불규칙한 표면으로 안전한 보행이 위협 받는다. · 작은 모듈의 포장 재질 사용으로 경계부와 곡선부 등의 시공 완성도가 낮다. · 전면 공지와 보도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 전면 공지상 주차장 및 불법 적재로 보행권이 침해된다. · 획일적인 가로수 식재가 보행권을 침해하고 공공표지판을 가린다. · 잦은 패턴 변화와 다양한 색채 혼용으로 시각 공해를 일으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는 보행구역과 시설물구역으로 반드시 구분한다. · 보행구역은 지면으로부터 2,300mm 높이의 구간 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한다.(협의필요) · 보행구역은 최소 2,000mm 이상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2,0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벤치, 가로판매대, 분전함, 화단, 가로수 등 가로 상의 모든 시설물은 시설물구역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 보도의 공간구성은 차도 > (자전거 전용도로) > 시설물구역 > 보행구역 > 건축물 순을 원칙으로 한다. ·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색채 및 패턴, 조명을 차분하게 조성한다. · 보행가로의 평탄성과 연속성을 강화한다. · 전면 공지와 보도의 단차를 최소화한다.

지형

보도턱과 단차 낮춤

- 보행약자를 위하여 횡단보도 진입부 등의 턱을 낮춘다.
- 가변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여건에 따라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없애는 방안의 검토한다.
- 주요도로의 횡단보도는 턱낮춤을 하고, 보차도 간 높이가 단차가 없도록 한다.
- 턱낮춤 설치는 횡단보도 전폭 전체구간에 설치한다.(전체 턱낮춤)
- 부분 턱낮춤이 아닌 구간은 이용자의 보폭을 고려하여 차도와 보도 간 단차가 20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맨홀덮개가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보도의 평탄성 확보

- 기초를 철저히 다지고, 통행량이 많은 가로의 경우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내구성과 평탄성을 높인다.
- 보도블록은 틈새가 5mm 이내로 치밀하게 시공한다.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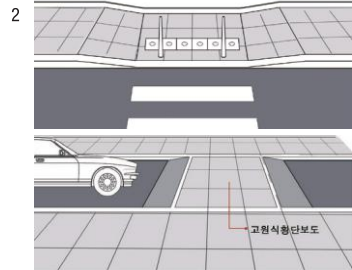
- 이면도로의 횡단보도 및 보도를 통하여 차량이 대지 내로 진입하는 부분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 운전자가 인지하기 쉽고 보행구역과 연속성이 느껴지도록 시공한다.

경사로 설치

- 안전한 보행을 저해하는 급격한 횡경사를 없앤다.
- 진행방향 기울기는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지물상 혹은 배수 등을 위한 경우에는 1/250이하를 유지한다.
- 진행방향의 종단기울기는 1/240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1/180이하는 50,000mm마다, 1/120는 30,000mm마다 1,500mm의 수평 휴식참을 설치한다.
- 보도폭이 3,000mm미만인 경우에는 보도폭 전체에 걸쳐 경사면을 설치한다.

블라드 설치

- 전체턱낮춤 시에만 블라드를 설치하되 횡단보도의 중앙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1,50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 설치시 결합부위가 지면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바닥에 매립하여 시공한다.
- 블라드 설치시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단차없는 연속적인 보행공간 예시
2. 전체턱 낮춤
3. 보행 가로상 시설물의 무분별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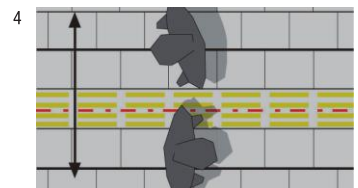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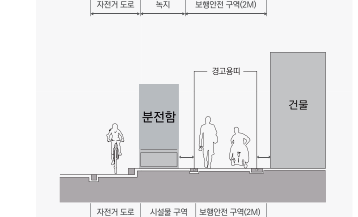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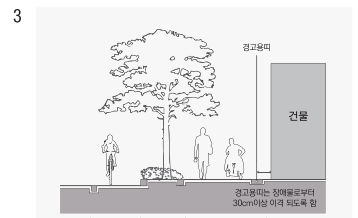
배치

유효 보도폭 확보 및 시설물 통합

- 시설물 설치 구역에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시설물의 도로 점유율을 최소화한다.
- 기타 지주형 시설이나 보행가로의 일부를 점유하는 시설물들은 시설물 설치 구역에 통합 설치한다.
- 가로녹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가로시설물은 가로녹지대 내에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통행구역 내 고정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단, 점자블록 등 보행약자를 위한 특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 공공시각매체는 다른 지주시설물이나 건물 입면, 노면 등에 통합 설치하여 보행가로상 지주의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 휴지통은 보행가로의 주요 경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휴게시설물과 적정 거리를 두어 설치한다.
- 주요 정거장과 대중교통 결절점, 건물 출입구 부분과 보행가로가 교차하는 부분에는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가로에 자전거보판대를 설치할 수 있다.
- 관광안내소와 가로판매대는 보도폭이 4,000mm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 설치시 공공건축물이나 공개공지 일부를 활용하여 보행가로 점유율을 최소화한다.
- 공중전화부스와 우체통은 사용 빈도와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치 수량을 최소화한다.
- 분전반, 배전반, 교통신호제어기 등 지상변압기기와 지하철환기구의 보도상 설치의 지양하며, 되도록 가로화분대나 인접 공공건축물의 조경 구역 내에 통합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가로의 유효보도폭 내 시계탑의 설치의 하지 않는다.
- 가로화분대는 시설물 설치 구역 내에 배치하며, 벤치나 볼라드, 등 다른시설물과의 통합을 권장한다.
- 보도폭에 따른 세부적 시설물 배치 기준은 아래 <표>의 규정에 따른다.

[표] 보도폭별 공공시설물 배치

보도폭	경계부 구성방안
3m 미만	장애물 구역과 보행구역 간 포장재 변화
3m 이상	보행기준선 또는 녹지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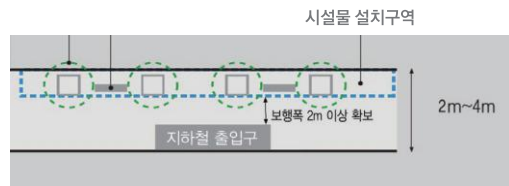
1. 시설물 설치 구역이 명확히 구분된 예시
2.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은 보도
3. 장애없는 보도의 횡단구조
4. 2인 이상 통행가능한 유효폭 확보

보행 편의 고려

- 벤치와 차도 사이에는 벤치 이용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둔다.
- 보행가로 내 도로와 전면 공지를 통일패턴 및 재질로, 경계의 단차없이 연계하여 일체감 있게 계획한다
- 육교나 지하도 등 입체 횡단시설 설치는 지양한다. 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 성인 2명이 교행할 수 있는 보도폭을 확보한다.

[표]
보도폭별 공공시설물 배치

보도폭	설치 제한 시설물	배치 가이드라인
보도폭 2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치 · 자전거보관대 · 관광안내소 · 공중전화부스 · 우체통 · 가로판매대 · 지상노출승강기 · 육교 · 가로화분대 · 상징조형물 · 제설함 · 택시정류장 · 가로수 	보도폭이 2m 이하 일 경우에는 시설물을 제한적으로 배치한다.
보도폭 2~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조형물 · 가로판매대 · 가로수보호덮개 	보도폭이 2~4m 인 경우 시설물 설치구역의 보도쪽 경계를 가로수보호덮개의 보도 쪽 경계와 일치시킨다.
보도폭 4M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시설물 없음 	보도폭 4m 초과시 설치시설물에 제한은 없으나 보도상황에 따라 시설물 설치 구역에 통합하여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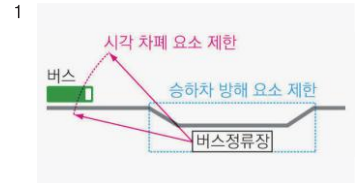


교통시설 접근성 향상

- 버스정류장쉘터는 보도폭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여 설치한다.
- 버스정류장 설치 구역 내에 교통 관련된 것 이외의 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 접근 버스의 인지를 방해하는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 버스정류장 설치로 유효보도폭이 축소되지 않도록, 인접한 공개공지, 옹벽, 완충 녹지 등과 버스정류장의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 택시정류장은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주요 정거장, 환승 센터, 관광지, 호텔 등 이용이 집중되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 지하철출입구개노피와 지상노출승강기는 시설물 이용자와 보행가로 통과 동선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한다.

가로경관 보존 및 형성

- 수목으로 가로를 특화하여 명소화('낙엽이 아름다운 거리', '봄꽃길' 등) 하고 가로수 종을 다양화할 것을 권장한다.
- 군집 식재, 다층 식재 등을 통하여 가로경관을 다양화한다.
- 교량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 교량 난간의 기둥과 간격을 일치시켜 통일감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 가로등주 사이에 가로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는 패턴을 사용한다.



1. 버스정류장의 시설물 설치
2. 수목터널을 조성하여 특화거리로 명소화

안전시설물 남용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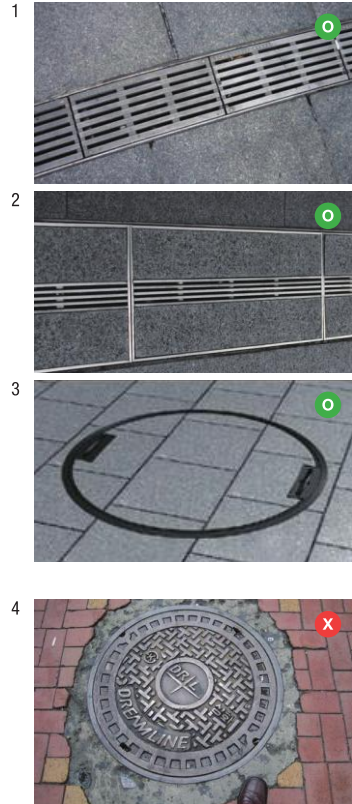
- 볼라드 배치 시 휠체어·자전거 등이 통과할 수 있는 간격을 1,500mm 이상 확보한다.
- 펜스는 미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반영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 도로폭이 충분할 경우 식재 울타리를 권장한다.
- 보행가로변 방음벽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방음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이격이나 창호시설 보강, 저소음 포장 및 방음림 조성을 우선한다.
-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높이는 기단부 포함 6,000mm 이하로 하고 식재대와 통합 설치한다.
- 도로변 옹벽의 설치를 최소화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옹벽 및 방음벽 Reference Book> (2008. 서울특별시) 규정에 따른다.

안전 확보 및 활성화

- 유치원, 학교 주변은 가급적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한다.
- 통학용 차량의 승하차 공간은 일정 거리 이격시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시설(운동시설, 상점, 휴게시설, 아파트 출입구 등)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 무단횡단 방지시설, 무단횡단 지양표지는 되도록 설치하지 않는다.
- 횡단보도 진입부나 보차도 경계 구간 등 턱 낮추기로 경사가 발생하는 곳의 신호등주의 설치는 지양한다.
- 보차도 경계석의 설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9.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르되, 곡선 부위에는 도로의 회전 반경에 맞도록 제작된 곡선형 경계석을 사용한다.

보행약자 배려 및 점자블록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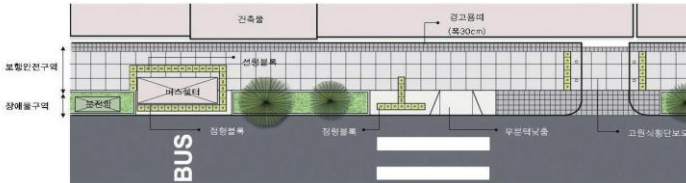
- 트렌치는 살이 통행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거나 살 간격을 촘촘히 하여 자전거·유모차·휠체어 등의 바퀴가 끼이지 않도록 한다.
- 횡단보도 상 우수트렌치 및 맨홀이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 보행구역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기준이 될 수 있는 보행기준선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보행기준선은 보행구역의 한쪽 혹은 양쪽에 녹지 또는 경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밝기 및 재질이 다른 띠를 적용하여 조성한다.
- 경계부의 띠는 300mm 이상의 너비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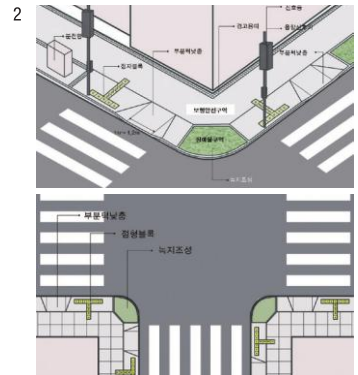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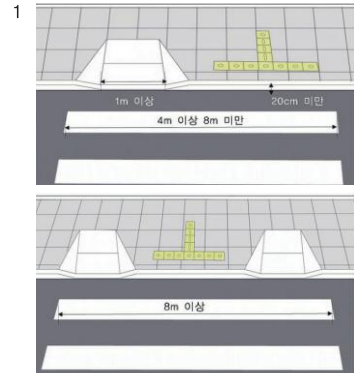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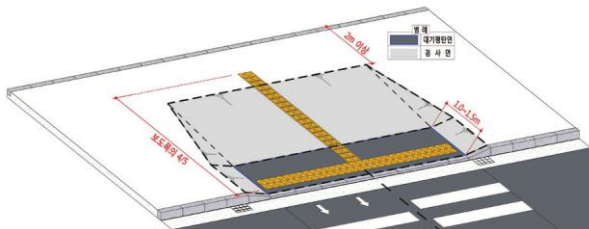
1. 보행방향에 직각이거나 간격이 좁아 안전한 트렌치
2. 마감이 깔끔한 트렌치
3. 보도와 경계부의 미려한 마감처리사례
4. 맨홀 경계부의 불량한 보도마감 사례

- 보도 상 녹지는 반드시 장애물구역 내에 통합설치하고, 경계석은 포장면과 단차가 없도록 한다.
- 보행기준선이 없거나 단절되는 곳은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한다.
- 횡단보도 및 보도의 시종점부, 대중교통 승하차 지점과 같이 차량과의 충돌이 예상 되는 지점은 차도와 보도의 경계부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사전에 감지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거나 계단, 급경사와 같이 지형변화가 있을 경우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횡단보도, 대중교통시설, 공중화장실, 안내센터 등이 보행구역과 인접하지 않은 경우 이를 연결하는 선형블록을 설치한다.
- 점자블록은 황색계열을 원칙으로 하고 밝고 대비효과가 큰 제품을 사용한다.
- 미끄러움이 없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 점형블록은 경계석과 볼라드 전면에 300mm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 횡단보도 앞 전체 턱낮춤 구간에는 횡단보도 너비만큼 점형블록을 반드시 설치한다.
- 점형블록 배치 시 음향신호기 전면에 우선 위치되도록 한다.
- 점자블록의 사양 및 설치방법은 <보행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매뉴얼> (2016.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 (201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4



5



1. 점자블록과 부분턱낮춤의 분리설치
2. 횡단보도의 구성원리
3. 올바른 점형블록 설치 예시
4. 장애 없는 보도의 표면 구성
5. 점자블록과 전체 턱낮춤의 설치

재료

재료의 선정

-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 지나치게 많은 재료의 혼용은 지양한다.
-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다.
- 내구성이 뛰어나고 교체가 용이한 블록형 포장재나 현장 타설형 재질을 사용한다.
- 맨홀로 인한 보행 상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맨홀덮개는 보도포장과 연속성 있는 형태로 마감한다.
- 블록형 포장재는 경우 300×300(mm) 규격의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투수성 확보

- 투수성이 있는 블록을 사용한다.
- 가로녹지대 등을 조성하여 투수 면적을 높인다.
- 보도폭이 충분한 경우, 투수 면적을 늘리고 비점 오염 물질의 저감을 유도하도록 가로녹지대 내 자연 배수로 설치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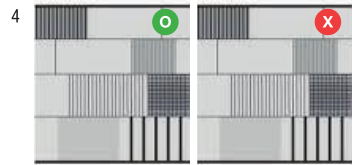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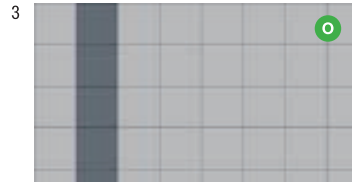
색채/패턴

보행영역의 색채 및 패턴

- 보행로의 패턴은 주조색의 명도가 포인트 색상보다 낮게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포장재의 색채는 무채색과 재료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명도차이가 큰 포인트 색채는 지양한다.
- 보행구역 내의 마감의 패턴, 질감을 통일하여야 한다.
- 시설물구역은 보행구역과 밝기 및 질감이 대비되도록 한다.
- 보행방향과 평행한 패턴은 지양하고, 직각방향의 패턴을 권장한다.
- 과도한 패턴사용은 지양한다.



7



1. 좁은 공간안에 지나치게 다양한 패턴의 혼용지양
2. 보도폭이 충분할 경우 자연 배수로 도입
3. 저채도 색 사용
4. 포인트 사용 최소화
5. 좁은 공간 안에 지나치게 다양한 패턴의 혼용
6. 직각방향의 패턴을 적용한 보도블록
7.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포장재료 및 패턴

식재

보행권을 침해하는 가로수 식재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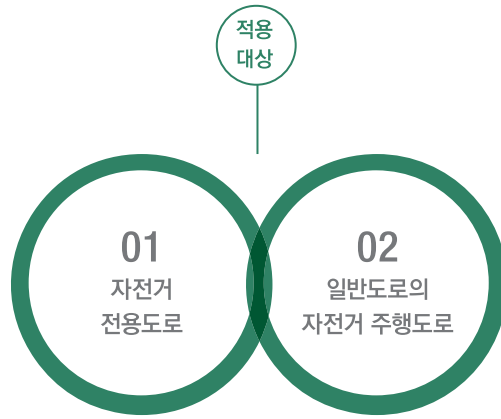
- 가로녹지대는 충분한 보도폭이 확보 될 경우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다른 시설물이 밀집한 지역의 가로화분대 설치는 지양한다.
- 보행가로와 횡단보도의 교차 구간 내에 가로수 식재를 지양한다.
- 교통안전표지 지주의 5,000mm 이내에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한다.
- 유효보도폭 2,000mm 이하의 도로에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한다.
- 가로수보호덮개는 차도 쪽 경계선과 보차도경계석이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주변과 조화로운 식재 및 관리

- 기존의 자연 식생 및 보호수와 조화되도록 식재한다.
- 가로수가 주요 상징 건축물 등을 향한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무분별한 가로수 교체를 지양하고 노거수나 보호수는 보존한다.
- 가로녹지대에는 생울타리와 같은 관목류를 식재하거나 자연 배수로를 조성한다.



1. 가로수보호덮개 경계와 보차도 경계석이 일치하지 않는 예시
2. 보도패턴과 어울리지 않는 덮개



B

현황 및 문제점

- 지하철환기구, 전신주, 기타 가로시설물 등의 자전거도로 내 설치로 도로 이용이 불가능 하다.
- 자전거 전용 신호체계가 없다.
- 차도와 만나는 지점의 경계석 단차로 실질적 이용이 불가능하다.
- 짧은 구간 설치로 연속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보도폭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권을 침해한다.
- 보관소가 적절한 위치에 구비되어 있지 않다.
- 고채도 원색 계열 색 사용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

C

기본 방향

- <서울특별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계획>에 근거하여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실질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 설치를 지양한다.
- 소로 등 주행 속도가 낮은 도로의 차도폭과 차로수를 재정비하여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보행과의 마찰을 최소화한다.
- 자전거 동선과 보행동선을 엄격히 분리한다.
- 자전거도로상 돌출 시설물 설치 지양한다.
- 기존의 돌출 시설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구간이나 자전거도로와 보도의 최소폭이 확보되지 않는 보행가로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지양한다.
(보도 최소폭: 1,500mm, 자전거도로 최소 폭: 1,200mm)

지형

평탄도 유지

- 교차로부에서 자전거가 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경우에 자전거횡단도와 접속되는 지점과 차도상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시·종점부 및 자전거도로의 차도와 보도사이의 교차지점에 보도턱 낮춤 시공을 하여야 한다.
- 노면의 요철을 최소화하고 보행가로에 준하는 평탄도를 유지한다.

연속성 확보

- 자전거도로의 자전거 이용자가 차량이나 보행자 등에 방해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자전거도로는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주변보도 및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배치

주행공간 확보

- 보행자 횡단보도와 별도로 자전거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 자전거도로상 시설물의 설치는 하지 않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 대중교통 연계 지점, 주요 건물들과 결절점, 휴게시설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와 대여소를 설치한다.
- 자전거보관대는 옹벽, 교량 하부, 건축물 벽면 등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

- 자전거 보관소는 도로 등으로부터 전망 확보와 더불어 도난방지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건물, 식재 등에 의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 CCTV 설치를 권장한다.
- 자전거 도로 인근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을 배치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배치한다.
- 자전거 도로상 조명 설비는 도로 폭과 보행방향에 따라 사람의 행동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명설치를 통해 조도를 확보한다.



1. 교차로의 레벨을 보도와 일치시켜 보행 안전을 확보한 예시
2. 자전거 횡단보도 도입 예시



3. 바닥처리를 통하여 설치한 자전거 보관대의 예시
4. 가각부의 시각적 개방
5. 학교 앞 서행을 유도하는 패턴
6. 자전거 횡단보도 표시 예시

재료

노면 처리와 영역성 구분

- 자전거도로의 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권장하며, 필요시 표층에 표면처리 포장을 할 수 있다.
- 보행가도와 다른 재질을 쓸 경우 사이 경계를 매끈하게 시공하고, 같은 재질을 쓸 경우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한다.
- 차도와 교차되는 구간에서 자전거도로의 주 재질을 연장하여 연속성을 높이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노면 처리를 권장한다.

트렌치 안전 확보

- 자전거 바퀴가 트렌치에 끼지 않도록 트렌치 살의 방향이 자전거 진행 방향과 직각을 이루도록 설치하거나, 살 간격을 촘촘히 한다.

식재

완충공간 확보

- 자전거도로와 차도 사이에 폭 500mm 이상의 완충 녹지 설치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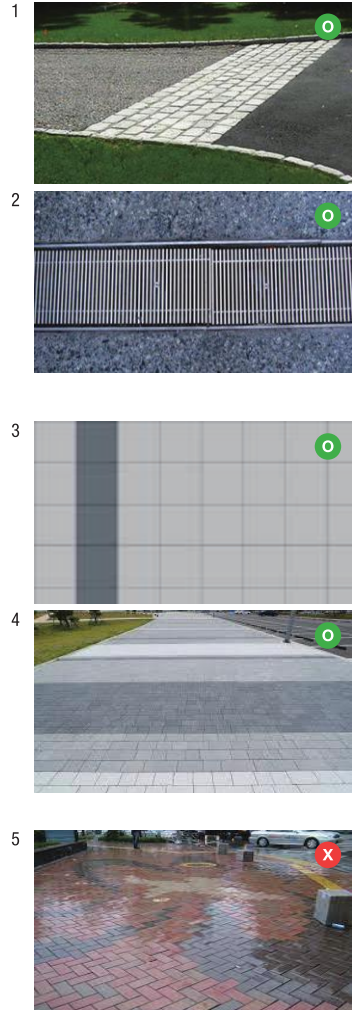
주행자의 안전과 시야 확보

- 교목은 성인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수목의 가지에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지하고가 높은 수종을 선택한다.
- 자전거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보도 및 차도와의 교차 지점이 잘 보이도록 식재 간격과 위치를 결정한다.
- 담, 울타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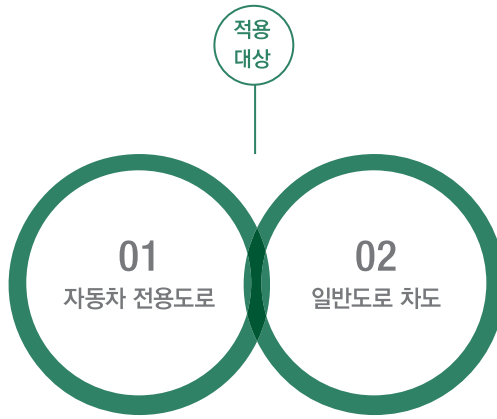
패턴및색채

노면 처리와 영역성 구분

- 포장면에 자전거도로 노면표지를 명확히 표기한다.
- 자전거도로의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전거와 차량, 자전거와 보행자간 상충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 상충구간을 포함하여 각 양측의 10m 구간의 포장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상은 암적색으로 한다.



1. 노면 요철을 이용한 주의 표시
 2. 자전거 바퀴가 끼지않는 트렌치
 3. 완충 녹지 설치 예시
 4. 녹지대를 활용하여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
 5. 가로수가 자전거 통행을 방해



B

현황 및 문제점

-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주행 안전이 저해된다.
- 보행자 안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 가로수를 포함한 가각부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주요 공공시각매체를 차폐하고 안전을 저해한다.
- 차도에 자극적인 고채도 색이 사용되어 운전자의 시각적 안정감을 저해한다.
- 포장의 경계 부분 마감처리가 미흡하다.

C

기본 방향

-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가로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 보행약자보호구역에서는 노선을 곡선화하거나 굴절시키는 등으로 차량 감속을 유도한다.
- 계획된 주행 속도와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차량 중심 차도와 보행약자보호구역으로 구별하되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형

평탄도 유지

-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평탄한 노면을 조성한다.
- 노면의 요철을 최소화하고 보행가도에 준하는 평탄도를 유지한다.

보행약자를 위한 속도저감 확보

- 보행약자보호구역에는 차량 감속을 위한 과속방지시설,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설치를 권장한다.
- 차량의 속도저감을 위해 S자형 선형도로를 권장한다.
- 스쿨 존 주변 도로의 선형 및 노면표지 조정으로 차량의 속도 완화를 유도한다.

인공성 최소화

-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 표면 배수의 집수와 비점 오염 물질의 처리를 위한 마운딩(mounding)과 자연 배수로 조성을 권장한다.
- 도로 측면의 절개지 사면은 비탈면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인공성을 최소화한다.



1. 교차로의 레벨을 보도와 일치시켜 보행 안전을 확보한 예시

배치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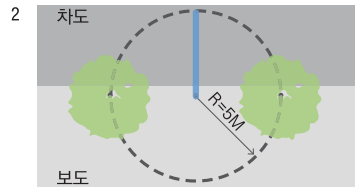
- 가각부에 운전자의 시선을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하지 않는다.
- 교통표지판 지주 반경 5,000mm 이내에는 공공시각매체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하지 않는다.
- 버스정류장 내에 버스 이용객의 승하차와 접근 버스 인지를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는다.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 확보

- 차량 중심 차도에서는 가각부에 충분한 회차 반경을 확보하는 반면, 보행약자 보호구역에서는 회차 반경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 차량 감속을 유도한다.
- 소규모 교통섬을 최소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섬이나 교차점 광장에는 휴게 및 녹지 기능의 강화를 권장한다.
- 신설되거나 새롭게 보수하는 자동차도로의 경우 트레치의 노면상 과다 노출은 지양한다.
- 배수로의 경우 빗물유도 포장과 바퀴가 빠지지 않는 배수 그레이팅을 적용한다.
- 도로등, 가로등, 방범등 등 조명 설비 주위에 극단적인 명암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통관련 시설물 통합 및 최소화

-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무단횡단 금지표지의 설치를 되도록 지양한다.
- 대기오염전광판, 도로소음전광판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크기를 최소화한다.(협의필요)
- 교통상황전광판은 교통 지체 구간 등 교통정보가 필요한 장소에 적정 크기로 설치한다.
- 교통사고전광판은 철거를 권장한다.(협의필요)



1. 가각부의 시각적 개방
2. 교통표지판 주변 시설물 제한

재료

견고한 재료의 사용

- 쾌적하고 안전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견고한 재료를 사용한다.
- 포장의 요철이 안전한 통행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영역성 및 연속성 확보

- 보행약자보호구역의 횡단보도 등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은 차도의 주 재료와 구별되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보행약자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에는 인접 보도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보행의 연속성을 높일 것을 권장한다.

패턴 및 색채

안전한 도로 조성

- 보행 중심의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나 보차 공존 도로의 경우 차도 포장의 패턴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약자보호구역에는 운전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도록 노면 요철 포장, 감속 시설, 노면표지 등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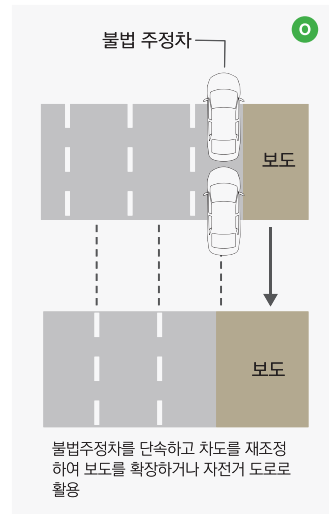
심리적 안정성 확보

- 버스전용차로 등을 일반 차도와 구분하는 경우 눈부심이 없고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는 색채를 사용한다.
- 방음벽 옹벽 등 차폐감을 형성하는 시설물은 식생녹화, 자연소재 등을 적용하고 안정감을 주는 차분한 저채도 색채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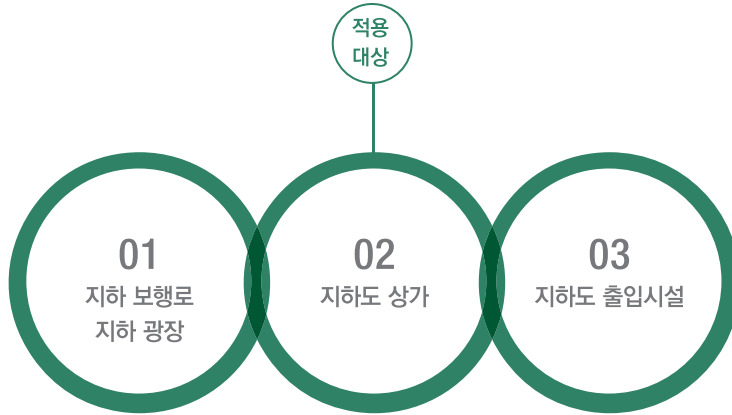
식재

이용자의 심리적·시각적 편의 확보

- 가로수를 포함, 차도변 혹은 중앙분리대의 적절한 식재를 통하여 운전자의 시각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녹지율을 높이며 도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 횡단보도의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 인접 구역의 그늘 식재를 권장한다.



1. 노면 요철을 이용한 주의 표시
2. 학교 앞 서행을 유도하는 패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B

현황 및 문제점

- 이용자를 위한 대기공간이나 휴게공간이 부족하다.
- 지하공간 안에서 방향을 잃거나 출구를 찾기 힘들다.
- 상점의 진열품이 보행공간을 차지하여 통행에 지장을 준다.
- 상점 입구에 턱이 있어 보행약자의 출입이 어렵다.
- 지하공간이 어둡고 야간에는 불안감을 느낀다.

C

기본 방향

- 이용자를 위한 대기 및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 지하공간 내 방향 및 출구인지를 도와주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보행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디자인한다.
- 보행약자가 지하공간 내 상점 이용시 장애가 없도록 진출입구를 평탄하게 조성한다.
- 쾌적한 환경을 위한 자연채광 시설 및 환기 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지형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채광·환기 및 연기의 배출 등에 필요한 천창을 지하도상가 면적의 2/100 이상 설치해야 한다.
-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8조> 규정에 준한다.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

사각지대 예방

배치

보행보조 손잡이 설치

이용자 편의시설 확보

-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준한다.
- 적정 규모의 이용자 대기,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 휴게실, 수유실, 위생실, 어린이 놀이터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인다.



1.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지하보도
2.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지하보도 계획
3. 보행 보조 시설이 설치된 지하보도

범죄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계획

- 공간을 별도로 구획할 경우에는 범죄발생 등 사고예방을 위한 감시시설을 설치하고,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보행구간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공간을 활성화 시킬 것을 권장한다.

출입과 보행공간 확보

- 하나의 지하도 출입시설에는 1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며, 각 출입구의 너비는 2,000mm 이상이어야 한다.
- 출입구를 1개만 설치할 때는 출입구의 너비를 지하 보행로의 너비보다 넓게 해야 한다.
- 지하도상가의 출입구(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포함)가 지상의 보도에 설치될 때는 해당하는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도의 너비가 3,000mm 이상이어야 한다.
- 지상보도의 보행자 수가 적어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될 때는 2,000mm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 지하 보행로의 너비는 최소 6,000mm 이상이어야 하며, 지하 보행로가 지하도상가 등에 의해서 2개 이상으로 분리되더라도 각각의 지하 보행로가 최소 6,000mm 이상이어야 한다.
- 장애인용 승강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준한다.
- 8인승 승강기를 기준으로 지하도상가의 면적 3,000㎡까지는 1대를 설치하고, 3,000㎡를 초과하면 2,000㎡마다 1대의 비율로 추가한 대수(16인승은 2대로 간주)를 설치해야 한다.

재난 및 사고 대응

-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준한다.
- 재난대비용품 등을 눈에 잘 띄는 곳에 통합 배치한다.
- 중앙방재실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지상과 출입이 쉬운 곳에 설치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방연구획을 한다.
- 중앙방재실은 민방위기관·소방기관·경찰기관·가스사업자 및 지역 방재기관(지하역과 접속되는 경우) 등 관계 기관과 유무선 교신이 가능한 설비와 자체 감시카메라(CCTV)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신속한 외부통보 및 구원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법별, 적색 회전등 등의 긴급통보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형태

경관 통합 디자인 적용

- 보행공간내 명확한 동선안내를 위한 방향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결절점과 출입구 주변에는 안내도를 설치한다.
- 사인은 벽과 바닥, 천장, 코너부 등을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배치하되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인지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한다.
- 보행안내사인과 상업시설 간판, 입면 등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하여
지하공간의 통합적인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 유도표지는 위급상황 발생시 빠른 시간에 정보를 읽고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읽기 쉽게 디자인한다

재료

이용자 시야 확보

- 지하보도 입구와 상점 및 시설의 출입문은 유리 등의
투시형 구조로 계획한다.

패턴 및 색채

밝은 분위기 조성

- 지하보도 내부 마감시 명도가 높은 색상을 활용하여
밝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안전시설 인지성 향상

- 비상벨의 설치 기둥과 벽은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되게 하여야 한다.
- 지하보도의 출입구, 비상구, 소화기, 경보기 등의 위치는
명확하게 인지되도록 조명 및 색채 계획을 해야 한다.

식재

쾌적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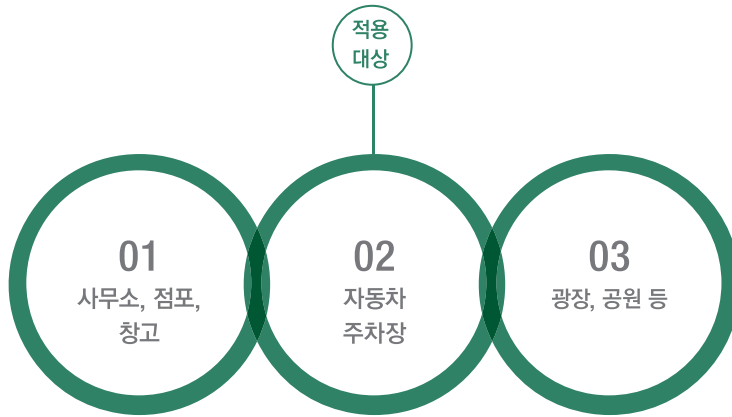
- 자연채광이 되는 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하여 실내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주민참여 녹지공간 조성

- 지하보도 내 주민 및 상인이 직접 관리하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관 향상과 함께 공간이 우범화 되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 명도가 높은 색상으로 마감된 지하보도



B	C
현황 및 문제점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도로 하부 공간이 어둡고 야간에는 불안감을 느낀다 · 소음과 진동, 매연 등 유해요소가 많은 열악한 환경이다 · 이용자를 위한 대기공간이나 휴게공간이 부족하다 ·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위압감을 발생시킨다. · 빈 공간이 방치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설치와 개방형 공간 조성으로 보행자의 야간 안전을 확보한다. ·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의 유해요소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한다. · 이용자를 위한 대기 및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 자연광 유입, 밝은 색채 사용, 관목식재 등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방치되거나 우범화 되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형

원활한 통행 확보

- 고가하부의 주변과의 연계와 원활한 통행을 위해 보행브리지나 데크사용을 권장한다.

배치

인지성 및 접근성 향상

- 보행자 동선확보와 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 보차분리 및 일정거리 이상의 거리를 둘 것을 권장한다.
- 고가하부 공간과 보행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 접근이 쉽고 넓은 공간에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가 가능한 커뮤니티 광장을 배치한다.
- 주차장은 가용지 내 주차구획을 마련하거나, 주변 공영 주차장과 연계를 권장한다.

부정적 이미지 개선

- 시민들의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해 벤치 및 파고라 설치를 권장한다.
- 고가 하부의 밝은 이미지를 위해 풍경, 바람개비, 안개분수 같은 요소를 더하고 방향성 제공을 위해 열주 조명 등과 같은 수직요소를 도입한다.
- 밝고 경쾌한 색상의 조명을 통해 기존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로에 인접한 영역은 표시등을 설치하여 이용자 및 운전자 모두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가급적 자연광이 유입되는 구조로 계획해 불안감을 저감 시킬 수 있는 조명계획을 세워야 한다.

범죄예방 안전 시설물 설치

-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한 범죄와 노상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가하부 보행로 주변에 안전난간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교량 하부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공간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백색계열의 조명,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야간에 범죄취약 공간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명과 출입 통제 시설을 설치한다.
- 안내표지는 간결한 서체, 분명한 대비의 색채, 이해하기 쉬운 상징기호 등을 사용하여 계획하고, 야간 및 위급한 상황 발생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1. 주변과 연계되는 보행브리지 예시
 2. 고가하부와 보행로의 자연스러운 연결
 3.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

형태

공간의 가변성 강화

- 협소한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변벽과 회전벽을 설치하여 상황에 맞는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 2층 이상의 구성에 무리가 없는 경우 기능실과 관리실을 상부층에 계획하고 하부층은 전면개방하거나 2개층 모두 사용하는 등 다양한 구성을 권장한다.
- 고가하부 기둥과 벽면 등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권장한다.

재료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

- 콘크리트같은 습식구조는 설치와 철거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량철골조 및 가구식 구조같은 건식구조를 권장한다.
-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외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창문의 기밀성을 높이고 실내 공기정화 필터를 장착한 환기설비가 필요하다.
- 도로변 및 고가하부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비해 고가하부 흡음판설치를 해야한다.
- 고가상부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진벽과 차음벽설치를 통해 직접적인 진동과 소음을 방지해 주민들간 커뮤니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보도 포장재는 비상용 대형차량 및 일반 차량의 정차 및 통과가 가능한 5M 내외로 구성하여 지역내 행사 및 거리축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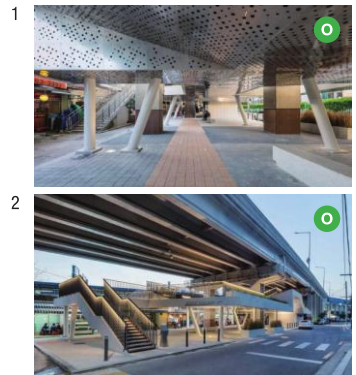
자연광 유입재료 사용

- 일조량이 부족한 고가하부에선 반사거울을 이용하여 자연광을 유입시켜 폐쇄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일부 반사체는 PV패널로 설치해 친환경적이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적용한다.

패턴/색채

도시구조물과 어우러지는 색채 사용

- 고가하부공간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은유적인 색채를 설정하고, 각 시설물에 변용하여 적용, 고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 지역의 일부로 인식되게 적용하여 도시 미관에 활력을 부여한다.
- 공간 및 시설의 입구는 시인성이 좋은 색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출입을 유도한다.



1. 개방적인 이미지의 하부 공간 예시
2. 주변 도시구조물과 조화되는 조명 및 색채 계획

식재

입체적인 공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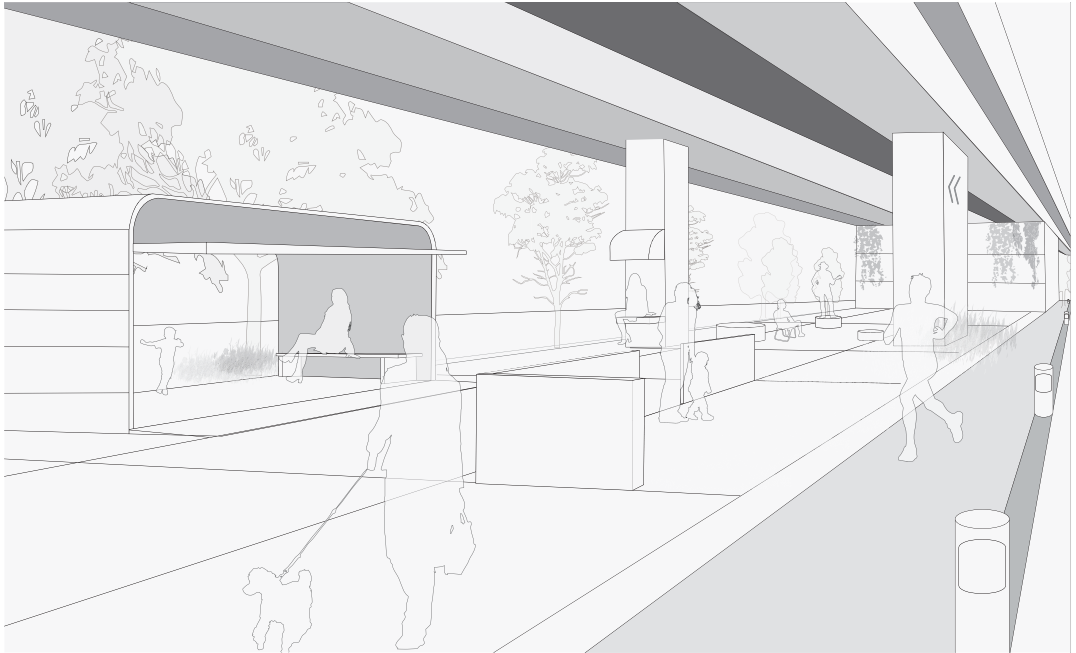
- 시각적인 완화를 위해 관목류, 구조물 벽면에 만경류, 교목의 패턴식재 등 입체적인 식재 경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시각적 개방감 확보

- 낮은 관목위주의 사용을 통해 공간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한다.
-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시야확보를 위해 시설물 및 식재사이 여유로운 간격과 배치를 권장한다.
- 조경수목은 보행자의 시선연결 확보, 잠재적 범죄자의 은신 공간 제거, 가로 시설물(조명, 방범용 감시카메라, 안내사인물 등) 기능 유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주민참여프로그램 계획

- 주민 참여를 통한 꽃길 조성, 화분 설치, 녹화 등의 계획을 통하여 고가하부 환경을 개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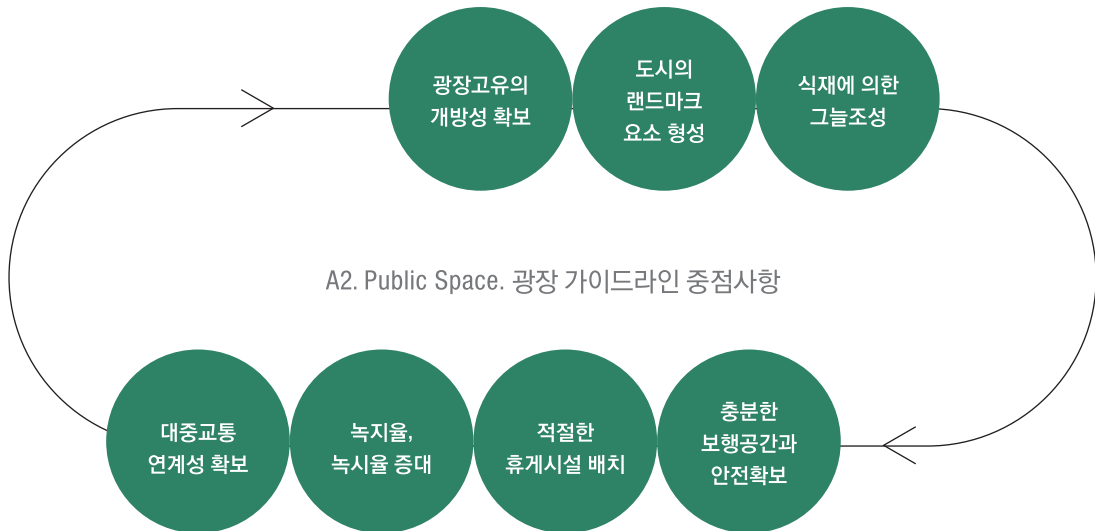
A2 | 광장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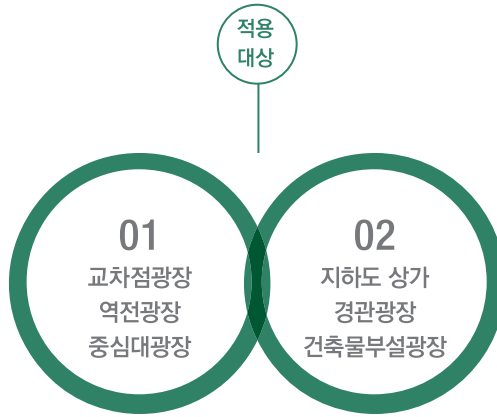
광장은 넓은 공터로 구성되어 시민들이 머물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다.

광장은 보행자의 단순 이동, 통과 뿐만 아니라 집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이용자가 머무르는 동안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주변에 배치되는 공공시설과 함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통시설 등 다른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거점공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도시의 상징적 공간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변맥락에 맞는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

A

FOCUS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광장 중 옥외에 조성된 교통, 일반, 경관, 건축물부설 광장을 대상으로 한다.

B	C
현황 및 문제점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도에 의한 단절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 설치된 고정 시설물이 많아 가변성이 부족하다. · 휴게시설 및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 · 하절기와 동절기에 그늘의 유무에 따라 이용도의 차이가 심하다. · 지나치게 장식적인 상징조형물 등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 다양한 포장재료의 무분별한 혼용으로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동선의 주요 교차점, 대중교통 주 진출입부, 주요 건축물의 전면 혹은 중앙 공간 등 보행자가 쉽게 접근하여 머무는 일이 잦은 장소를 광장화한다. ·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통합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 보행가로와의 연계성을 극대화한다. · 지나치게 장식적인 상징조형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 대규모 포장면의 여름철 복사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형

접근성과 이동성 향상

- 광장 고유의 평탄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며 보행가로 및 건축물의 지반층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 야외무대, 식재대, 선크(sunken) 공간, 계단광장 등 지형의 변화를 통하여 입체적인 공간을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광장 내 설치가 불가피한 돌출 시설물은 경관 요소로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약자를 배려하여 주요 동선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경계석의 턱을 낮춘다.
- 선크광장에는 보행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수직 이동 장치를 설치하며, 야외계단은 계단광장이나 공연장과 통합하여 복합 공간화할 것을 권장한다.
- 3단 이상 계단의 설치를 제한하여 광장의 평탄성을 확보한다.
- 대중교통, 주요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최단거리의 보행동선을 연결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지하기 쉬운 곳에 입구의 위치를 지정한다.

배치

보행공간 확보

- 시설물은 되도록 광장의 경계 부분에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 구심성이 나 상징성을 위한 시설물은 중앙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 보행가로 및 주 진입로와 단차가 날 경우 계단 이외에 보행약자를 배려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을 설치한다.

공간활용도 증가

- 행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광장은 이동식 시설물을 활용하여 공간의 유연 가변성을 높인다.
- 바닥분수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수경 요소의 활용을 권장한다.
- 광장은 관리용 외에는 차량출입을 통제한다. 볼라드는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공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권장한다.

밝은 분위기 형성

- 광장입구 및 광장 중앙부로 유도하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 광장 내 공중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은 야간에 고립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 건물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여 주변지역도 밝게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1. 2단 이하 계단 설치 제한

2. 입체적인 공간의 예시

시야 및 안전 확보

- 벤치, 파고라, 화장실, 운동시설 등 시설물은 주요 동선에 인접하게 배치하여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이용객들의 안전 및 방법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형태

형태정비

- 광장 시설물 특성상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노숙자들이 장기간 잠을 자는 장소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형태를 권장한다.

개방적 구조

- 광장은 4면이 개방되는 구조를 계획하고, 소규모 광장은 향후 우범지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이 많은 장소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재료

- 인접 건축물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통합적 경관을 조성한다.
-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대한 하중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하고, 마감면에 요철이 적은재질을 사용한다.
- 통과 교통이 많지 않은 구역에는 여름철 복사열 저감과 투수율 및 녹지율 증대를 위하여 잔디 등 식물 포장을 권장한다.
- 안심벨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설치위치를 안내하는 명료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야간에도 인식이 용이하도록 조명이나 형광물질을 도포하여 위치 인식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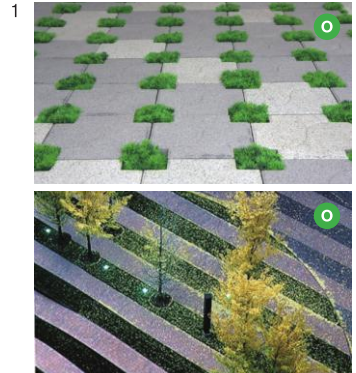
패턴/색채

안정감 형성

- 과장된 패턴과 지나치게 자극적인 색채 사용을 지양한다.
- 광장 바닥 패턴과 공공시각매체의 통합을 권장한다.
-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패턴과 색채를 사용한다.

인지성 증대

- 안내판 및 표지판은 이용객들이 많아 혼잡할 시 현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인지성 높은 색채와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하여야 한다.



1. 식물을 포장재로 이용한 예시
2.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수직요소의 남용
3. 인접경관에 조화되는 색채계획 예시

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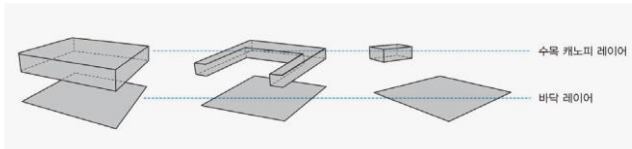
공간의 개방성 및 휴식성 향상

- 수목의 캐노피를 통하여 그늘과 공간감을 부여한다.
- 주요 경관과 공공시각매체를 가로막는 수목 식재를 지양한다.
- 보도 인접 구역이나 광장 외곽에 교목을 식재하여 그늘을 제공하고 광장의 위감을 높일 것을 권장한다. 단, 보행가로와의 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높이도록 지하고가 높은 수종을 선택한다.
- 인공지반에 식재시 생존생육도심을 충분히 확보한다.
- 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각적 초점부에 대형목 또는 군식을 권장한다.
- 인접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식재를 하지 않는 경우, 여름철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은닉장소 방지

- 조경식재가 아닌 난간형 담장을 설치할 경우 50%이상 내·외부가 투시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해 은닉장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광장내 군식처리(사람 출입이 불필요한 녹지)를 할 경우 경계부에 밀생 수종 식재와 조경석 등을 설치하여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 범죄자의 은닉장소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4



유형별 가이드라인

A 교차점광장

-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광장은 차량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교통광장의 휴게 기능을 강화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고려한다.



1. 하절기 그늘 부족
2. 녹지와 조형물을 적절히 활용한 광장의 예시
3. 광장의 위요감을 높인 예시
4. 광장의 식재 수목 방법

B 역전광장

- 대중교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며, 주요 통행동선상에 고정 시설물의 배치를 지양한다.
- 적절한 휴게, 편의,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적절한 공공시각매체로 보행자를 안내한다.
- 광장의 바닥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공공시각매체 설치를 권장한다.

C 중심대광장

- 보행가로를 포함하여 인접 환경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행사의 규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 적절한 휴게, 편의,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적절한 공공시각매체로 보행자를 안내한다.
- 광장의 바닥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공공시각매체 설치를 권장한다.
- 구심점과 장소성 부각을 위하여 수경시설을 포함한 랜드마크 요소의 도입을 권장한다.

D 근린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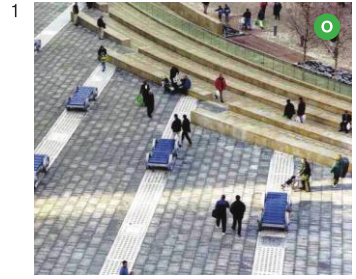
- 이용 빈도와 밀도에 따라 적절한 공간 규모를 산정하여 불필요하게 큰 포장 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 영구 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광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놀이 요소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의 도입을 계획한다.

E 경관광장

- 경관의 품격을 훼손하는 과장된 디자인을 지양한다.
- 상징조형물 도입 시 경관을 훼손하는 수직 요소의 남용은 지양한다.

F 건축물부설광장

- 인접 건축물과 광장의 이용 행태가 상충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선큰광장 조성 시 보행약자를 배려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을 설치한다.



1. 이동식 시설물 설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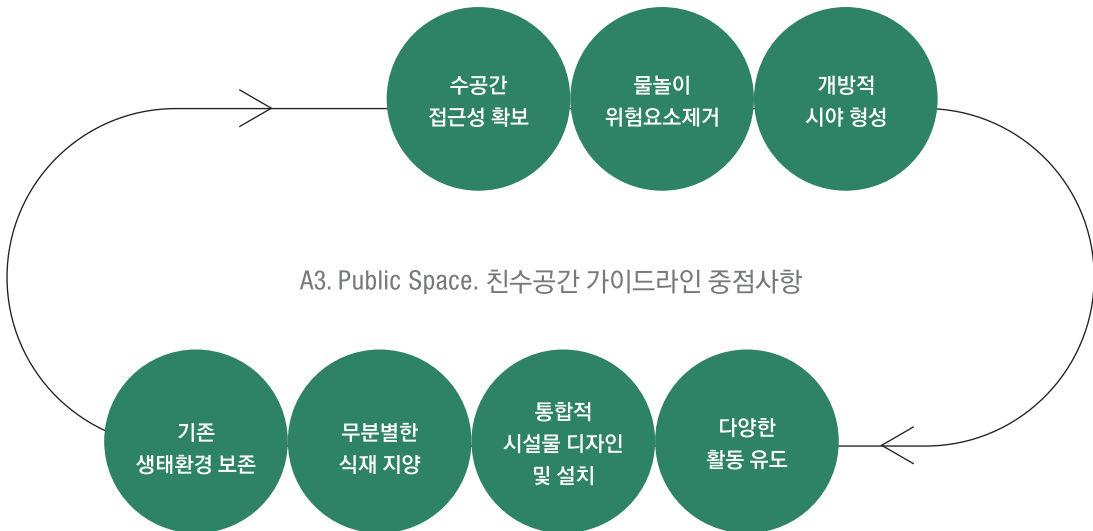
A3 | 친수공간 가이드라인

친수공간은 하천, 호수 등의 수변(水邊)공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지칭하기도 한다.

과거 서울의 수변공간은 물류처리 능력 증대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현재는 수변공간의 특성을 살려 전통적인 기능과 레저·문화·사업 등의 친수기능을 복합화하여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고 있다.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과 함께 자치구별로 위치한 하천, 호수 등의 규모와 성격, 관리주체 등이 모두 다르므로 통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조성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A

FOCUS





B	C
현황 및 문제점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를 통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 · 직강화 사업 등의 결과 조성된 호안 및 법면의 인위적인 콘크리트 구조로 친수성이 떨어진다. · 체육, 휴식, 식재 위주의 시설로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하다. · 외래 수종의 식재와 시설물 과다 설치로 하천 본연의 생태성이 떨어진다. · 통일감 없는 시설물 사용으로 산만한 경관이 연출된다. ·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 하천의 통합적 경관계획이 미흡하다. · 겨울철 수경시설의 일부가 노출되어 미관을 저해한다. · 돌출형 수경시설의 경우 공간 점유율이 높아 이용하지 않을 때의 공간 활용을 떨어뜨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가로에서 하천변으로 이어지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 주변 시선에 개방성을 가지도록 디자인한다. · 친수공간 조성시 주변공간과 조화되도록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한다. · 타 수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 무분별한 식재를 지양한다 · 하천 본연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건강하며 쾌적한 도시의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 어린이들의 물놀이 안전을 고려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 오염 가능성과 원활한 배수를 고려하여 조성한다. · 공간의 수명과 청결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지형

개방적이고 열린공간 조성

- 옹벽조성, 난간 설치 등은 지양한다.
- 평상시 물과 접하는 저수호안은 친수 생태형 공간으로 강화한다.
- 제방쪽 일부를 성토하여 홍수시에도 침수되지 않는 공간을 확보하고, 상징적인 문화·예술·집회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지형평탄도 확보

- 바닥분수와 같이 동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수경공간의 경우 평탄한 지형에 계획한다.
- 옹벽이나 레벨 차이가 심한 곳에는 벽천 등의 활용을 권장한다.
- 지형상 산책로에 단차가 발생할 경우, 완만한 경사로를 활용하고, 경사로만 설치하면 시각장애인 등에게 불리하므로 계단과 병행 설치한다.

배치

보행안전 확보

- 빈번하게 침수되는 구역의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한다.
- 자전거도로로 설치시 보행권을 확보하는 충분한 폭(1,500mm이상)의 보도를 확보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분리한다.
-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은 홍수를 대비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한다.
- 수경시설의 보행권 침해를 지양한다.
- 보행로변에 인공폭포 등을 설치하는 경우 물의 낙하를 고려하고, 보행자에게 물이 튀지 않도록 이격시키도록 한다.

사고발생 사전 방지

- 필요시 집중호우, 또는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대 이용을 제한하며, 이용시간을 안내판에 명시한다.
- 수변공간 내에는 필요시 정해진 장소로만 출입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울타리나 조경을 설치한다.
- 빔공해를 최소화 하여 적정조도를 유지시키고, 하천으로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야간에도 수변공간 내 구조를 알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고 계단이 있는 경우는 적절한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 신체와 접촉가능한 부분의 모서리는 라운딩 처리한다.
- 분수 노즐과 전기 관련 설비의 노출을 지양한다.



1. 직강화된 하천과 친수성이 떨어지는 콘크리트 구조
2.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책로
3.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상충되어 보행이 어려운 예시
4. 충분한 보행폭과 녹지 분리대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5. 수경 설비의 노출

자연경관 보존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통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존 구역과 이용 구역을 나누어 서식처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친수성을 높일 것을 권장한다.
- 조명은 동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되도록 은은하게 설치한다.

자연감시 기능 확보

- 산책로는 범죄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피하고 충분한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풀 또는 하천으로부터 최소한 3,000mm 이상 거리를 두어 계획한다.
- 수변 공간 산책로 코스별로 번호를 매겨 위치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주요 지점별로 운동시설을 배치하여 자연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휴게 공간의 보호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관찰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한다.

사용자들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 바닥분수 설치시 어린이의 발이 끼지 않도록 배수 구멍 크기를 조정한다.

안전시설 배치

- 수상 사고를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절한 곳에 배치한다.
- 수변공간의 산책로에는 사람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등과 보행등을 설치하고, CCTV 또는 안심벨(비상벨)과 같은 보안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재료

유지관리 및 안전성 강화

- 잦은 침수가 일어나는 저수호안에는 유실 피해에 잘 견디며 청소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하천과 잘 조화되는 목재 등 자연 재료의 사용과 철저한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권장한다.
- 바닥분수 주변에는 미끄럼을 최소화하는 재료와 마감재를 사용한다.
-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견고한 재료를 사용한다.
- 청각 효과를 위하여 물이 흐르는 부분의 재질 및 마감처리를 다양화할 것을 권장한다.
- 동절기 유량이 없거나, 가동 중지시에도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1. 수변시설의 개별적인 색채 사용으로 산만한 수변경관 형성
2. 안전시설물의 배치
3. 자연 재료 사용 예시
4. 내구성이 약한 도장재료 사용으로 지속적 유지관리가 되지 못한 예시

패턴 및 색채

하천과 조화로운 경관

- 보도 및 자전거도로에는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한다.
- 재료 자체 색의 활용을 권장한다.
-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한 패턴은 지양한다.
- 주변의 야간경관과 조화되는 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동절기 시설 유희 시에도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디자인한다.

식재

환경에 적합한 식재적용

- 하천변에 서식하는 자생 수종의 사용을 권장한다.
- 상습 침수 지역 내에는 교목 식재를 피하고, 수리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식재방법과 수량을 다양화할 것을 권장한다.
- 홍수위를 고려하여 서식 환경에 적합한 식물 재질과 식재 방법의 도입을 권장한다.
- 하천의 경관적 스케일에 어울리는 규모감 있는 군식을 권장한다.
- 낙엽이 많이 지는 수종은 배수로를 막을 수 있으므로 수종 선택과 위치 선정에 유의한다.

시아확보를 위한 식재배치

- 개방성을 위해 키가 낮은 관목을 식재하고 순차적으로 교목을 식재하되, 교목은 일정 높이 이상의 지하고를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 산책로 주변의 수목과 관목은 가시선이 확보되도록 관리하고, 밀집식재나 차폐식재 등으로 은닉장소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1.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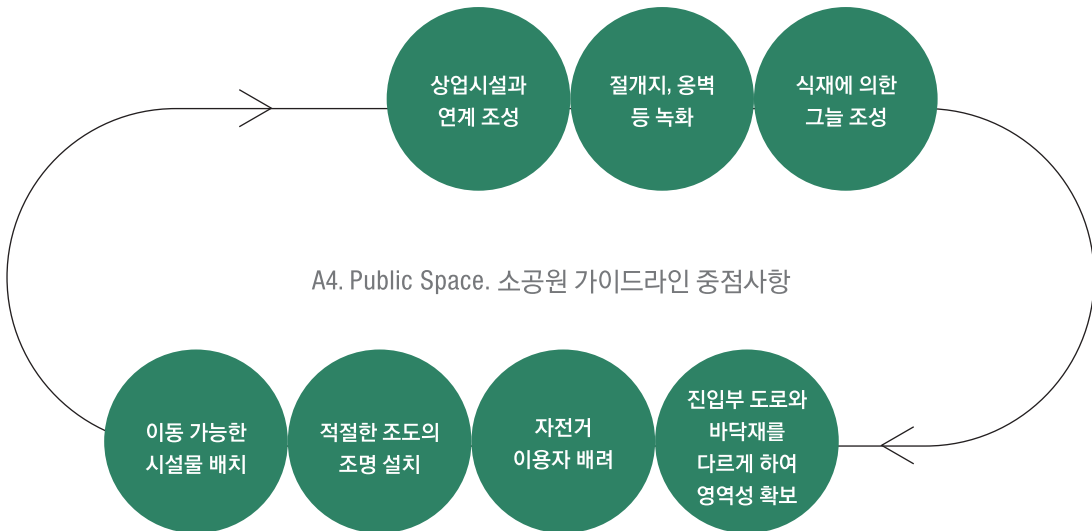
2.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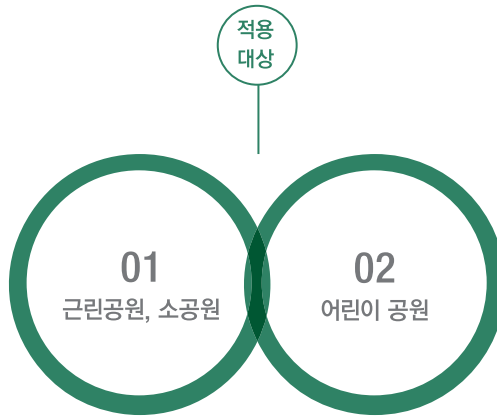
A4 | 소공원 가이드라인

공원은 도시 내 곳곳에 흩어져 주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형성에 이바지하는 공간이다. 또한, 녹지조성으로 인하여 심신의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을 향상시킨다.

최근에는 도시 내 미이용 용지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포켓 공원 등으로 접근성이 높은 소공원이 많이 만들어지는 추세이다.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대규모의 공원을 제외하고, 자치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시공하는 작은 규모의 공원에 대한 기본 지침과 제안사항을 다룬다.

A FOCUS





참고사항

1. 서울시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2.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

B

현황 및 문제점

- 집객요소, 휴게시설물 등이 적거나 위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이용도가 떨어지고 공간이 방치된다.
- 규모에 걸맞지 않는 과장된 디자인으로 산만하고 복잡하다.
- 녹지와 포장 위주로 획일적으로 조성된 공원이 많아 다양성이 떨어진다.
- 주 진입로가 계단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공원 경계부의 담장 및 펜스로 개방성이 저하된다.
- 지나치게 장식적인 상징조형물이 과다하여 경관을 해친다.
- 시설물이 노후하거나 위험하여 이용을 꺼린다.
- 다양한 계층의 이용 및 활동을 지원하지 못한다.

C

기본 방향

- 인접 건축물, 보행동선 및 가로, 주변녹지·수계 등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상호연계, 조화 되도록 한다.
- 공원은 보행약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려움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과 시설물을 배치 하고, 시설물은 이용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 풍부한 식재를 통해 지역 어메니티를 향상시키고, 시설물에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세부적인 공원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공원 유지관리에 참여를 유도한다.
- 지역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장으로서 공간과 부대시설을 마련하도록 한다.
- 공원시설 자체의 성능 확보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이용 등 모든 단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시설물 위주의 공원조성은 피한다.

지형

평탄도 및 연속성 확보

- 포장관련 시설(보행로, 산책로)은 노약자와 장애인을 우선으로 보차도 평탄화 및 단차 최소화로 걷기 편한 보행로를 조성한다.
- 공원 내 통행동선에는 계단이나 급경사를 피하여 평탄하게 계획하며, 불가피한 경우엔 계단 외에 완만한 경사로 및 관련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 보행로와 식재구간의 경계석을 가능한 없애 전체적인 공원경관 연결성을 확보한다.

개방감 확보

- 운동 또는 레저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런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 공원의 입구는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광장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와 수평접근을 원칙으로 한다.
- 산책로는 전망시야를 확보하여 보행이 쉽고 예측 가능한 선형으로 계획하며, 전망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안전거울을 설치한다.

배치

인지성 및 접근성 향상

- 공원의 성격과 주제에 맞추어 통일된 콘셉트의 시설물 디자인을 구상 배치 하도록 한다.
- 공적인 장소임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배치한다.
- 공원 내 편의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 공원의 이용성을 높인다.

안전 시설물 설치

- 야간에 우범화 우려가 있는 곳은 이벤트 조명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 요소를 도입하여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유도한다.
- 공원 출입구와 사각지대, 이용이 많지 않은 장소에는 CCTV, 방범벨이나 초소를 설치한다.
- 공원입구, 통로, 표지판, 산책로, 화장실 주변은 유도등, 보행등을 설치하여 야간 불안감 감소가 되도록 계획한다.
- 외부인의 침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담장의 경우에는 투시형으로서 높이 1,800mm 이상으로 계획한다.

주변환경과의 조화로운 배치

- 맨홀은 보행로 및 산책로와 연속성을 이루도록 자재를 선택하고 디자인한다.
- 배수시설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조경시설물은 크기가 너무 과하지 않으며



1. 개방성 확보를 위해 광장형태로 조성한 공원입구
2. 지형을 활용한 공간계획의 예시

자연스럽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선정한다.

- 공원등은 빛공해 방지를 위해 컷 오프형 방식을 사용한다.

사용자를 고려한 시설물 설치

- 신체와 접촉하는 시설의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
벤치 및 파고라는 이용객 동선과 이용행태에 따라 장소 선정에 유의한다.
-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하여 보호자와 일반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통합이용시설로 계획한다.

재료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 목재, 흙 전돌 자연 석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고,
광택있는 스테인리스 및 철재의 사용은 자제한다.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사용을 자제하고 투수기능의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패턴/색채

공원과 어우러지는 색채 사용

- 색채선정은 공원과 조화되는 서울기와진회색을 권장하며,
현란한 원색은 피하고 공원과 자연경관의 배경 색채로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를 선택한다.
- 지역상징성 부각을 목적으로 과도한 패턴 및 색채대비를 사용한
패턴을 사용하지 않는다.

색채를 통한 영역성 구분

- 공원입구 바닥은 레벨의 변화, 포장재질, 색채의 차별화로
변화를 주어 영역성을 강화한다.

식재

식재배치를 통한 연속성 확보

- 식재는 보행로, 산책로, 공원 등의 시점과 종점에 고르게 분포하면서
연속성 있게 설치해야 한다.

시각적 차폐방지

- 공원 내 조경수목의 위치 및 식재간격은 보행자의 시선연결 확보,
잠재적 범죄자의 은신공간 제거, 인접 가로시설물(CCTV, 가로등 등)의
기능유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공원의 담장을 대체하거나 영역구분을 위해서 식재되는 관목의 수고는
적정 높이(500 ~ 750mm) 이하를 권장한다.



1. 자연 재료를 사용한 놀이 시설물

유형별 가이드라인

A 근린·소공원

- 도로에 연접한 공간은 녹지의 폭을 확보하여 공기정화 방재나 방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적 공간조성을 권장한다.
- 인공적이고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풍부한 녹지대를 확보하여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 기존시설의 기능성과 경관성을 유지하면서 부분적 개선 또는 차선책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도심의 자투리 공간 및 유휴공간(방치된 옹벽 등)의 활용을 통하여 마을 단위의 휴식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 소음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주변 건축물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고 마운딩 수림대 등으로 차음과 차폐효과를 유도한다.
-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인공구조물은 최소한으로 계획한다.
- 덩굴성 식물을 이용한 입면 녹화와 지피식물의 사용을 권장한다.
- 주변 건물의 높이와 방향성을 고려하여 하절기 그늘과 동절기 일조량을 확보한다.
- 벤치의 구조는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긴 휴식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좌판 높이를 낮추고 등받이를 길게 하는 등 활용도와 배치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현란한 원색은 피하고 공원과 자연경관의 배경 색채로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를 선택한다.
- 공원과광부는 군식을 위주로 식재하여 정돈된 이미지를 형성하고 내부는 화목류와 낙엽수 상록수 등을 적정 비율로 식재하여 풍부한 계절감을 유도한다.

「근린·소공원」

도시지역 안의 소규모 토지(유휴공간 포함)를 활용,

도시 거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목적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소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근린생활권 공원	제한없음	500m 이하	1만m ² 이상
도보권 공원	제한없음	1,000m 이하	3만m ² 이상



1. 녹지와 포장 위주의 획일적인 공원
2. 덩굴식물을 이용한 입면녹화
3. 바닥 포장을 활용한 공공시각매체

B 어린이공원

- 어린이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의 이용도 함께 고려하여 공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 놀이시설이 독립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이용동선, 연계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 물놀이시설,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놀이시설, 친자연 놀이시설, 모험 놀이시설 등의 다양한 체험시설을 도입한다.
- 발달 단계에 맞게 유아 놀이 영역과 어린이 놀이영역의 구분을 권장한다.
- 주 접근로와 동행 동선에는 계단이나 급경사를 피하며 평탄하게 계획한다.
- 시각적 차폐로 우범화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 덩굴성 식물을 이용한 입면 녹화와 지피식물의 사용을 권장한다.
- 재활용 재료의 사용을 통한 교육적 효과 창출을 권장한다.
-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격흡수가 가능한 탄성포장을 기본으로 한다.
- 아이들이 선호하는 원색계열의 색과 안정적인 분위기의 색을 적절히 혼용하여 사용한다.
- 이용자의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고, 가시성이 좋은 안내표지를 부착하여 어린이들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 출입부가 도로 측에 위치할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변에 자동차 속도 감속시설을 설치한다.
- 적절한 조명을 통하여 야간활용도와 안전성을 높인다.

「어린이공원」
 놀이기구가 있는 어린이들의 실외 놀이장소로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체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공원의 성격을 지닌 공원을 말한다.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250m 이하	1,500m ² 이상



1. 다양한 체험시설이 도입된 예시
 2. 충격 흡수가 가능한 탄성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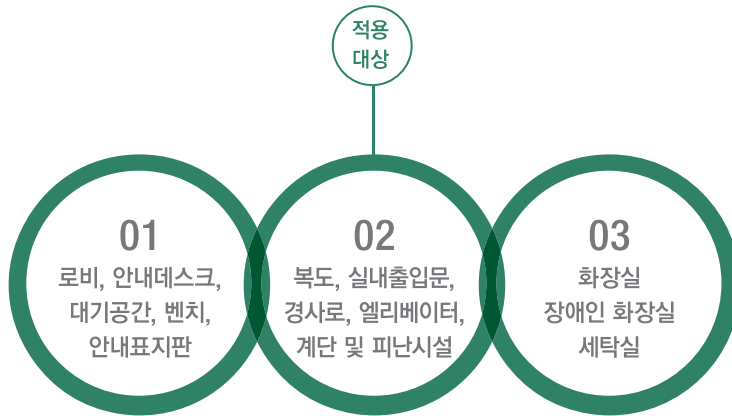
A5 | 공공건축물 실·내외 공간 가이드라인

건축물의 실내·외공간은 일반적으로 하루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공용 공간은 불특정 다수, 다양한 계층의 복합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설계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영역이 있어 자칫 무계획적으로 시설물이 설치될 우려가 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건축물 자체보다는 내부 및 주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기본 지침사항 및 기준을 제시한다.

A FOCUS





- [01. 공용공간] 건물의 출입구에 부속하여 방문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만남의 장으로도 쓰이는 공간
- [02. 이동공간] 로비에서부터 원하는 공간에 다다르기 위해 이동경로로 이용하는 공간
- [03. 위생공간] 건물의 이용자의 위생적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

B	C
현황 및 문제점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설계시 시설물의 공공성 향상 방안이 함께 고려되지 않거나 구체화 되지 않는다. · 내부 공간의 요소별로 디자인이 제각각이고 시설물들이 질서가 없이 배치, 설치되어 혼란을 가중시킨다. · 로비공간, 이동공간의 안내정보가 눈에 띄지 않거나 적치물 등에 가려서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 외국인들이 방문하여 쉽게 목적지를 찾아가기 어렵다. · 보행보조기, 우산 등의 물품 휴대시 임시보관이 어렵거나 불편을 야기한다. · 대기공간의 환경이 열악하거나 단조롭게 계획되어 이용도가 낮다. · 인적이 드문 상황에서의 범죄 노출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바닥재, 벽 마감재, 창호 등 연속성 있는 색채와 재질을 적용한다. · 목적지에 따른 이동동선을 명확히 제시한다. · 벽면과 바닥의 색상, 재질을 고려하여 통일된 체계로 유지하고 설치되는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마감부위를 안전하고 미려하게 계획한다. · 어린이, 노약자가 적은 힘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한다. · 민원데스크나 안내데스크 같은 안내 시설은 휠체어 사용자나 노인 등 구분 없이 사용가능한 통합형으로 설치한다. · 저시력인의 시지각적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색채 변화 및 패턴 적용을 지양한다. · CCTV, 거울 등의 감시시설을 적절히 설치한다.

배치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 확보

-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바닥 면의 단 차이가 없게 한다.
-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채광 및 인공조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지성과 가독성이 높은 표기방식 사용

- 노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크고 명확한 글씨체 적용, 외국인을 위한 픽토그램 적극 활용하고, 영어 등 다양한 다국어 표기를 해야한다.
- 주출입구에서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목적 공간까지의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설 안내판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안내사인인 다국적 정보표기 및 픽토그램의 사용을 확대시켜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실내 범죄발생 가능성 최소화

- 건축물 내부의 사각지대나 여성전용 이용시설 등의 장소는 분위기를 밝게 디자인하고 안내사인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 범죄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간은 비상벨과 CCTV 등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 건물 내부의 코너에는 반사경 설치를 권장한다.

형태/재료

신체 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 시설물 설치시 다양한 연령대의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형태 및 재료, 설치 방법 등을 달리하거나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내구성 있고 관리, 보수, 교체가 용이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다.
- 바닥마감재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패턴/색채

명확한 위치 파악 및 동선안내

- 벽이나 바닥 마감재의 재질, 색상 등을 총별 또는 영역별로 달리하여 이용자가 건물 내 현 위치를 인지하는데 쉽도록 계획한다.
- 동선안내 정보체계와 색채 등의 활용에 일관성을 유지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없애도록 한다.
- 바닥재의 패턴을 단차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바닥 마감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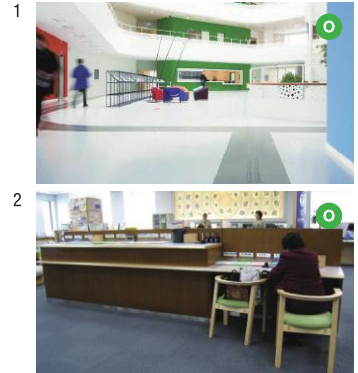


1. 픽토그램을 활용한 안내표지판

유형별 가이드라인

A 공공공간(로비)

- 로비에 설치하는 작업대, 음수대, 공중전화,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누구에게나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계획한다.
- 로비공간이나 보행공간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바닥 면의 단 차이가 없게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부득이 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하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를 고려하여 설치기준에 맞추어 경사면과 핸드레일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
- 공공건축물의 1층 로비 공간에는 자연 채광과 높은 층고 등을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 로비공간은 시민들에게 개방적이고 편안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 로비에 들어서면 한눈에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안내데스크나 시설 종합 안내판을 설치한다.
- 색채코디네이션, 동선 정보안내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동선분리를 권장한다.
- 자동 민원출력기, 순서표 발매기 등의 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버튼이나 동전투입구 등을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 가능한 높이(400mm~1,200mm)에 설치한다.
- 안내데스크 상판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700mm~900mm, 하부공간의 높이는 650mm이상, 길이 450mm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 처음 방문하는 사람일지라도 목적공간에 도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안내정보를 연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출입구마다 눈에 띄게 CCTV를 설치하고 방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권장한다.



1.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 공간 예시
2. 누구나 구분없이 이용가능한 안내데스크 설치

B 이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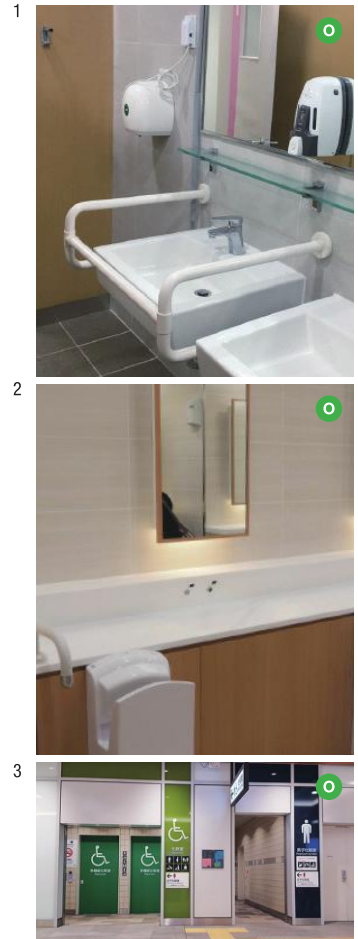
- 벽이나 바닥 마감재의 재질, 색상 등을 층별 또는 영역별로 달리하여 이용자가 건물 내 현 위치를 인지하는데 쉽도록 계획한다.
- 점자블록, 바닥패턴, 손잡이, 벽면의 요철, 음성 또는 음성신호, 소리, 냄새, 빛 등 복수 정보의 제공을 통해 목적지까지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 경사로와 계단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다.
-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디딤판이나 계단 끝부분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부착한다.
- 계단의 각 부분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포장재의 색상·명도·채도·질감 등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 승강로비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 도착여부, 진행방향, 정지 예정층, 현재의 위치 등에 적절한 운행정보 및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 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고려하여 승강기 내 CCTV설치 및 운행 정지시 대응방법을 표기해야 한다.
- 복도에는 기둥이나 벽면돌출, 장식물이나 소화설비기구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도록 계획한다.
- 층별 또는 조닝별로 벽, 천장, 바닥 등의 마감재나 공간 연출을 달리하여 이용자가 시설 내 위치를 쉽게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한다.
- 복도의 유효폭은 유모차 이동이나 휠체어의 방향전환 등을 고려해 1,500mm이상 확보해야 한다.
- 손잡이를 설치할 경우 휠체어사용자 및 노인, 어린이 등이 사용하기 쉽도록 2단 손잡이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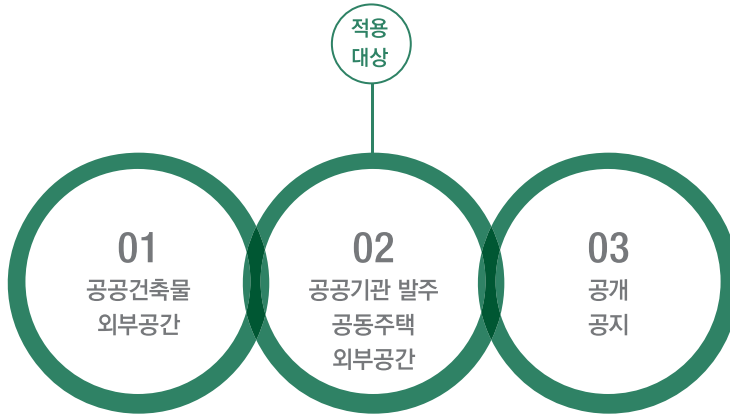
1. 조작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양각형태의 조작버튼
 2. 누구나 사용하기 쉽도록 설계한 엘리베이터 예시

㉔ 위생공간

-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1,500m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녀 구분 안내표지, 화장실 내부를 안내하는 촉지도식 안내표지, 음성유도장치 등을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산부, 유아를 동행한 사람에게 양보를 권하는 안내표지 설치를 권장한다.
- 세면대 이용편의를 위해 수평손잡이를 설치하고 소지품 선반과 가방걸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위급상황을 알리는 안심 비상벨, 영유아 임시의자, 팬티형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에 손잡이와 자동수전 등을 설치한다.
- 세정장치 및 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 누름 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목발사용자 등 보행 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 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650mm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900mm 내외로 설치한다.
- 세면대의 거울은 휠체어 사용자나 어린이와 등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면대의 바로 위부터 설치한다.
- 폭이나 천정고는 가급적 높게 하여 폐쇄감을 없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추고 생리, 위생 이외의 문화적인 욕구까지 충족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며, 타일 등의 경우에는 500mm이하의 줄눈으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1. 신체적 약자를 위해 세면대에 설치된 손잡이
2. 적절한 높이로 설치된 세면대 거울
3. 장애인 화장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 예시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
에서 규정하는 공공건축물의 외부공간과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한다.

B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건축물 외부공간의 공공성이 떨어진다.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 펜스, 담장 등의 설치로 위압감과 배타성을 준다.
- 대형 주차장의 전면 배치로 경관을 훼손한다.
- 획일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단조로우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C

기본 방향

- 공공건축물로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 공공건축물 외부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한다.
-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한다.
- 업무 시간 외에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
- 인접 보행가로와 심리적·시각적·물리적 통합을 추구한다.
-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을 계획하고, 우범화를 방지한다.
- 대형주차장의 전면배치를 지양한다.

배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

- 공공건축물 주변 주요가로에는 안내표지에 방향과 거리를 표시하도록 한다.
- 건축물까지의 접근로에는 눈, 비, 햇빛 가림시설을 설치하여 편안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 보도와 대지 출입구와의 경계부분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을 계획하고, 우범화를 방지한다.
- 음영공간 또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통행량이 적은 건물의 측면이나 뒷면, 주차장, 사각지대 등에는 적절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

공간 활용도 증대

- 대형주차장의 전면배치를 지양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가로와 연계된 녹지공간 등의 조성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 용도가 없이 지나치게 큰 빈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고, 방치된 공간이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 대지가 협소하더라도 주요도로나 보행로에 면하는 대지 외곽부분에는 시민들은 위한 썬지공원, 친수공간 등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가로와 연계되는 계획을 권장한다.

형태

개방성 및 시야확보

- 공간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보안 및 안전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담장이나 펜스를 설치하는 경우 그 형태와 크기가 위압적이지 않게 한다.
- 출입문 근처에는 후방확인이 가능하도록 미러시트, 반사재질 등을 설치한다.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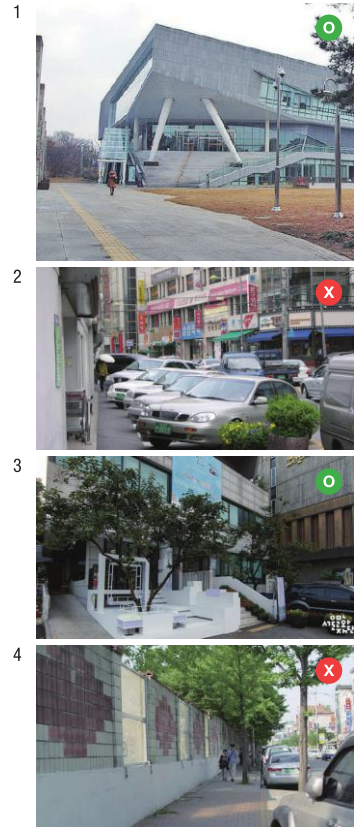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재료 사용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지속적인 관리를 고려하여 내구성이 높고 유지보수가 쉬운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패턴/색채

영역성 확보를 위한 패턴 및 색채사용

- 보행로와 차량 진출입 동선을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보행로를 높이거나 마감재, 패턴을 구분하여 공간을 구분하도록 한다.
- 인접 보행가로와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 사용으로 보행가로의와 심리적·시각적·물리적 통합을 추구한다.



1. 단차가 없는 평탄한 보행접근로
2. 전면에 배치된 주차장
3.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만든 휴식공간
4. 폐쇄적인 이미지의 담장

식재

적절한 식중배치를 통한 건물녹화

- 건축물 벽면의 입면 녹화를 고려한다.
- 가시나 독성이 있는 식물은 식재하지 않는다.

시각차폐 방지

- 수목이 건물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물과 나뭇가지의 거리를 1,500mm 이상 이격하여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건물의 창문 앞에는 개방성을 위해 키가 낮은 관목을 식재하고 순차적으로 교목을 식재하되, 교목은 일정 높이 이상의 지하고를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유형별 가이드라인

A 복지 관련 건축물 외부공간

- 보행약자가 외부공간의 주요 부분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를 조절한다.
-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채계획을 수립하며, 특히 일조 조건을 향상시킨다.
- 커뮤니티 활동 장소를 겸하는 공간계획을 권장한다.

B 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 외부공간

- 운동장 위주의 획일적인 공간계획은 지양한다.
- 담장의 개방과 녹지 및 휴게 공간의 확보를 권장한다.
- 학생들의 정서와 발달 단계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 계절감을 주는 식재계획과 적절한 해설 시설을 통한 교육적 기능의 향상을 권장한다.
-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가꿀 수 있는 녹지 공간의 도입을 권장한다.
- 시각적 차폐로 우범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 교육시설 주변에는 공공기관임을 나타내는 표식 및 사인을 다수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학교의 펜스는 반드시 투시형으로 설치하며, 세로살을 선택하여 외부인의 침입을 사전에 예방한다.



1. 건축물 벽면녹화 적용 예시
2. 높이차이가 전혀없는 보행로
3. 시각적 개방성이 확보된 담장

㉞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외부공간

-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공연·집회·전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가변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 우천시 행사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합 계획한다.
- 하절기 그늘과 동절기 일조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보안등, CCTV 및 비상벨, AED 등의 설치를 통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㉟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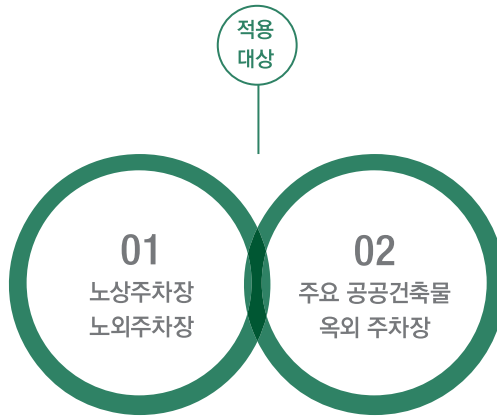
- 기존의 주요 보행, 녹지, 수체계 축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단지가 외부와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 기존의 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존한다.
- 주요 외부공간들이 최소한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시각 통로, 바람길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통로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밖에서 단지 안 외부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담장 및 펜스의 설치는 지양한다.
- 지상주차장을 최소화하고 주동 저층부의 공공성을 높인다.
- 공동주택단지 내 중심부는 커뮤니티 활동의 구심점이 되도록 특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안전과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을 계획하며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식물 생육에 적합한 토양 환경을 확보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동식물 서식 공간 및 친수공간의 조성과 빗물 재활용 방안 수립을 권장한다.
- 휴게공간 및 운동공간의 경계부에는 자연감시를 위하여 1,000mm 이하 수종을 식재하고, 교목의 경우 무성한 수종보다는 보행공간 및 주동 내부에서 감시가 용이한 수종을 식재한다.

E 공개공지

- 주차장으로의 전용을 지양한다.
- 주요 보행가로에 면하는 소공원 및 소광장 형태로 설치하되, 다른 인접 공공공간이나 타 단지 외부공간과의 연계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중정형 공개공지로 조성하는 경우 보행가로에서 접근하는 통로를 명확히 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 최소한의 일조량을 확보하고 휴게시설을 제공하여 이용도를 높인다.
- 보행가로와 동일 레벨로 인접하는 경우 가로수와 동일한 수준의 사용을 권장한다.
- 기타 사항은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른다.
- 보행가로 및 차도에서의 시선을 가로막는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 야간에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개방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보행자의 연속적인 보행환경 유지, 인접지의 녹지·공지와 연계성, 일조확보를 고려해서 계획해야 한다.
- 보행에 방해가 안되는 곳에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
- 담장 설치를 지양하고 겨울철의 미관을 고려하여 상록수를 적정 비율로 식재하고 경관에 어울리는 포장재를 설치해야 한다.
- 대형목 식재나 수경시설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일 것을 권장한다.
- 유동인구가 많은 대규모 점포나 지하철역 인접지는 특성에 맞는 이벤트 (문화행사, 판촉활동) 광장·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개공지내 시설물은 주변보도 및 도로와 바닥 높이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 안내판은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 출입구에서 잘보이는 곳에 '위치, 면적, 편의시설, 이용시간' 등의 내용을 담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 파고라는 보행자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지붕이 있는 구조로 반드시 벤치와 함께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벤치는 목재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차량의 진출입 차단을 위해 적절한 장소에 그늘을 제공하는 수목과 함께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분수대는 노즐이 보이지 않게 설치해야 하며, 주출입구 및 보행량이 많은 곳에서의 설치는 지양한다.
- 공간의 야간이용 활성화 및 우범화 예방을 위해 적절한 위치에 조명등이나 경관등을 설치해야 한다.
- 바닥 마감재는 미끄럽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패턴 및 색상을 사용한다.



1. 파행적인 공개공지의 예시
 2.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공개공지
 3. 개방성이 확보된 공개공지



B	C
현황 및 문제점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구역과 보행구역의 구분이 미흡하다. ·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이 부족하다. · 구역별 안내표지가 미흡하다. · 녹지 면적이 부족하고 불투수층의 면적이 크다. · 아스팔트 포장의 전면적인 노출로 시각적 불쾌감을 일으키고 여름철 복사열을 방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약자를 배려하여 차량 접근로와 주 보행통로는 연속성을 갖도록 한다. · 차량 주 출입구가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 노외주차장의 경계부 및 주차장 내의 일부를 녹화하여 시각적 차폐도와 쾌적성 증가, 복사열 저감 및 투수 면적 확보에 기여한다.

지형

보행공간 개방감 확보

- 시각적 차폐를 위한 경계 부위 마운딩을 권장한다.
- 자동차가 보행통로를 잠식하지 않도록 보행통로와 주차공간 간에 레벨 차이를 두도록 해야 한다.

자연감시 기능 확보

- 주변 건물과 보행로에서 자연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담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위로부터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배치

통합 시설물 설치

- 주차장 내부의 안내시설, 요금정산 관련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그 통로에 적절한 조명, 그늘 식재, 보안카메라 등을 통합 설치하여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보행로 주변 경관개선

- 인접 보행가로와 주차장의 경계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울타리나 식재대의 설치, 보행가로변 휴게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자전거 이용을 증대시키고 보행가로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 및 오토바이 주차장의 별도 설치를 권장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 필요에 따라 후방확인을 위한 거울, 음성·음향 및 시각정보에 의해 자동차의 출고를 알려주는 경보장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
- 주차장의 출입구, 차로, 차량에 대한 상시 관찰이 가능하게 진출입로를 단일화하고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통제시스템과 함께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적절한 조도 확보

- 옥외 주차장의 조명은 시간대에 의한 이용 상황 및 과잉조명에 유의하며, 야간에 사람의 행동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 조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 별도 설치 된 오토바이 주차장
2. 인접보행가로 경계부 경관개선을 위한 식재울타리 설치

재료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 불투수 포장재료 사용 시 녹지대 등을 도입하여 투수 면적을 확보한다.

명확한 영역구분

- 영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차량 이동통로, 주차공간 및 보행통로 재료의 구분을 권장한다.
- 주차선 표시 방법은 페인트 도장 외에 차도용 블록재 사용 등으로 다양화 할 것을 권장한다.

패턴 및 색채

인지성 강화

- 대규모 주차장의 경우 주차공간을 소단위로 분절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한 패턴의 도입을 권장한다.
- 장애인주차 등 노면표지를 명확히 한다.
- 차량 이동통로, 주차공간, 보행 영역의 패턴을 구분하여 인지성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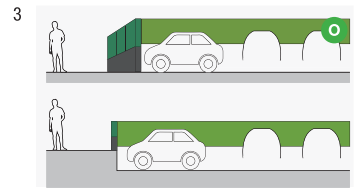
식재

녹지확보를 통한 경관형성

- 충분한 녹지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설물과 결합할 수 있는 덩굴성 식물을 권장한다.
- 표면 배수의 집수 및 비점 오염 물질의 저감을 위한 주차공간 사이 자연 배수로 설치를 권장한다.
- 대규모 옥외주차장에는 수관폭이 넓은 수종을 이용한 그늘 식재를 권장한다.

시야확보를 위한 식재배치

- 주차공간 주변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목은 피하고 지하고 2,100mm 이상의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를 확보한다.



1. 거대한 불투수포장면
2. 잔디 블록을 사용한 주차장
3. 보행경관을 고려하여 식재를 울타리로 이용한 주차장 계획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및 목표	92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7원칙	93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101
규정항목 및 관련지침	103
공공시설물 세부 가이드라인	106

Part B

Public Facilities Guideline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와 보행자를 우선시한 통합적 시설물 설치·관리기준을 확립하고 다양한 계층의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실현하고자 공공시설물의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7원칙'을 제시한다.

2020 서울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의 목표



공공시설물의 목표가 전반적으로 반영되도록 2020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디자인 원칙 및 각 세부지침을 수립하도록 한다.

기능 우선

기능성을 우선으로 하고 장식적 디자인은 지양
이용중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
유니버설(universal)디자인 및 장애 없는(barrier-free) 디자인을 적용

환경과 조화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형태, 색채 및 재료를 사용
서울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구현하는 공공시설물을 디자인

1.



서울특별시의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2.



도시경관과 맥락성을 갖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3.



지속가능함을 위해 친환경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4.



시설물은 시민의 보행과 인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5.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6.



시설물의 색채는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서울색 활용을 권장한다

7.



현란하고 장식적인 형태는 지양하고
안전과 기능을 우선으로 디자인한다

1

서울특별시의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
권장

- 단순성 및 결합성을 기반으로한 디자인
- 서울특별시 정체성을 제고시키는 공간에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의 적용
- <서울색>과 <서울서체>의 활용



✕
지양

- 시설물마다 각기 다른 스타일
- 과도하게 지역 상징성을 강조하는 심볼이나 디자인
- 지역별, 장소별로 동일 시설물 디자인의 중복 개발



2

도시경관과 맥락성을 갖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권장

- 시각적으로 개방성 있는 디자인 적용
- 주변 장소와 어울리는 마감재를 선택하여 사용
- 적절한 스케일의 규모와 형태로 디자인
- 환경을 해치지 않는 색과 조도의 조명 계획



×
지양

- 주변 시야를 차단하는 과도한 형태의 디자인
- 위압감과 불쾌감을 주는 시설물의 배치
- 통일되지 않은 디자인의 시설물 혼용



3

지속가능함을 위해 친환경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
권장

-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친환경 재료의 사용
- 적절한 수종을 선택하여 시설물 녹화 및 녹시율 향상
- 변형, 부식,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 성능 유지 및 관리, 보수가 용이한 설치 방식 적용



×
지양

- 도시경관을 해치는 과도한 인공재료 사용 및 노출
- 시간에 따라 형태 및 색상이 변형되는 재료
- 수명시기가 짧고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능



4

시설물은 시민의 보행과 인지에 지장을 주지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권장

-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크기 및 형태로 시설물 외형 최적화
- 가로등주 + 휴지통, 신호등주 + 안내사인 등 연계 가능한 시설물 간 통합
- 시설물의 도로점유면적을 최소화하며, 보행 공간을 확대
-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을 적용



×
지양

- 색채 및 형태적으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물 디자인
-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여 보행장애를 유발하는 시설물 배치
- 인지하지 어려운 크기나 형태로 설치하거나 다른 구조물·식재에 가려짐



5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권장

-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 사회약자, 외국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 신체적 특성 및 이용 행태에 맞는 형태와 기능으로 안전한 디자인
- 범죄를 예방하고 위급시 빠르게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



×
지양

- 의미와 용도가 불분명한 시설물
- 지나치게 많은 기능과 정보를 담은 시설물
- 조작이 어렵고 복잡하여 즉각적인 사용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 물리적으로 큰 힘이 들거나 신체에 무리가 가는 이용방식



6

시설물의 색채는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서울색 활용을 권장한다.

○
권장

- 주변환경에 쉽게 조화시킬 수 있는 저명도, 저채도 색의 활용
-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자연 재료 사용시 본연의 색을 존중하여 활용
- 주변 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에 조화되는 배색의 서울색 활용



×
지양

- 고채도, 고명도 색을 혼용하여 다양한 색채 표현
- 홍보효과를 목적으로 강조색을 남용
- 목재 등 자연 재료에 유색 페인트 도장



7

현란하고 장식적인 형태는 지양하고 안전과 기능을 우선으로 디자인한다

○
권장

- 장식적 요소가 최소화되고 간결한 디자인
-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물로 인한 변형·오염이 적은 디자인
-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형태와 설치
- 위험상황을 인지시키고 적절한 접근통제 적용



×
지양

- 구 마크(상징)등의 형상화 및 그래픽을 과도하게 적용
-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로등, 안전펜스 등에 장식적인 형태를 부가
- 안전성을 위해 위압감이 드는 형태와 소재 사용
- 비슷한 기능의 시설물을 중복적으로 설치



-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의 물리적 기능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정보전달기능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다.
- 또한 공공시설물의 공간상 배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다.
- 2017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Ver 3.0을 기초로하여, 202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한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을 포함하였다.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공공시설물)	대분류	소분류	코드	시설물요소	내용검토	비고	페이지수
도로	도로(부속) 시설물	B1-1	교량(철교 포함)			심의대상	p 108
		B1-2	고가차도(철도위 포함)			심의대상	p 110
		B1-3	입체교차	신규개발	심의대상	p 112	
		B1-4	도로변 석축 및 옹벽		심의대상	p 114	
		B1-5	방음벽		심의대상	p 116	
		B1-6	방호울타리	신규개발	심의대상	p 118	
		B1-7	중앙분리대	신규개발	심의대상	p 120	
		B1-8	낙석방지망	신규개발	심의대상	p 122	
		B1-9	육교		심의대상	p 124	
		B1-10	가로등		심의대상	p 126	
		B1-11	맨홀		심의대상	p 128	
		B1-12	트렌치		심의대상	p 130	
		B1-13	제설시설		심의대상	p 132	
교통관련 시설물		B2-1	대중교통 승차대			심의대상	p 134
		B2-2	자전거 보관대			심의대상	p 136
		B2-3	횡단보도엘터	신규개발	심의대상	p 138	
		B2-4	신호등(주)		심의대상	p 139	
보행안전시설물		B3-1	보도블록			심의대상	p 141
		B3-2	점자블록			심의대상	p 143
		B3-3	블라드		심의대상	p 144	
		B3-4	보호펜스		심의대상	p 146	
관리 시설물		B4-1	지상변압기				p 148
		B4-2	교통신호제어기				p 150
		B4-3	전기차 충전소	신규개발	심의대상	p 151	
도시철도 시설물		B5-1	지하철출입구,캐노피			심의대상	p 153
		B5-2	지하철환기구			심의대상	p 154
		B5-3	지상노출엘리베이터		심의대상	p 156	
하천		B6-1	육갑문	신규개발	심의대상	p 159	
		B6-2	하천제외지 구조물(옹벽,석축)	신규개발	심의대상	p 161	

대분류		코드	시설물요소	내용검토	비고	페이지수
지원	이동형 부스	B7-1	관광안내소(부스형)		심의대상	p 164
		B7-2	공중전화부스		심의대상	p 166
		B7-3	가로판매대		심의대상	p 168
	도로점용 허가 시설물	B8-1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신규개발	심의대상	p 170
	휴게 시설물	B9-1	벤치		심의대상	p 172
		B9-2	그늘막(파고라)			p 174
	조명·보안 시설물	B10-1	보안등			p 176
		B10-2	공원등			p 178
		B10-3	CCTV(CCTV지주)		심의대상	p 180
	위생 시설물	B11-1	휴지통		심의대상	p 181
		B11-2	공중화장실		심의대상	p 183
		B11-3	음수대			p 185
녹지·수경	녹지 시설물	B12-1	가로수 화분대		심의대상	p 187
		B12-2	가로수 보호덮개			p 188
	수경 시설물	B13-1	분수대, 벽천	신규개발	심의대상	p 190

가이드라인
규정 항목

지형	공간의 거시적·미시적 레벨과 땅의 형상, 경사도 및 평탄도 등을 규정한다.
배치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및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대상들의 공공공간 내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형태	공간의 구성과 외관 형성의 기준을 규정한다
재료	공공공간을 구성하는 무기물 재료의 속성을 규정한다.
패턴 및 색채	공공공간의 표면을 규정하는 시각 요소의 속성을 규정한다.
식재	공공공간을 구성하는 식물 재료와 식재 방법을 규정한다.

가이드라인
규정 항목

서울색, 서울서체	사설안내표지판 표준형디자인 매뉴얼Ver.3.0 (2015. 서울특별시)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2011 ~ 2020. 서울특별시)	횡단보도 쉼터의 설치 및 운영 (2018.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2008 ~ 201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그늘막 가이드라인 (2018.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 I 가로판매대 (2007.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2019.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iv 지하철 출입구캐노피 (20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2)
서울특별시내버스 승차대(가로변) 표준형 디자인 (2011. 서울특별시)	서울형 CCTV 디자인 지침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티투어버스 승차대 정보표시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1. 서울특별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 낙석방지시설편 (2008. 국토교통부)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VI_ 냉각탑 및 환기구 가림벽 (2012. 서울특별시)	도로경관설계안내서 (2012. 국토해양부)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_ 소방안전시설물 및 소방안전정보 디자인 (2018. 서울특별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 차량방호안전시설편 (2014. 국토교통부)
옹벽 및 방음벽 Reference Book (2008. 서울특별시)	입체교차로 설계지침 (2015.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2013. 서울특별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 제 2편 조명시설편 (2016. 국토교통부)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Ver 1.0 (2013. 서울특별시)	관광안내소 매뉴얼 (2015.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하천경관디자인 매뉴얼 (2016. 한국수자원공사)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2018.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보도 턱 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 개선계획 (2015.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9.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020.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LED조명 주요부품 표준화 지침 (2015.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지침 (2020. 환경부)
	하천설계기준 (2020. 건설교통부)
	보행자차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2)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공간 요소별
관련법규사항 및
서울시 가이드라인, 매뉴얼

대분류	시설물 요소	관련법규사항 및 매뉴얼	서울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도로	교량 (철교포함)	도로경관설계안내서 (2012.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고가차도 (철도위 포함)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입체교차	입체교차로 설계지침 (2015. 국토교통부)	
	도로변 석축 및 옹벽	옹벽 및 방음벽 Reference Book (2008. 서울특별시)	
	방음벽	옹벽 및 방음벽 Reference Book (2008. 서울특별시)	
	방호울다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 차량방호안전시설편 (2014. 국토교통부)	
	중앙분리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 차량방호안전시설편 (2014. 국토교통부)	
	낙석방지망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 낙석방지시설편 (2008. 국토교통부)	
	육교	입체교차로 설계지침 (2015. 국토교통부)	
	가로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 제 2편 조영시설편 (2016. 국토교통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가로등
	맨홀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Ver 1.0 (2013. 서울특별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맨홀
	트렌치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2013. 서울특별시)	
	제설시설		
	대중교통		서울특별시내버스 승차대(가로변)
	승차대		표준형 디자인 (2011. 서울특별시)
	자전거보관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자전거 보관대
	횡단보도 헬터	횡단보도 헬터의 설치 및 운영 (201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그늘막 가이드라인 (2018. 서울특별시)	
	신호등(주)		시민체감 스마트폴 기본모델 (서울특별시)
	보도블록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2018. 건설교통부)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Ver 1.0 (201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보도 턱 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 개선계획 (2015. 서울특별시)	
	점자블록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Ver 1.0 (2013.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020. 보건복지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서울특별시 보도 턱 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 개선계획 (2015. 서울특별시)	
블라드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블라드	

대분류	시설물 요소	관련법규사항 및 매뉴얼	서울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도로	보호펜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차량방호안전시설편 (2014. 국토교통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보호펜스
	지상변압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지상변압기
	교통신호제어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교통신호제어기
	전기차 충전소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 (2020. 환경부)	
	지하철 출입구.캐노피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iv_지하철 출입구캐노피 (2010. 서울특별시)
	지하철 환기구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9. 국토교통부)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vi_냉각탑 및 환기구 가림벽 (2012. 서울특별시)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020. 보건복지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 2조1항 (별표 1)
하천	육갑문 하천제외지 구조물 (옹벽, 석축)	하천설계기준 (2020. 건설교통부) 하천경관디자인 매뉴얼 (2016. 한국수자원공사)	
	관광안내소 (부스형)	관광안내소 매뉴얼 (2015. 문화체육관광부) 시설안내표지판 표준형디자인 매뉴얼Ver.3.0 (201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시터투어버스 승차대 특화디자인 (2011. 서울특별시)
지원	공중전화부스 가로판매대		KT 표준형 공중전화부스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 I_가로판매대 (2007. 서울특별시)
	소화전·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_소방안전시설물 및 소방안전정보 디자인 (2018. 서울특별시)
	벤치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벤치
	그늘막(파고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그늘막
	보안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 2편 조명시설편 (2016.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LED조명 주요부품 표준화 지침 (2015. 서울특별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보안등
	공원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 2편 조명시설편 (2016.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LED조명 주요부품 표준화 지침 (2015. 서울특별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공원등
	CCTV (CCTV지주)	서울형 CCTV 디자인 지침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CCTV(지주)
	휴지통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휴지통
	공중화장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020. 보건복지부)	
	음수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음수대
녹지/수경	가로수 화분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2)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가로수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2)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가로수보호덮개
	분수대,벽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2019.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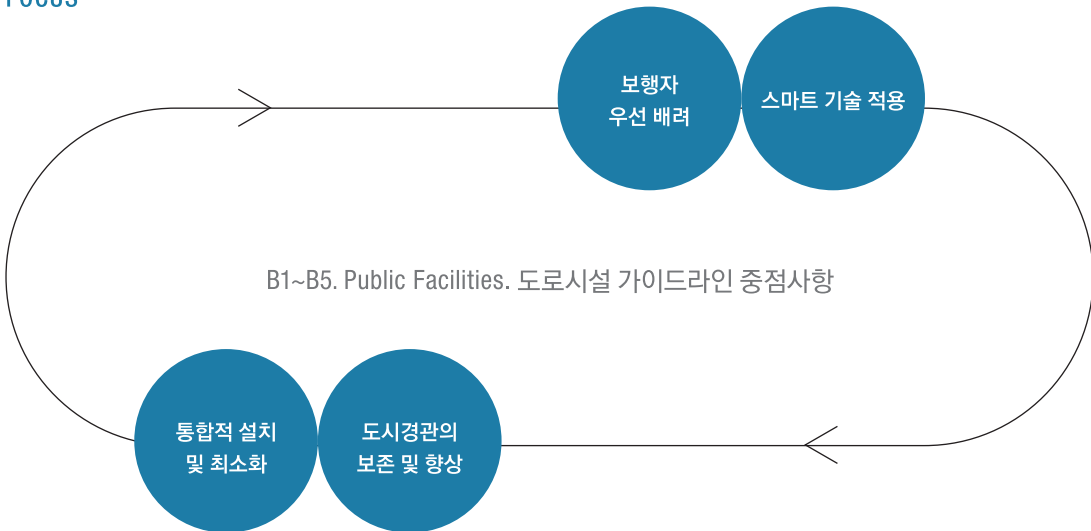
B1~B5 | 도로시설 가이드라인

도로 시설물은 도로와 그 주변부에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교통체계 유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공공시설물 중에서 가장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일상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대부분의 시설물이 해당되며 시설물간의 연관성이 높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도시의 경관에도 주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디자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양화되는 도로시설물이 보행환경과 가로경관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서울의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로 질서의 확립,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A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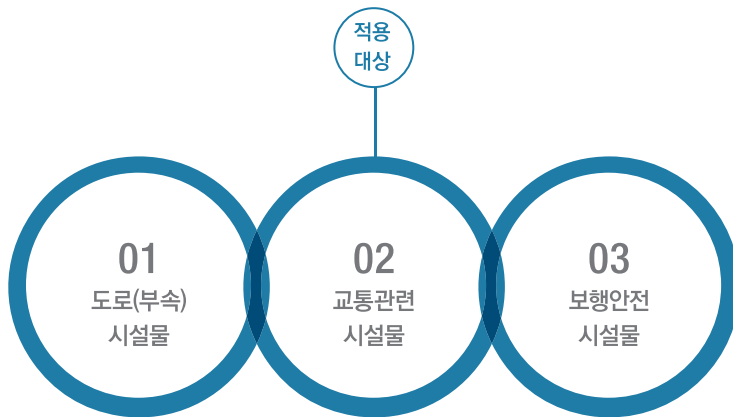


보행자 우선 배려
스마트 기술 적용
통합적 설치 및 최소화

도시경관의 보존 및 향상

보행자(보행약자)의 편의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꾀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도입에 대응하여 기능 및 유지관리성을 향상시킨다.
도로의 공간적 구성 및 시설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시설물만 통합적으로 설치하고 시설물의 점유면적과 양적 확대는 지양한다.

사회기반 시설 등 시설물의 외관이 주변맥락에 어울리도록 규모 및 형태, 재료, 색채를 선택하여 계획한다.



- | | | |
|-------------------|---------------|-----------|
| B1-1 교량(철교 포함) | B2-1 대중교통 승차대 | B3-1 보도블록 |
| B1-2 고가차도(철도위 포함) | B2-2 자전거 보관대 | B3-2 점자블록 |
| B1-3 입체교차 | B2-3 횡단보도엘터 | B3-3 볼라드 |
| B1-4 도로변 석축 및 옹벽 | B2-4 신호등(주) | B3-4 보호펜스 |
| B1-5 방음벽 | | |
| B1-6 방호울타리 | | |
| B1-7 중앙분리대 | | |
| B1-8 낙석방지망 | | |
| B1-9 육교 | | |
| B1-10 가로등 | | |
| B1-11 맨홀 | | |
| B1-12 트렌치 | | |
| B1-13 제설시설 | | |



- | | |
|--------------|------------------|
| B4-1 지상변압기 | B5-1 지하철출입구, 캐노피 |
| B4-2 교통신호제어기 | B5-2 지하철환기구 |
| B4-3 전기차 충전소 | B5-3 지상노출엘리베이터 |

B1-1 교량(철교 포함)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장식적 요소가 지나치게 많다.
- 다른 시설물과 연결되는 부분의 심미성이 떨어진다.
- 유지관리적 측면보다 외형적 측면에만 집중해 오염 및 파손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

기본방향

기능을 우선적으로 | 상징적 표현은 최소한으로 | 주변과 조화롭게

시야를 차폐하는 대형시설물로서, 기능에 집중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주변미관을 해치지 않고 최대한 개방적이도록 조성

설치

-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 인접한 주변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고,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교량들의 이미지가 상호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가로등 또는 기타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접합 부위를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형태

- 설치 지역 특성에 맞게 기능성을 우선시 하여 디자인한다.
- 교량 상부에 기능과 무관한 장식 설치를 지양한다.
단, 상징이 필요한 교량에는 장식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입지 경관에 조화되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해야 한다.
- 교량의 교명주는 설치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부피와 형태로 설치한다.



Before



After

주변미관을 해치지 않고, 기능에 집중한 간결한 디자인



1. 간결한 구조의 교량

재료

- 고풍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권장한다.

색채

- 부가적 시설물은 최대한 반사도를 낮추고 어두운 후퇴색을 사용해야 한다.
- 관습적인 녹색 또는 파란색 계열의 방수제를 지양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한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색채를 사용한다.
- 위압감 및 단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한 표면에서는 인공적인 도색보다 콘크리트 자체의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기타

- 교량에 속한 시설물(가로등, 펜스, 보도 등)은 대상별 세부 가이드라인에 준한다.
- 주변 도로, 보행로, 산책로 등과 재료, 색채, 형태가 연계를 이루도록 한다.
- 진입부에는 주변 보도와 연속성 있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과도한 경관조명은 제한하며, 기타 경관조명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야간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관습적인 녹색 방수제 사용
2. 결합부위의 심미성 부족 및 무분별한 색채 사용

B1-2 고가차도(철도위 포함)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색채가 사용된다.
- 구조물 하부의 규정된 활용계획 부재로 불법적재 공간으로 사용되며, 도시미관을 훼손한다.
- 경관조명이 지나치게 화려하게 연출되어 야간도시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본방향

기능을 우선적으로 | 주변과 조화롭게

시야를 차폐하는 대형시설물로서, 기능에 집중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고 최대한 개방적·이동로 조성

형태

-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 인접한 주변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고,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교량들의 이미지가 상호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가로등 또는 기타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접합 부위를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색채

- 고채도, 고명도의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한다.
- 콘크리트 재료를 자연석 등의 유사 재료처럼 보이도록 모방한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재료가 가진 고유 색채 및 이미지를 이용한다.

그래픽요소

- 상업광고 부착은 지양한다.
- 그래픽의 사용을 지양한다.



Before



After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도색 및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



1. 주변가로와 조화되지 않는 교량
2.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의 고가차도 광고물

기타

- 고가차도에 속한 시설물(가로등, 펜스 등)은 대상별 세부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 움직임이 있는 조명은 금지토록 하고, 도시기반시설물 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도의 조명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조명계획은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2015.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화단, 자전거보관대, 보행섬 등의 조성을 통한 고가차도 하부공간 활용을 권장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1.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을 통한
고가차도 하부공간의활용 예시

B1-3 입체교차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디자인이나 설치 기준이 미비하여 주변경관과 통합적인 이미지 부재
- 거더부분의 색채가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못하고 이질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기본방향

기능을 우선적으로 | 주변과 조화롭게

교통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하며 입체교차로가 설치되었을 때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화로운 디자인을 함

설치

- 교통량이 많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교차로 부근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입체교차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주변 가로의 시설물과 일관성 있게 디자인하여 공간의 조화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형태

- 입체교차로 자체의 형태를 강조하기 보다는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구성 요소로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입체교차로의 규모, 형식에 따라 시인성, 안전성, 아름다움을 확보해야 하며 경관성을 고려하여 주행자들에게 랜드마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Before



After

주변공간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도색과 간결한 디자인



1.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입체교차로
2.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입체교차로 디자인

재료

- 입체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진동에 대비한 아스팔트 포장을 적용한다.
- 사용되는 재료의 표면 이미지는 반사도가 높은 유광택 보다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반광택 또는 무광택을 사용한다. 특히 고광택 스테인리스 스틸의 사용을 지양한다.
- 사용하는 재료는 미관, 안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 설치되는 가로등이나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인접한 가로공간의 가로등이나 시설물의 색채를 기준으로 디자인하여 공간의 조화성과 연속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입체교차로의 거더부분의 색채 사용시 배경이 되는 주변의 환경색채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원색 또는 고채의 사용을 지양한다.

그래픽요소

- 교각, 거더 등에는 도시미관 및 유지, 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슈퍼그래픽, 장식용 조형물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입체교차로에는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중심의 야간조명을 제외하고 유채색의 동적인 야간경관 연출을 지양한다.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광고물의 부착은 지양한다.

기타

- 경관적 고려와 더불어 환경적으로도 생태적 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입체교차로 상부에는 보행환경과 경관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원 또는 녹지조성을 권장한다.



1. 입체교차로 주변 녹지조성

B1-4 도로변 석축 및 옹벽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치게 장식적인 벽화 및 그래픽의 남용으로 도시경관을 혼잡하게 한다.
- 불필요한 구조물과 조명이 설치되어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 자연 재료를 조잡하게 모방한 패턴 남용으로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기본방향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 친환경적으로 | 옹벽의 목적이 명확하게

인공적으로 쌓아올린 단순한 벽에서 미관성, 특수성, 친환경성 등을 목적에 따라 적절히 적용함

설치

- 절개지 또는 지반에 고저차가 있는 곳에선 옹벽 설치를 지양한다.
- 높이 3000mm 이하의 옹벽 설치시, 그 전면의 폭 1000mm 이상의 화단을 설치하고 높이 3000mm 이상의 나무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형태

- 기능과 무관한 구조물, 상업광고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 주행로, 옹벽, 입출구가 일체감을 주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옹벽의 높이는 사면 안전 확보 범위에서 최소화한다.
- 패턴이 인지되지 않도록 패턴 단위의 크기를 조절할 것을 권장한다.
- 옹벽의 높이가 3,000mm를 초과하면 3단 이상의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 옹벽의 높이 5,000mm마다 가능한 경우엔 폭 1,000m 이상의 화단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Before



After

녹화작업을 통한 친환경성 강화



1. 옹벽 앞 화단과 나무 식재
2. 패턴이 인식되지 않는 옹벽

재료

- 벽면 녹화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한 마감처리를 권장한다.
- 입구 입면과 연속성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그래픽요소

-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벽화 및 그래픽의 남용을 지양한다.
- 불필요한 장식과 과장된 패턴 적용은 지양한다.
- 구조적, 기능적으로 불필요한 벽화 및 그래픽의 남용을 지양한다.
- 옹벽의 면적이 300m²를 초과하면 최소 두가지 이상의 재료나 패턴을 조합하여 마감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

- 예술공간화 등의 목적으로 특수한 옹벽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동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기타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 옹벽 세부사항은 <옹벽 및 방음벽 Reference Book> (2008.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일반 옹벽(위)과 벽면을 녹화한 옹벽 (아래) 비교
2. 복잡한 그래픽으로 혼잡스러운 옹벽의 예시

B1-5 방음벽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획일적인 기성품 사용으로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판상 구조로 경관을 가로막는다.
- 불필요한 장식적 구조나 패턴이 남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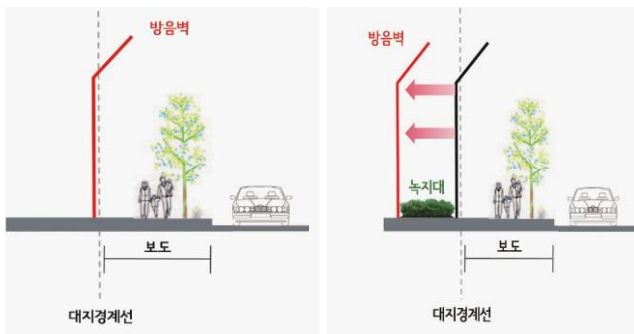
기본방향

개방적이게 | 시각적으로 안정감있게

개방감있는 투명재료를 사용하고, 장식을 최소화하여
시각적·청각적으로 모두 안정감을 유도

설치

- 시야를 차단하는 방음벽 설치시 지양한다.
-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디자인 한다.
- 가로에 면하는 학교, 공동주택 등의 경우 가능한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고 녹지대나 화단을 조성하도록 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한다.



2



Before



After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도색 및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



1. 시야를 차단하는 방음벽
2. 방음벽 설치시 녹지대 형성을 위한 대지경계선에서 이격

형태

- 수직벽 형태를 기본형으로 한다.
- 상부가 차도 방향으로 경사지거나 곡면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다.
- 높이 차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시각적 안정감이 확보되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경사도로에는 지형의 경사도와 동일한 경사각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 곡선도로에는 상부에 경사 또는 곡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방음벽의 높이는 기초옹벽을 포함하여 6000mm 이하로 한다.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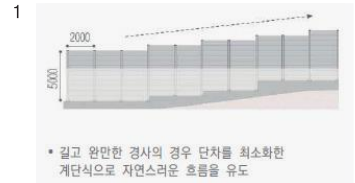
-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는 햇빛에 의한 반사가 적어야 하며, 부식되거나 동결융해 등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 조망, 일조, 채광 등을 고려하여 투명한 재료의 방음벽 설치를 권장한다.
- 투명한 방음판의 경우 오염물질에 의해 투명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친수코팅, 광촉매 코팅 등을 통해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여러 재료의 불필요한 혼용은 지양한다.

그래픽요소

- 불필요한 장식과 과장된 패턴 적용은 지양한다.
-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그래픽은 패턴을 이용하거나 자연물을 이용할 경우 단색에 투명도를 주어 처리한다.
- 포인트 색채를 적용할 때는 수직, 수평 중 한 방향으로의 변화 및 연속성을 지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

- 야간조명 또는 식물과의 연계를 권장한다.
- 방음벽에 가로등, 비상 안내표지판 등을 결합한 통합 시설물을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방음벽의 설치보다, 가능한 방음림 조성을 권장한다.
- 방음벽 세부사항은 <옹벽 및 방음벽 Reference Book> (2008.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사도로 방음벽 설치 방법
2. 투명 재료 방음벽 설치의 예시
3. 불필요한 장식이 설치된 예시
4. 방음림 조성 예시

B1-6 방호울타리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획일적인 기성품 사용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
-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않은 색채·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기본방향

기능을 우선으로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장식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위한 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디자인

설치

- 도로상 장애물로 사고발생시 탑승자 및 시설물의 파괴가 예상되는 공간에 설치한다.
- 잦은 안개 발생으로 시야확보가 어렵거나 결빙 빈도가 높아 미끄럼 등이 있어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할 위험성이 있는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분리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리대 중앙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설치한다.
- 방호울타리의 길이를 너무 짧게 하는 경우엔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완전한 수행을 기대할 수가 없기에 최소 설치 길이는 100,000mm를 권장하나, 설치 장소 여건상 길이를 줄여야하는 경우라도 최소 60,000mm를 권장한다.
- 방호울타리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2014.국토교통부) 규정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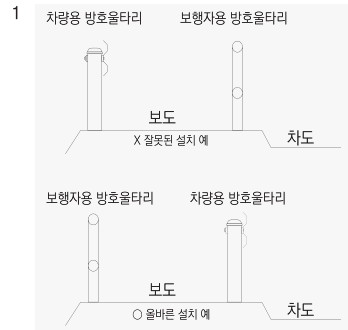


Before



After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디자인



1. 방호울타리 설치방법

형태

- 방호 울타리의 형태는 도로, 교통조건, 미관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이 둘 이상이고 해당 구간들이 가까이 있는 경우 형식이나 종별은 동일한 것으로 설치한다.
- 방호 울타리의 높이는 1,200mm를 기준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각적 장애감이 저감되도록 방호울타리의 과도한 높이는 지양한다.
- 가변성 있는 형태보다 고정형태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재료

- 방호 울타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방호 울타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색채

- 방호 울타리의 색채는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흰색 및 회색을 원칙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 주변경관과의 조화 및 유도를 위해 다른 색을 사용 할 수 있으나 현란한 원색의 사용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각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기타

- 방호 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일상 점검과 보수를 실시해 사고시 기능을 충분히 하도록 한다.
- 자연 환경과의 조화 고려, 녹지확보를 통해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수목을 식재한다.



1. 내구성이 약한 재료의 방호울타리
2.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울타리 색상
3. 과도하게 현란한 원색의 사용

B1-7 중앙분리대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획일적인 기성품 사용으로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않은 색채·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기본방향

시야를 방해하지 않게 | 차단기능을 확실하게

주행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수행을 우선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

설치

-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위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경사면 설치시 시설물의 기둥은 반드시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한다.
- 세부 설치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2014. 국토교통부) 규정에 준한다.

형태

- 중앙분리대가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구간에서는
단순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시야를 철폐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보다 높은 높이의 분리대 및
식재는 지양한다.
- 약 1,000mm 정도의 일정한 높이를 확보해 분리 기능을
명확히 할 것을 권장한다.

재료

- 유지·관리 및 보수를 고려해 외부의 충격에 강한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고풍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Before



After

차도분리의 기능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디자인



1. 과도한 식재배치로 인한 시야차폐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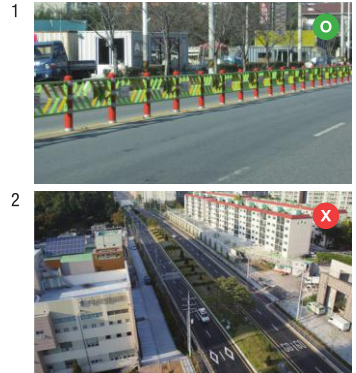
- 다양한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경고 및 인지의 기능에 맞는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고풍택 재료 및 원색 사용을 지양한다.
- 주의환기를 위해 반사판이나 포인트 색상을 사용하여 주목성을 나타낸다.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중·저채도, 중·저명도 색채를 사용한다.
-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예방을 고려하여 일정 간격마다 반사시트 부착을 권장한다.

그래픽요소

- 시의 상징요소(시목, 시화, 시조), 특산물, 캐릭터 등을 형상화하거나 실사 이미지 사용 및 별도 장식물 등의 부착을 지양한다.

기타

- 주행속도가 낮아 시야각이 넓은 구간에서는 교목, 관목 등을 식재하여 인상적인 도로경관을 연출한다.
- 왕복 6차도 이상 도로는 가급적 중앙 녹지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1.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과도한 색상 사용
2. 중앙분리대의 녹지화

B1-8 낙석방지망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획일적인 기성품 사용으로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않은 색채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 안전성 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유지 및 관리가 부족하다.

기본방향

안전하게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획일적인 기성품 사용에서 벗어나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디자인

설치

- 낙석방지망은 낙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체 절개면에 시공하여 낙석에 대처하는 것으로 낙석 크기, 절개면의 경사, 낙석의 높이에 따라 낙석방지망 망눈의 크기와 종·횡 와이어 로프선의 굵기, 설치간격을 조절해야 한다.
- 낙석이 발생할 경우 암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며, 상부에 지주를 설치하여 단단하게 고정한다.
- 낙석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시 과도하게 긴 구간의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을 지양한다.

형태

- 구간별 해체 및 조립이 용이한 모듈형태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낙석 방지망의 망은 50×50(mm) 이상의 마름모 꼴의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
- 낙석방지망과 함께 설치하는 울타리 내부에 배수시설을 도입해 울타리 외부 벽면의 부식을 예방할 것을 권장한다.



Before



After

차도분리의 기능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디자인



1. 과도한 식재배치로 인한 시야차폐

재료

- 낙석방지망에 사용되는 재료는 낙석의 평균 충격에너지 90kJ를 견딜수 있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낙석방지울타리의 하부를 지지하기 위한 기초는 낙석 등의 충격을 견딜수 있도록 콘크리트 옹벽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색채

- 낙석 방지망이 설치된 부근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다양한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경고 및 인지의 기능에 맞는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낙석방지망의 색채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녹색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주변경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

- 낙석방지망의 크랙, 변형, 파손유무와 이들의 진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경과를 기록해 사고발생시 피해가 없도록 예방해야 한다.
- 기존 낙석이나 잔해물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낙석 발생시 2차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 낙석방지망 설치 후 그 위에 덩굴식물 등을 식재해 인공성을 줄이고 자연성을 증가시킬 것을 권장한다.
- 낙석방지시설의 설치시 일차적으로 법면녹화 등의 녹화작업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 낙석방지망 및 울타리 외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지붕형 낙석방지시설의 설치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 방호울타리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낙석방지시설 편> (2008. 국토교통부) 규정에 준한다.



1.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사용
2. 낙석방지망 위 덩굴식물 식재로 자연성 확보

B1-9 육교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기능과 무관한 고채도 색채와 장식적인 요소가 사용되고 있다.
- 부속 시설물 결합부위의 심미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기본방향

다치지않게 | 간결하고 미려하게 | 장소에 조화되게

횡단을 위한 대형시설물로서, 안전성을 기본으로 장소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구현하고 장식요소, 그래픽 등은 최소화

설치

- 육교 아래에 보행자의 머리 보호를 위한 장치 및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다.
- 계단식 구조가 일반적이나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치기준에 따라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로 설치시 기울기는 1/20 이하, 유표폭은 2,000mm이상 확보해야 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수한다.

형태

-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조명 사용을 지양한다.
- 도시가로환경을 가로지르는 구조물로서 위압감이 생기거나 주변 구조물을 압도하지 않는 간결한 구조와 가벼운 형태로 디자인한다.
- 기둥 등의 지면 접촉부를 미려하게 디자인한다.
- 도시경관에 부담을 주는 긴 경사로 및 나선형 경사로 설치는 지양한다.
- 계단부분 펜스의 설치시 바닥면에서 200mm 이내로 단을 상승 시키고, 펜스를 닫고 올라서지 못하도록 수직적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1,000mm 이상 높이로 설치한다.



Before



After

기능과 무관한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1. 주변 언덕길을 이용한 간결한 구조

재료

- 고풍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권장한다.
- 비나 눈이 내렸을 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이나 상판의 재료는 미끄럼 방지 마감을 적용한다.
- 유리나 강화 플라스틱과 같은 투명소재를 지양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 색채계획은 배경이 되는 공간의 색채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한다.
- 도시경관의 배경이 되도록 저채도, 저명도의 색을 사용한다.

그래픽요소

- 문자나 그래픽, 장식의 남용을 지양한다.
- 고채도의 도색 및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 명확한 테마지역, 특화지역에서는 입지 위치의 경관에 조화되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는 바닥형이나 펜스형 조명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육교에 사용되는 조명기구는 날씨상황을 고려해 IP 등급이 확인된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1. 무의미한 고채도 색채적용
2. 과도한 슈퍼그래픽 적용

B1-10 가로등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친 장식, 조악한 자연물 형상, 관할 자치단체 상징물 등이 적용된 예시가 많다.
- 고풍택 재료 및 고채도 색채 적용으로 도시경관을 훼손한다.
- 지면 결합부위의 마감처리가 미려하지 않다.

기본방향

구조가 노출되지 않게 |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지 않게 | 주변 미관을 저해하지 않게

보행자가 구조물로 인해 다치지 않고, 복합적인 용도의 사용과 과도한 장식, 색채 및 그래픽을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로 조성

설치

-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 기초 결합부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면 결합 부위를 미려하게 마감 처리한다.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 있는 가로등 기둥에는 현수기 설치를 하지않고, 하나의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형태

- 가로등의 외형적 특징 보다는 기능 중심의 간결한 형태를 권장한다.
- 배너걸이의 설치는 지양한다. 단, 설치시에는 지주와 일체화된 디자인으로 설계한다.
- 국기꽃이의 설치는 지양하며, 설치시에는 지주에 매립형으로 설계한다.
- 장식이나 상징물의 남용은 지양한다.
- 컷오프 방식의 제품 설치를 권장한다.



Before



After

주변경관에 어울리며 기능 중심의 간결한 형태 및 구조를 가진 가로등 디자인



1. 결합부의 돌출
2. 장식물 남용, 고풍택 금속 소재사용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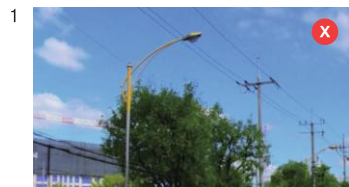
-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이 보행자에게 시각적 혼란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고풍택의 재료 사용을 지양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과 상단부 최소 면적에만 부분 적용한다.
-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가로등 특성상 내구성 있는 재료의 선택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색채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저채도, 저명도의 색상 적용을 권장한다.
- 연속적으로 정돈된 가로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장식적 기능의 슈퍼그래픽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보호대의 대안 (가로등주 개발, 특수도로 사용 등) 도색을 권장한다.
- 차도와 보행로에 적용되는 조도의 기준이 다르므로 그 기준에 맞는 조명설계를 계획한다.
- 기타사항은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2편 조명시설> (2016. 국토교통부) 규정에 준한다.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주변조화를 무시한 원색의 사용
 2. <서울우수공공디자인>제품
 3. <서울우수공공디자인>제품

B1-11 맨홀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형태와 패턴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 보도블록과 이질감이 강한 색채, 재료의 사용으로 도시경관을 혼잡하게 한다.
-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

기본방향

보도면과 유사하게 | 오수와 우수 용도구분 | 소방전용 맨홀은 주정차되지 않게

보행공간에 맨홀이 인지되지 않게하여 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시선 분산을 방지

설치

- 급경사지, 습지 등에 설치하는 지양하고, 타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보행환경 및 시설물 관리의 용이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 차도용 맨홀의 경우 단 차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와의 높이가 동일하게 설치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형태

- 보도면과 연속성 있는 형태나 맨홀의 형태와 같은 하나의 판으로 디자인 한다.
- 덮개의 개폐를 위한 손잡이는 간결한 형태를 적용하고 손잡이에 보행자가 걸리지 않도록 지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맨홀 덮개 크기는 직경 750mm 이상으로 하며, 맨홀 내부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엔 직경 900mm 이상도 사용 가능하다.
- 보도설치용의 경우 보도포장재 소재를 제외한 금속프레임이 최소한의 형태로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보도의 이동성 및 시각적으로 정돈된 느낌을 주기위해 프레임의 두께는 얇게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 파손이 심한 영역의 경우 맨홀의 약 1.5배 면적을 기준으로 정사각면 형태로 콘크리트로 깨끗이 마감하여 바닥면과 수평수직을 맞추도록 하여 정렬한다.



Before



After

보도면과 유사하여 이질감을 없앤 디자인



1. 지면 높이와 일치하지 않는 맨홀
2. 보도와 연속성있는 맨홀

재료

- 차도용 맨홀의 경우 내구성이 강한 주철을 주재료로 사용한다.
- 보도용 맨홀의 경우 구조체는 주철을 사용하고 뚜껑상부는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를 사용한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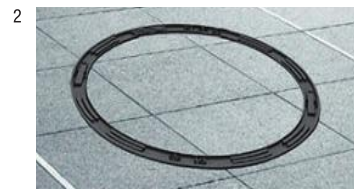
- 표면의 페인트 도장을 지양한다. 단, 소화전용 맨홀은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정해진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래픽요소

-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문자는 보행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기한다.
- 하수맨홀 뚜껑에는 우수와 오수 구분 정보나 자치단체와 관련된 정보외에 다른 장식적인 개념의 그래픽은 지양한다.

기타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지면에 조화되지 않는 재료 및 색채의 사용
 2. <서울우수공공디자인>제품

B1-12 트렌치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휠체어, 유모차 바퀴 등이 빠져 통행에 지장을 받는다.
- 유지관리가 불량하여 훼손된 경우가 많다.

기본방향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게 | 튼튼한 재료 사용하기 | 재료 본연의 색 유지하기

보행자와 휠체어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깊고, 튼튼하도록 함

설치

-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평탄하고 미려하게 마감 처리한다.
- 트렌치의 설치 위치는 보·차도의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로 하고,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와 사유지 경계에 설치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 라인> 규정에 준한다.

형태

-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의 바퀴가 끼지 않도록 정교하게 디자인한다.
- 사각형의 격자형 구조보다는 촘촘한 트러스 형태로 디자인해 틈새를 줄여 쓰레기 및 이물질 등이 통과하지 못하게 디자인한다.
- 트렌치와 함께 설치하는 배수로, 안전 방호책 및 가로등지주 등을 한번에 설치 할 수 있는 트렌치 블록 사용을 권장한다.



Before



After

트렌치의 틈을 최소화해 보행하기 편한 디자인



1. 바퀴가 끼지 않도록 촘촘하게 디자인 된 트렌치의 예시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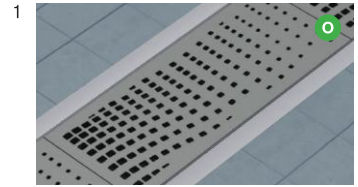
- 강재, 주철재, 철근콘크리트재 등 견고하고 내수성 및 내구성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권장한다.

색채

- 재료 자체 색의 활용을 권장한다.
- 표면의 페인트 도장처리 및 장식적 그래픽은 지양한다.

기타

- 주기적인 유지관리 및 청소로 트렌치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1. 심미성을 고려한 디자인 트렌치

B1-13 제설시설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치게 규모가 커 보행을 방해한다.
-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색채 및 재료 사용으로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 광고물의 과다 부착 등 유지관리가 불량하다.

기본방향

적치가 되지 않게 | 물이 침투하지 않게 | 기능 위주로 | 튀지않고 조화롭게

사용하는 계절이 오기까지 오랫동안 방치하는 시설물로서 보관기능을 최우선으로 하며, 시선 집중이 되지 않고 함의 오염이 없도록 디자인

설치

- 교통량 집중구역, 사고다발지역 등 활용 용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형태

- 기능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쓰레기 적치가 불가능하도록 덮개 부위를 곡면으로 처리한다.
- 시설물 내부로 우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디자인한다.
- 고정 시설물이 아닌 이동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벤치, 소화전 등 다른 시설물과 통합설치를 권장한다.



Before



After

주변환경과 조화되며 평상시 벤치로도 사용가능한 통합 디자인 적용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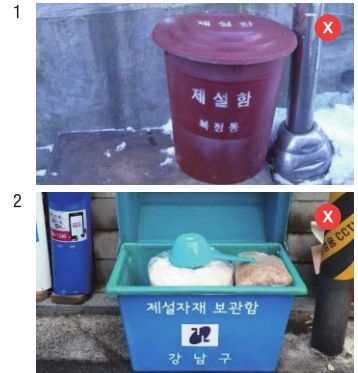
- 시설물과 내용의 손상을 막도록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모래, 염화칼슘 등 제설함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FRP, 복합재료 등의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 고풍택 스텐인리스스틸 등의 사용을 지양한다.

색채

- 기능 색채(반사체)의 적용시, 색채나 장식의 남용은 지양한다.

그래픽요소

- 시설물을 알리는 문구와 픽토그램 이외의 장식적 도안을 지양한다.
- 문자나 로고, 관할 자치구 표기는 지양한다.



1.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은 색채와 배치
2. 불필요한 관할 자치구 표기

B2-1 대중교통 승차대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형태, 재료, 색상의 차이가 크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부착물이 많으며, 형태, 크기, 설치 위치가 보행을 방해하는 예가 많다.

기본방향

승차방해가 되지않게 | 조명과 함께 설치 | 광고는 최소한으로

최소한의 광고로 유지관리,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 확보 등
부가적인 기능을 첨가하되, 주요 기능인 '승차'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고려

설치

- 버스, 택시 승차대 주변 시설물은 시각적 장애를 주는 시설물의 설치는 지양한다.
- 빗물이나 눈에 의한 쌓임을 방지하기 위해 5도 이상의 경사로 지붕을 함께 설치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 가로변승차대는 <서울특별시내버스 승차대 (가로변) 표준형디자인>을, 버스중앙차로승차대는 각 노선별 규정에 준한다.

형태

-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전통문양과 같은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 시키지 않는다.
- 승차대 내 벤치를 제외한 조명, 정보매체 시설물의 경우 승차대 벽체 및 지붕과의 통합 디자인을 적용한다.
- 천장면의 경우 1400mm 이내로 설치해 도로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 상부유리 캐노피 계획시 햇빛 방향에 따른 루버 또는 테이핑 처리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 등에 지정된 사항 이외의 요소 설치나 임의 변형을 지양한다.



Before



After

승차대 인근 식재 및 시설물 최소화
단차제거로 승차장애 요소 제거



1. 서울특별시 표준형 버스 승차대

재료

- 기둥과 지붕은 개방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부피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틸 구조체의 사용을 권장한다.
- 벽체의 경우엔 개방성이 있는 투명강화유리 사용을 권장한다.
- 지붕설치 시 자외선 차단 및 지붕 위의 오염처리에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 지나친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색채를 사용한다.
-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면의 친자연 소재 적용을 권장하나, 붉은색 목재 등 비자연적 색채는 지양한다.

그래픽요소

- 허가된 광고물 및 홍보물 이외에는 외부 부착 및 설치를 지양한다.
- 야간의 치안 및 파손행위 등의 범죄예방과 안내도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도의 조명 및 CCTV의 설치를 권장한다.



1. 주변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색채, 간결하지 않는 형태

B2-2 자전거 보관대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크기가 지나치게 크며, 재료 및 색채가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장식적 도안과 문자로 시각공해를 일으킨다.
- 비가림 시설의 탈색, 찌든 때 등으로 도시경관을 훼손한다.

기본방향

보행에 지장없게 | 개방적인 구조로 | 시각적 요소 최소화

보행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개방적인 구조와 시각적 요소의 최소화를 통해 보관대에서 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감시되도록 함

설치

-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에 인접한 길가 또는 육교, 교량 등 구조물 하부, 공지 등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형태

- 시야를 막는 비가림 시설(자전거보관대 캐노피)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 캐노피의 설치는 지양하나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할 경우엔 크기를 최소화 하거나 개방감 있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캐노피 설치시 자전거 안장에 얹은 높이에서 천정면이 닿지 않도록 2,200mm 이상으로 설계한다.
- 기능 면에서 불필요한 형태는 지양한다.
- 다른 구조물이나 공간 요소와의 결합을 권장한다.
- 모듈화 개념을 적용하여 이용량에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구조와 형태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Before



After

보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색채와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



1. 보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

2. 시야를 차단하는 캐노피

재료

- 구조부의 주재료는 스틸을 기본으로 하고, 자전거걸이는 자전거와 접촉 시 상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사용을 권장한다.
- 스테인리스스틸을 사용시엔 표면의 광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표면처리를 권장한다.

색채

- 페인트 도색시 자전거와 접촉하는 부분은 도색을 지양한다.
- 고채도, 고명도의 색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그래픽요소

- 시설물을 알리는 문구와 픽토그램 이외의 장식적 요소를 지양한다.
- 상업 또는 비상업적 목적을 가진 광고물 등의 부착은 지양한다.

기타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자치구별 고유색 적용, 무의미한 도안과 문자 사용
2.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B2-3 횡단보도 헬터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표준디자인 부재로 통일된 디자인 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 그늘막이 불필요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 설치 후 방치되어 유지관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방향

보행에 지장없게 | 통일된 디자인으로

보행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위치와

꼭 필요한 위치에 설치해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함

설치

- 토지 고정 기둥으로 도로점유를 최소화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 버스 등 대형차 운전자 시야확보에 문제가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 횡단보도 주변 건물과 가로수로 인한 그늘이 생기는 경우엔 설치를 지양한다.
- 횡단보도 헬터 설치 후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000mm 이상 확보해야 한다.

형태

- 토지에 고정해 강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 혹서기를 제외한 기간에 탈착하여 보관 가능한 탈부착식 형태로 디자인한다.
- 지반면에서 지붕 하부까지의 높이는 최소 2,200mm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 주변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서울색의 활용을 권장한다.

기타

- 기타사항은 <횡단보도 헬터의 설치 및 운영> (2018.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그늘막 가이드라인> (2018.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Before



After

보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쉼터의 기능을 살리는 디자인



1. 토지고정을 하지않은 이동식 그늘막

B2-4 신호등(주)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등주에 부착된 시설물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 지면과의 결합부위에서 심미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기본방향

단순하고 간결하게 | 통합적으로 디자인 | 장식·그래픽 요소 최소화

주변의 시설물을 통합하여 가로를 정돈하고,
보행공간과 가로미관을 개선함

설치

- 지면 결합부위를 미려하게 마감 처리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형태

- 부착 시설물(보행자작동신호기, 안내표지, 휴지통 등)은 등주와 일체감을 주도록 디자인한다.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보행약자를 위한 음향 신호기 및 횡단시간 표시기를 함께 설치한다.

색채

-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고 무채색 계열의 사용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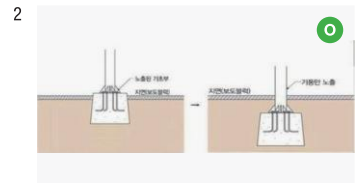


Before



After

지면과의 결합부위 마감을 미려하게 처리해
정돈된 보도 조성



1. 지면 결합부위 마감처리의 심미성 부족
2. 지지대와 앵커볼트의 매립을 통한 미려한 지면 결합부위 마감처리

그래픽요소

· 장식적 문양, 자치구 상징물의 설치는 지양한다.

기타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보호대의 대안(특수도로 사용 등) 도색을 권장한다.

스마트 신호등, 교통안내

설치

- 신호등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적용해 차량의 과속시 경고를 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반응형 감지센서와 음성장치를 함께 설치해 보행자에게 차량이 접근 하고 있음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한다.

형태

- 바닥에 신호등을 설치해 시각적약자에게 상단 뿐만 아니라 바닥에서도 확인 할 수 있게 할 것을 권장한다.



1. 보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
2. 시야를 차단하는 캐노피

B3-1 보도블록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한 공간에 여러 다른 블록이 사용되어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 자극적인 색채가 사용된 예가 많다.
-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부위 마감처리가 미려하지 않다.

기본방향

인지가 쉽고 안전하게 | 마감이 미려하게

공간에 사용되는 블록의 수를 최대한 줄이고
시각적으로 무리가 없는 색채를 사용함

설치

- 평탄성을 유지하며, 보도블록 간 틈새가 치밀하도록 시공한다.
-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부위를 미려하게 마감처리한다.
- 횡단보도 진입 지점, 보행연계구간 등 보차도 경계에 경사면을 두는 경우, 블록의 형태와 배열이 지나치게 왜곡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치한다.
- 보도블록 설치 후 잉여공간의 시멘트(모르타르) 처리는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도블록과 같은 색채의 시멘트를 사용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과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건설교통부),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Ver1> (2013.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형태

- 단위 크기가 되도록 큰 보도블록을 권장한다.
- 요철이 심한 보도블록은 지양한다.
- 요철이 있는 보도블록 사용시 블록간 경계의 단차가 없도록 한다.
- 기본적으로 사각형태의 블록을 권장하며, 비정형 형태의 보도블록은 지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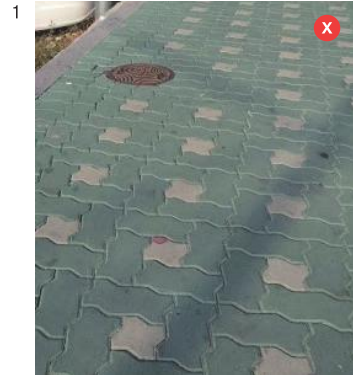


Before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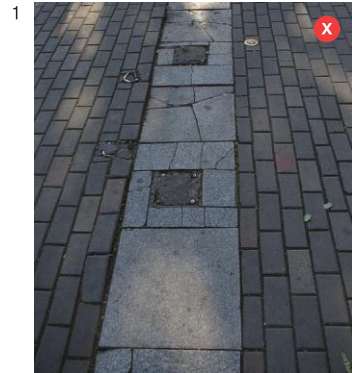
시각적 혼란의 최소화를 위한 적은 종류의
블록사용



1. 비정형 형태의 보도블럭

색채

- 표면의 페인트 도장을 지양한다.
- 기능요소 이외에 유채색, 특히 고채도 색 사용은 지양한다.
- 한 구간에서 여러 색채, 패턴의 무분별한 혼용은 지양한다.
- 보도블럭은 주변환경 색채와, 명도 채도의 차이가 심하지 않은 근접 색상 적용을 권장한다.
- 보도색과 보행안전선의 명도차는 2.0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기타 색채와 관련된 사항은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Ver 3.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의미 없이 서로 다른 패턴의 블록 적용, 유지·관리 상태 불량
2. 차분한 색채와 패턴의 예시

B3-2 점자블록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점자블록 위로 다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장애인에게 혼란과 신체적 장애를 준다.
- 보도 끝부분의 마감처리가 미려하지 않다.
- 부적정 재료(고무, 합성수지, 철재 등) 사용으로 내구성 저하 및 비나 눈 등의 물기에 미끄럼이 발생한다.

기본방향

인지가 쉽고 안전하게 | 내구성있고 미려하게

점자블록의 내구성있고 미려한 마감으로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

설치

-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마감처리한다.
- 보도블록과의 간격은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및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Ver1> (2013.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색채

- 표면의 페인트 도장을 지양한다.

기타

- 기타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에 준한다.
- 시각약자의 잦은 통행이 예상되는 점자블록엔 미끄럼 저항기준 408bpm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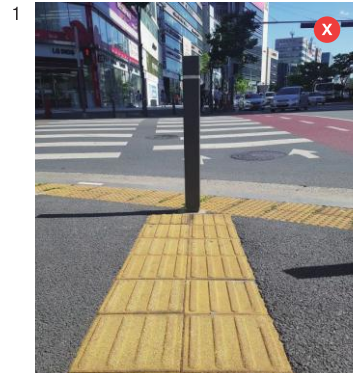


Before



After

점자블록 위 시설물 설치 지양



1. 점자블록 위로 볼라드가 설치되어 안전한 통행을 방해
2. 시인성이 확보된 점자블록의 시공 예시

B3-3 블라드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장식적인 형태와 색채로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불필요한 문자 및 그래픽이 표기된 예시가 많다.
- 필요 이상의 수량 및 불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가 있다.
- 점자블록 위에 세워진 경우가 많다.

기본방향

아름답고 간결하게 | 인지가 쉽고 안전하게 | 필요한 만큼만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함

설치

- 사람 또는 차량 이동 시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경사면에도 수직으로 설치한다.
- 보행연계구간 등 보차도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지점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낮은 블라드의 설치는 지양한다.
- 보행약자를 위해 블라드 설치 간격은 최소1,200mm에서 1,500mm 폭으로 설치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과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에 준한다.

형태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형태나 재료 등을 적용한다.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다.)
-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보도와 시각적 연속성을 이루도록 한다.
- 블라드의 규격은 높이 800~1,000mm, 지름은 100~200mm로 한다.



Before



After

저채도 색의 사용과 간결한 기능 위주의 디자인



1. 불필요한 장소에 설치

재료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마감재는 약간의 탄성을 가진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 고명도 색채의 사용은 지양한다.
- 기능적 색채(반사체) 적용시 20~30mm의 폭으로 1~2줄 적용하며, 가급적 흰색의 반사체를 적용한다.
-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을 고려하여 다방면에서 인지되는 띠형태의 반사시트를 함께 부착한다.

기타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자극적이고 장식적인 색채 및 광택재료, 유색 반사띠, 하부 보조금구 적용
2. <서울우수공공디자인>제품
3. <서울우수공공디자인>제품

B3-4 보호펜스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치게 장식적인 패턴으로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기초체결 부위에 체결 금구 등이 노출되어 있다.
- 고풍택 금속 재료의 직접적인 노출로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

기본방향

기능위주로 단순하게 | 주변환경에 조화롭게

행인의 안전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함

설치

- 보호 펜스는 되도록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단, 도로폭이 충분한 경우 생울타리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규정에 준한다.

형태

-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형태를 모듈화 하여 다양한 길이로 연장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불투명한 판상 구조는 지양하고, 개방감 있는 선적인 형태를 권장한다.
- 높이 1,200mm, 1경간의 길이는 1,500~2,000mm의 범위에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재료

- 보도와 차도를 나누는 경계 펜스에는 차량 충돌에 대비하여 내구성이 강한 스틸 재료를 사용한다.
- 보도와 녹지를 나누는 경계 펜스에는 자연친화적인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Before



After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변화



1. 보호펜스 대신 녹지대 및 벤치 설치
2. 기초부 체결부 돌출

색채

- 고광택 금속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표면처리나 무채색 분체도장을 권장한다.

그래픽요소

- 문자나 로고, 관할 자치구 정보, 업체 정보 등의 표기는 지양한다.

기타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기타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2014.국토 교통부)의 설계지침 규정에 준한다.



1. 과도한 형태 및 색채, 불필요한 자치구 로고, 고광택 재료 적용
2.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품

B4-1 지상변압기

현황 및 문제점

- 과도한 크기로 보행을 방해한다.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지나치게 장식적인 그래픽 요소 적용으로 혼란을 일으킨다.

기본방향

보행을 방해하지 않게 | 통합적으로

행인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하고
다른 시설물과 통합하여 디자인 함

설치

- 콘크리트 받침대는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그 너비를 기기와 동일하게 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형태

-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크기를 최소화하여 보행공간을 여유롭게 확보한다.
- 시각적으로 안전하게 보이고 보행을 위협하지 않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 모서리 등의 마감부위가 날카롭지 않고 모서리 부분이 어린이나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와 일치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재료

- 먼지 제거가 용이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고광택의 스테인리스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적용 면적을 최소화 하고 광택을 최소화하는 표면처리를 권장한다.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특수도료를 사용한다.



Before



After

보행로 점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시설물 등과 통합디자인 적용



1. 콘크리트 받침대 설치
2. 불법광고물로 뒤덮힌 변압기

색채

-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무채색의 단색 사용을 권장한다.
- 가급적 인지되지 않도록 후퇴색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래픽요소

- 색채 도안이나 그래픽 등 기능과 무관한 장식 적용은 지양한다.
- 허가된 광고물 및 홍보물 이외에는 외부 부착 및 설치를 지양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2015.서울특별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과도한 형태 및 색채, 불필요한 자치구 로고, 고광택 재료 적용
2. 광고와 결합하여 미관 개선한 예시

B4-2 교통신호제어기

현황 및 문제점

- 보행에 방해가 되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지면 결합부위의 마감처리가 미려하지 않다

기본방향

미려한 마감 |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보행에 방해를 주지않고
주변환경에 조화되게 디자인함

설치

- 시설물영역 또는 공지 중 녹지영역에 설치한다.

형태

- 지붕을 씌우지 않는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크기의 최소화를 권장한다.
-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해 지면과 닿은 면적은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 규정된 기능성 색 이외에는 무채색의 단색을 적용한다.

기타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보호대의 대안(특수도로 사용 등) 도색을 권장한다.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Before



After

다른시설물과의 결합을 통한 보행로 확장



1. 보행 방해 및 지나치게 명시성 높은 색채 사용
2. 경찰청 인증 표준형제품

B4-3 전기차 충전소

현황 및 문제점

- 높은단차와 협소한 공간으로 신체적 약자가 이용하기 어렵다.
- 캐노피 및 안전시설의 부재로 감전에 노출되어 있다.

기본방향

접근하기 쉽게 | 인지가 쉽게 | 사용하기 편리하게

충전기와 차량 사이의 유효폭을 확보해

신체적 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디자인함

설치

- 전기차의 사용자가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충전중 차량 이동을 방지하고 다른 차량의 접근을 막기 위해 볼라드 및 스토퍼 등과 같은 접근방지 시설의 설치를 계획한다.
- 충전소 설치시 와이파이 커넥티비티 기능을 추가해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게 한다.
- 충전기 사용시 1대의 차량이 해당 주차면적을 장시간 점용하여야 하므로 전기차 및 일반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주차장 입구에서 가까운 입구 한쪽에 따로 충전소를 마련해 일반차 및 전기차 이용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바닥 주차면의 표시로만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전기차 안내표지판을 설치 할 수 있다.
- 침수, 빗물 합류, 강우·강수 등 자연재해에 의한 영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 분진, 부식성 가스, 폭발성 가스 등이 생성되거나 체류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기둥, 벽면, 간판, 식재 등으로 충전기가 가려지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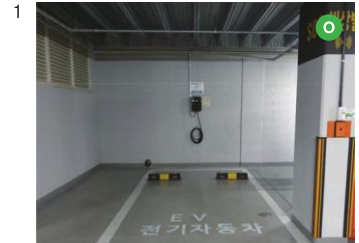


Before



After

신체적 약자를 위한 충전소와 차량간 충분한 유효폭 확보



1. 일반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는 공간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2. 충전기 높이가 신체적 약자 이용에 부적절한 예시

형태

- 충전라인을 제외한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단순하게 디자인한다.
- 충전기기 보호를 위한 볼라드를 설치한다.
-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멀리서도 인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충전 단자는 하단부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야외에 충전소 설치시 반드시 빗물 등을 막을 수 있는 지붕 및 캐노피 형태로 디자인한다.
-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연장갑과 같은 안전장비함을 충전소에 함께 비치한다.설물영역 또는 공지 중 녹지영역에 설치한다.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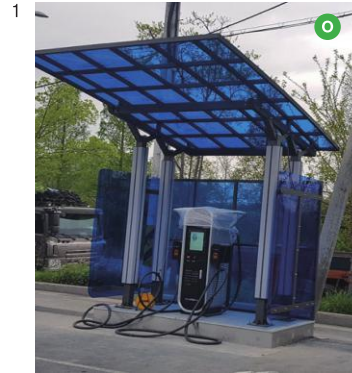
-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수 및 방전재료를 사용한다.
- 바닥면에 충전 중 차량과 이용자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러움 방지 포장을 적용한다.

색채

- 전기차 충전기는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낮은 채도의 색을 사용하고, 주차면의 색만 구분하도록 한다.

기타

- 기타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충전인프라 설치 운영 지침> (2020. 환경부) 규정에 준한다.



1. 캐노피가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B5-1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치게 장식적인 형태의 캐노피로 인하여 시각적 혼란을 유발한다.

기본방향

개방감 있게 | 통합적으로

가로공간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개방감 있으며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함

설치

- 길이 15,000×폭 40,00×높이 3,000 (mm)의 규격으로 계획한다.
- 지하철 캐노피 조명설치시 눈부심이 적은 조명을 계획한다.
-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형태

- 지자체의 특정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은 계획하지 않는다.
- 우수와 적설에 대비해 자연스러운 슬로프 형태를 권장하고, 상부에 설치된 우수출통으로 집수, 후면부 구조기둥 내부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배수되는 구조를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한다.
-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Ⅳ> (2010.서울특별시) '지하철출입구캐노피'형태 파트 규정에 준한다.

설치

- 개방감 확보를 위해 벽면부는 투명도가 높은 유리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 안내사인 설치시 캐노피에 사용된 색과 동일한 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Ⅳ> (2010. 서울특별시) '지하철출입구캐노피'색채 파트 규정에 준한다.

그래픽요소

- 허가된 광고물 및 홍보물 이외에는 외부 부착 및 설치를 지양한다.
-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에 지정된 사항 이외의 요소 설치나 임의 변형을 지양한다. 단, 설치환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에 지정된 사항에서 5% 이상의 규격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공동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Before



After

시각적으로 개방감 있는 투명한 재료를 사용한 디자인



1. 표준형 지하철 캐노피
2. 투명한 재료의 사용을 통한 개방감 확보

B5-2 지하철 환기구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과도한 크기로 보행을 방해한다.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광고물의 과다 부착 등 유지관리가 불량하다.
- 추락, 끼임과 같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기본방향

청결하고 조화롭게 | 안전하게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고, 주변환경에 조화롭게 디자인함

설치

- 지하철 환기구는 원칙적으로 보도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노선 주변 공원, 녹지, 버스전용차 내로 승강장과 병행, 공공용지 등에 설치를 권장한다.
- 공중에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환기구 난간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투시형 환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규정에 준한다.

형태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크기와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의 경우 환기구 벽면과 시각매체 시설과 통합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돌출형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전난간, 조형물, 수목 등을 이용하여 사람 및 차량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올라설 수 없는 형태를 권장한다.
- 환기구의 높이는 최소 2,000mm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안전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2,200mm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Before



After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가림막을 설치하여 지하철 환기구 추락사고 방지



1. 보행을 방해하는 규모

2. 과장된 형태

재료

- 외부충격에 강한 스틸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해 특수도로 사용을 권장한다.
- 개방형 난간 설치 시엔 하부구조는 석재 등의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여 자동차 등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한다.
- 유리형 난간의 설치시엔 안전유리의 사용을 권장하나 파손시 비산 및 탈락 되지 않는 유리(접합유리)를 적용한다.

색채

- 색채 도안이나 그래픽 등 기능과 무관한 장식 적용은 지양한다.

기타

- 신규 설치 및 리모델링 시에는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VI> (2012. 서울특별시) '냉각탑 및 환기구 가림벽'의 적용을 권장한다.
- 기타 안전 및 설계사항은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9. 국토교통부) 규정에 준한다.



1. 불법광고물이 부착된 환기구

B5-3 지상노출엘리베이터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고광택 금속 재료 남용과 고체도의 유리 사용으로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지나치게 큰 규모와 경사로 등의 설치로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훼손한다.

기본방향

이용하기 쉽게 | 개방감 있는 구조

개방감 있는 구조와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디자인함

설치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보도 점유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 경사로 설치시 폭은 1,200mm 이상, 기울기는 1/18 이하가 되도록 계획한다.
- 엘리베이터 전면에는 1,500×1,500 (m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표 1),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별표 1) 규정에 준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형태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대비, 통풍이 원활한 형태 및 구조를 계획한다.
- 별도의 경사로 설치를 대신하여 진입로를 보도의 기울기와 일치시킬 것을 권장한다.
-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가 설치된 경우 캐노피와 연속성 있는 형태를 권장한다.
- 하부기초는 가급적 높이를 최소화하여 바닥레벨과 평탄하도록 계획한다.



Before



After

이용자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투명한 소재를 사용한 디자인

1



1. 간결하고 개방감 있는 디자인

재료

- 벽면에는 투명도가 높은 유리 사용을 권장한다.
- 고채도의 색유리 사용을 지양하고 무채색 유리 사용을 권장한다.
- 내부 구동 장치의 경우 사인시설물이나 반투명 재료를 사용하여 차폐할 것을 권장한다.
- 고휘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권장한다.

색채

- 변 환경에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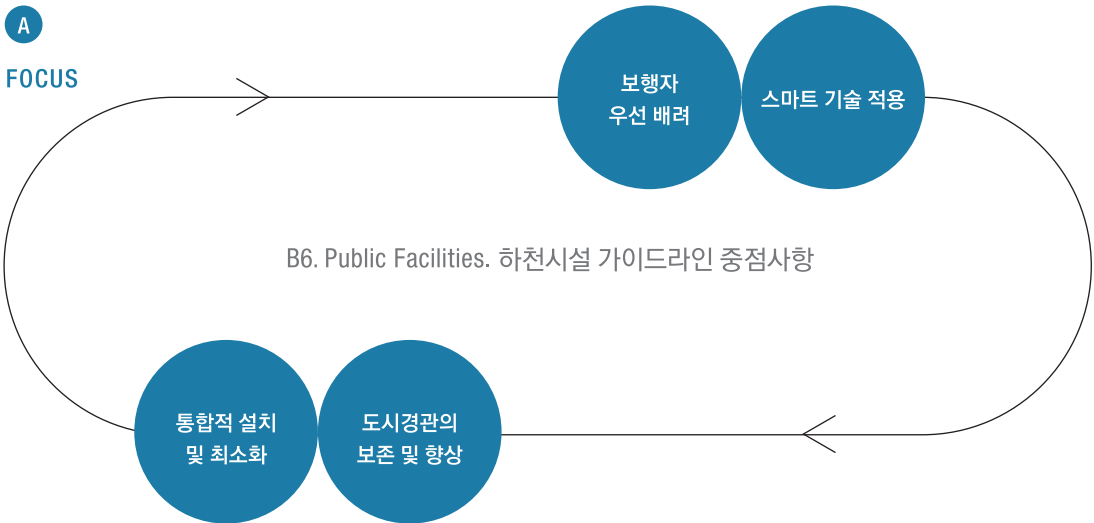


1. 투명도가 높은 재료의 사용
2.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색채, 지나치게 큰 규모로 보행 방해

B6 | 하천시설 가이드라인

하천 시설물은 하천주변 지형의 고저차가 심한 곳이나 절개지, 하천이 합쳐지는 곳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며, 경우에 따라 수변공간의 보행로에 인접하여 설치되기도 한다.

토지 유실 방지, 유량의 조절과 범람방지 등 안전확보 및 치수가 주목적인 시설물로서, 지역의 특성상 물리적 내구성과 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비교적 큰 규모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위압감을 줄 수 있으므로,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수변공간에 어울리는 디자인 계획이 필요하다.



수변 공간과의 조화
시민 안전 확보
관리의 효율성
환경 영향 최소화

기능성에만 치중하지 말고, 구조물의 형태 및 규모가 미관적으로 아름답게 디자인한다.
강우 및 침수 등에 대비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의 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형태와 내구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시설물 설치에 따른 주변환경의 피해가 없도록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 B6-1 육갑문
- B6-2 하천제외지 구조물 (옹벽·석축)

B6-1 육갑문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저체도의 어두운 금속 위주의 재료 사용으로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기본방향

밝고 친근하게 | 인지가 쉽고 안전하게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밝은 색채와 재료를 사용해
위압감을 줄이고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함

설치

- 육갑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하천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 수충부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 설치는 지양한다.
- 육갑문의 설치방향은 제방법선에 직각으로 최대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한다.
-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시 사람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이동식 보호펜스 설치를 권장한다.

형태

-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지지력 및 침하에 안정된 말뚝기초 형식을 적용한다.
- 육갑문과 함께 설치되는 나들목은 주변 건축물과 일관성을 가지며 수직적 형태를 강조하여 주목성을 높인다.
- 주변 구조물은 규모를 최소화하고 돌출형태는 지양한다.



Before



After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색채와 조명을
사용하여 밝은 분위기 연출

재료

- 하천에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필수적으로 방수재를 사용한다.
- 홍수 및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주변경관을 고려한 재료를 도입하여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색채

- 어둡고 단조로운 색채를 사용하기보다 밝은 색채를 사용해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줄이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갑문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위하여 강조색을 사용할 수 있다.
- 홍수 및 범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픽토그램 등을 활용한 안내표지 설치를 권장한다.

기타

- 육갑문은 평상시 교통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홍수 시 폐쇄하여 제내지로의 홍수의 유입 또는 고조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물로의 기능이 보전되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



1. 주변과 융화되는 색채 및 재료의 사용
2. 위압감과 불안감을 주는 색채 사용
3. 시민성 높은 안내표지 설치

B6-2 하천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자연 재료를 조잡하게 모방한 패턴 남용으로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불필요한 구조물과 조명이 설치되어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기본방향

친환경적으로 | 위압감 이미지 최소화

인공적으로 쌓아올린 단순한 벽에서

미관성, 특수성, 친환경성 등을 목적에 따라 적절히 적용함

설치

- 하천과의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물에서 다양한 경험 및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친수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 옹벽 및 석축의 선형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 상·하부에 식재를 통해 인공적이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완화한다.
- 옹벽의 단부는 사선처리로 주변과 자연스럽게 연계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형태

- 인공구조물의 면적을 최소화하고 식생공법을 통해 구조면 녹화를 권장한다.
- 완만한 기울기를 유지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유도한다.
- 석축은 둔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완만한 기울기 조절과 낮은 단차로 시각적 일체감과 안정감을 연출한다.
- 입면의 분절을 통해 위압감을 완화하거나 변화감을 연출할 것을 권장한다.

재료

- 하천에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필수적으로 방수재를 사용한다.
- 홍수 및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거푸집을 활용한 간결한 패턴 적용을 권장한다.
- 옹벽의 목재 및 녹음을 도입해 적절한 입면분절을 계획한다.
- 자연재료는 하천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특성을 활용한 옹벽계획을 권장한다.

색채

- 옹벽엔 고채도색 사용과 그래픽 사용을 지양하며 색채적 돌출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

- 기타사항은 <하천 경관디자인 매뉴얼 : 옹벽 파트> (2016. 한국수자원공사) 규정에 준한다.



Before



After

하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인위적 구조물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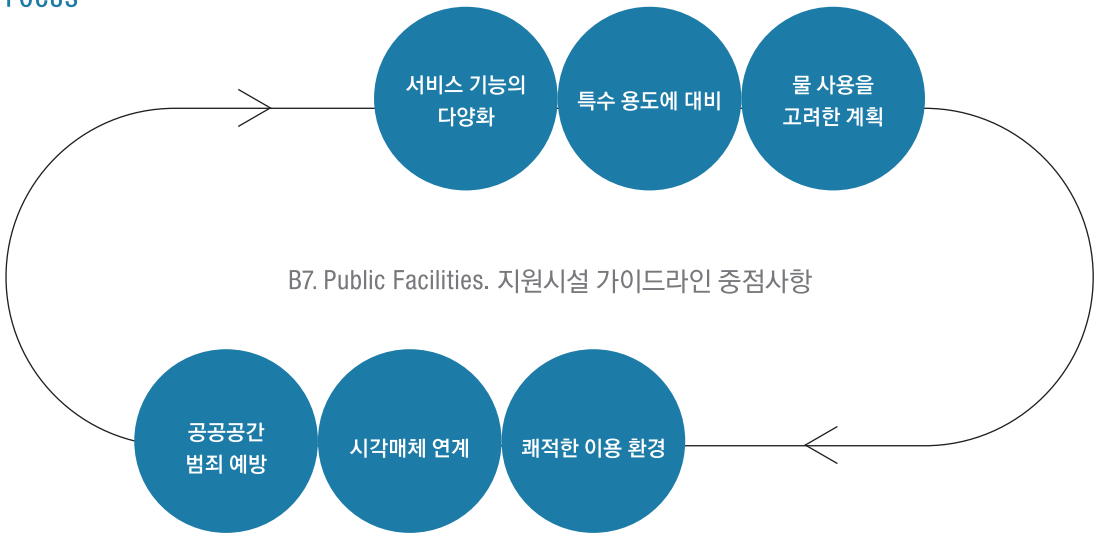
1. 옹벽 녹화작업
2. 거푸집을 활용한 간결한 패턴
3.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자연석 마감

B7 | 지원시설 가이드라인

가로공간에서는 보행자의 단순한 이동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설물들이 위치해야 한다. 때문에 지원 시설물은 이용자의 편의제공이 주요 목적이며, 영구적 혹은 임시적으로 일정 부분의 도로면적을 점유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물의 설치 유형에 따른 디자인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CCTV나 소화전 등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물은 고유의 목적을 감안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특화된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하겠다.

A
FOCUS



서비스 기능의 다양화
특수 용도에 대비

물 사용을 고려한 계획

공공공간 범죄 예방

시각매체 연계

쾌적한 이용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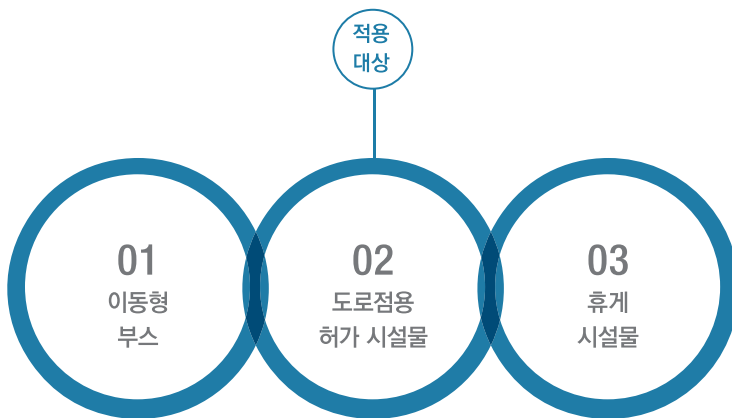
시민의 다양한 야외활동을 고려하고, 신체접촉, 사용행태에 대응할 수 있게 디자인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시설물의 영역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물과 통합을 고려한다.

상하수 사용 및 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처리시설을 계획한다.

적절한 시야 확보 및 감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의 성능과 인지성을 높인다.

정보 안내가 필요한 시설물은 시각매체와 상호 보완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B7-1 관광안내소
- B7-2 공중전화부스
- B7-3 가로판매대

- B8-1 소화전
그 밖에 유사시설

- B9-1 벤치
- B9-2 그늘막



- B10-1 보안등
- B10-2 공원등
- B10-3 CCTV(지주)

- B11-1 휴지통
- B11-2 공중화장실
- B11-3 음수대

B7-1 관광안내소(부스형)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디자인과 색채가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
-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 부족으로 시설물의 훼손 및 노후화가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다.
- 지나치게 많은 정보량으로 혼란을 일으킨다.

기본방향

인지하기 쉽게 |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관광객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얻기 쉽게 간결하게 디자인함

설치

- 관광안내소 디자인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형태를 적용한다.
- 지역을 상징하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 시키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 편안하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방감 있는 형태로 디자인 한다.
- 내부진입을 하지 않고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유로운 이용 및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티투어버스 매표소 디자인은 <서울특별시투어버스 승차대 특화디자인> (2011.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재료

- 유리 등 개방감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이용객의 시인성 확보 및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Before



After

간결하고 개방감있는 디자인으로
관광객의 접근유도



1.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재료, 조악한 장식
2. 사용간결하고 개방적인 구조와 형태의 예시

색채

- 관광안내소 디자인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 재료의 인공적인 도색을 지양하고, 재료의 자연적인 특징을 살리도록 계획 한다.
- 시티투어버스 매표소 디자인은 <서울특별시시티투어버스 승차대 특화디자인> (2011.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그래픽 요소

- 관광안내소의 안내판에는 관광안내소 픽토그램과 거리 이외의 정보표기를 지양한다.
- 기타 표기요소에 관해서는 <사설안내표지판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Ver.3.0> (2015.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기타

- 별도의 조명 연출 보다는 관광안내소 내부의 밝은 빛과 인지성 있는 시인 시설물 등의 조명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관광안내소 디자인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과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르고, 설치에 앞서 서울특별시 공동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1. 서울특별시시티투어버스 표준 디자인

B7-2 공중전화부스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공간 및 사용 빈도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
- 형태 및 색채, 픽토그램, 통신사 표시가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
- 지면과의 결합부위에서 사용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기본방향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 평탄하고 이용하기 쉽게

주변환경에 조화되는 디자인과 불필요한 단차를 제거함

설치

- 공중전화부스의 바닥면과 보도의 높이가 같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안심부스, ATM, 전기차 충전소 등과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 설치 및 유지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장비의 접근이 용이한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한다.
- 지팡이, 목발 이용자 등이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수직 및 수평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규정에 준한다.

형태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권장한다.
- 방음형 부스(문이 닫히는 구조)는 내부가 보이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공중전화 부스 등 구획된 공간일 경우에는 내부 폭 900mm 이상, 깊이 1,400m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지역을 상징하는 동·식물 등의 이미지를 형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Before



After

투명한 재료를 사용 개방감을 확보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단차제거



1. 안심부스와 통합 설치된 공중전화부스
2. 지역을 상징하는 특정이미지를 형상화한 예시

재료

- 고풍택 스테인리스 사용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사용시 적용면적의 최소화와 광택면적 최소화를 위한 표면처리를 권장한다.
- 불법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파티션 부분의 개방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투명 강화유리를 권장한다.

색채

-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을 적용한다.

기타

-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는 공중전화부스 설치시 서울공공디자인위원회와 협의한다.
- 부스 내부 청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며, 특히 전화기의 위생에 유의한다.
- 단독 부스 설치시 일반 사용자와 장애인, 아동 등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가 다른 공중전화기 설치와, LCD, 음성 서비스 등 정보 전달 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1. 스테인리스와 투명 유리를 사용한 공중전화부스
 2. 튀는 색채의 공중전화부스
 3. KT 표준형 공중전화부스

B7-3 가로판매대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재료 및 색채가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판매대 외부에 판매 물품 등을 적재하여 보행을 방해한다.
- 임의로 부착한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

기본방향

청결하고 아름답게 | 통행하기 쉽게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디자인함

설치

- 유지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장비의 접근이 용이한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형태

- 이동이 가능한 독립형 부스형태를 지향하고 판매 물품들이 보행로 위로 적치 되지 않도록 디자인을 계획한다.
-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가로판매대의 전력운영에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한다.
-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07. 서울특별시) '가로판매대' 규정에 준한다.
-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에 지정된 사항 이외의 요소 설치나 임의 변형 (외부공간 물품 적치, 그늘막 등 형태 변경 등)을 지양한다.



Before



After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상 적치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



1. 외부공간 물품 적치 및 그늘막 등 형태 변경
2. 간결한 형태와 색채를 적용한
<서울특별시 표준형가로판매대>

재료

- 내구성이 강한 스틸소재를 사용하고, 내마모성이 우수한 무광택 도장으로 표면을 마감할 것을 권장한다.
- 셔터의 경우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고 판매대와 동일한 색채를 사용한다.

색채

- 환풍기, 계량기, 냉장고 등 가로판매대 부속 시설물들의 색채도 판매대와 동일한 구조체로 인지될 수 있도록 동일한 색채를 적용한다.
- 주변과 조화되지 못하는 고채도의 사용은 지양한다.
-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07. 서울특별시) '가로판매대' 규정에 준한다.

그래픽 요소

- 허가된 광고물 및 홍보물 이외에는 외부 부착 및 설치를 지양한다.



1. 판매대와 동일한 색채 및 재료 사용

B8-1 소화전 그 밖에 유사시설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 및 재질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 설치 위치가 불규칙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차량 이용자의 동선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기본방향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 이용하기 간편하게 | 기능위주

위급상황 발생시 바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고 간결한 디자인과 시설물의 통합디자인 적용

설치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를 1,000m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그외 지역은 1,400m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보행자의 보행환경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 소화전과 보호펜스가 지면에 닿는 부위는 보도블록을 이용하여 마감한다.

형태

- 비상상황 발생시 사용이 용이하도록 시설물 인근에 다른 시설물의 배치는 지양한다.
-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간결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권장한다.
-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통행에 방해할 주지 않도록 평탄한 포장을 적용한다.



Before



After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시인성을 높인 디자인



1. 보행을 방해하는 소화전 배치
2. 소화전 인근 과도한 시설물 배치로 인한 소화전 접근 방해

재료

- 외부충격 및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나 동일한 재료의 사용으로 위급상황 발생시 소화전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색채

- 제품을 상징하면서 주야간 주변환경 대비 시인성 높은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소화전 근처 주정차 금지 안내를 위한 안내시설 및 그래픽 설치를 권장한다.



1. 시인성 높은 그래픽을 활용한 안내

B9-1 벤치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디자인이 산만하다.
-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색채가 사용된다.
- 시멘트로 자연 재료를 조잡하게 모방하여 이질감이 느껴진다.

기본방향

단순하고 간결하게 | 기능에 충실하게

벤치 본연의 기능에 맞게 기능적으로 디자인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해서 디자인함

설치

-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공해가 심한 곳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 조명(가로등, 보안등 등)과 인접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의 이동성이 높은 지역에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벤치의 설치를 지양하며, 보행로의 결절점, 건물의 입구부, 광장, 오픈스페이스, 보행전용가로 등에 벤치 설치를 권장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규정에 준한다.

형태

-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거나 별도의 안전 마감 적용을 해야 한다.
- 배치 장소에 따라 등받이 유무를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좌판은 우천시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Before



After

주변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고,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벤치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



1. 주거지 입구부의 벤치 설치

재료

- 앉음판에는 나무, 우레탄 등 부드러운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앉음판의 목재 사용시 유색 페인트 도장을 지양한다.

색채

- 주색(등받이와 앉음판의 색)과 보조색(기타 부위의 색)을 포함하여 무채색 사용을 권장한다.
- 보조색에는 재료 자체 색의 활용을 권장한다.
단, 페인트 도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채도 색을 사용하며, 유색 페인트 도장을 지양한다.
-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사용한다.

기타

- 조립부(다리 고정 볼트 등)의 볼트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 및 관리한다.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스마트 휴게시설

설치

- 태양광 전지판넬을 설치해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벤치 전력을 충당할 것을 권장한다.
- 비상상황 발생시 손쉬운 대응을 위한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반응형 감지센서를 설치해 이용자와 시설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 사물인터넷(IoT), Wifi, 무선충전기술 등의 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한다.

형태

파고라 및 전광판, 조명 등의 시설과 통합한 형태를 권장한다.



1. 앉음판에 우레탄을 부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예시
2. 주변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색채의 예시
3.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4. 스마트 벤치 예시
5. 스마트 트리 예시

B9-2 그늘막 (파고라)

현황 및 문제점

- 닫힌 구조로 설치되어 경관을 답답하게 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형태 및 색채가 적용되어 있다.

기본방향

개방적이게 | 안전하고 편리하게 |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조화롭고

개방적이게 디자인함

설치

- 그늘막 지붕 아래의 휴지통 설치는 지양한다.
- 그늘막과 벤치는 함께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두 시설물은 통일감 있는 재료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 조명과 함께 설치하거나 가로등 등 주변 조명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규정에 준한다.

형태

-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기둥은 최대한 슬림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지면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한다.
- 최소한의 구조와 개방성이 확보되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Before



After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간결한 디자인



1. 공원에 조화되지 않는 색채 및 형태

재료

- 목재 사용 시 재료 자체 색의 활용을 권장한다.
- 부식에 강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기타

- 구조물의 식생녹화를 권장한다.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구조물에 식생녹화를 도입한 예시
2.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품

B10-1 보안등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친 장식, 조악한 자연물 형상, 관할 자치단체 상징물 등이 적용된 예가 많다.
- 고광택 재료 사용으로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 고채도 색채 적용으로 도시경관을 훼손한다.
- 지면 결합부위의 마감처리가 미려하지 않다.

기본방향

기능위주로 간결하게 | 연속적으로

보안등의 보안기능을 위해
연속적인 배치와 간결한 디자인

설치

-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규정에 준한다.
- 기초 결합부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면 결합부위를 미려하게 마감 처리한다.
- 보안등의 기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연속적인 배치를 권장한다.
- 위급상황 발생시 함께 사용가능한 비상벨을 함께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형태

- 간결한 형태를 권장한다.
- 장식이나 상징물의 남용은 지양한다.

재료

- 고광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 불법부착물 방지를 위한 기능성 재료를 사용한다.



Before



After

보안등 기능에 충실한 연속적인 배치와
반응형 센서를 갖춘 디자인



1. 광택 재료의 적용 및 불필요한 요소의 적용

색채

- 주변 환경을 고려해 눈에 잘 띄지 않는 저채도, 저명도 색상 적용을 권장한다.
- 부득이하게 광택이 있는 도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표면가공 등의 후가공을 적용한다.

기타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보호대의 대안(등주 개발, 특수도로 사용 등) 도색을 권장한다.
- 조명 주위에 나무를 식재할 때는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가지치기를 하여 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보안등과 공공시각매체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중 '첨부 : 통합지주 시각매체 디자인가이드 라인'규정에 준한다.
- LED등기구는 <서울특별시 LED조명 주요부품 표준화 지침> (2015. 서울특별시)규정에 준한다.
- 기타 사항은 <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2편 조명시설> (2016. 국토교통부) 규정에 준한다.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스마트 보안등

설치

- IoT시스템을 활용해 관제센터와 모바일로 밝기, 점소등 등과 같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반응형 센서를 활용해 보행자 접근시 자동으로 점소등되는 방식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 장소 특성에 따라 조명, 감시, 보안 등 기능을 선택하여 모듈형으로 설치한다.

형태

- 비상상황 발생시 바로 사용가능한 비상벨과의 통합설치를 권장한다.



1.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2.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3. IoT시스템을 활용한 보안등 관리
 4. 비상벨과 통합설치 예시
 5. 박스라이트 설치 예시

B10-2 공원등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친 장식, 조악한 자연물 형상, 관할 자치단체 상징물 등이 적용된 예가 많다.
- 고풍택 재료 사용으로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 고채도 색채 적용으로 도시경관을 훼손한다.
- 지면 결합부위의 마감처리가 미려하지 않다.

기본방향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게 | 간결하고 미려하게

지나친 장식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간결하고 미려한 디자인을 계획함

설치

-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면부는 미려하게 마감한다.
-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규정에 준한다.

형태

- 간결한 형태를 권장한다.
- 장식이나 상징물의 남용은 지양한다.
- 유도사인, 화분걸이, 벤치 등 타 시설물과 통합설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Before



After

자치구의 지역 상징성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표준디자인 적용



1. 간결한 형태의 조명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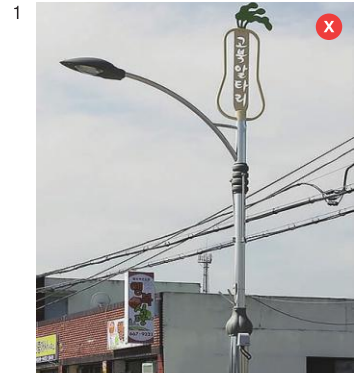
- 고풍택의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 친환경 재료(목재 등)를 적절히 활용한다.

색채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저채도, 저명도 색상 적용을 권장한다.

기타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보호대의 대안(등주 개발, 특수도로 사용 등) 도색을 권장한다.
- 보안등과 공공시각매체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중 '첨부 : 통합지주 시각매체 디자인 가이드 라인'규정에 준한다.
- LED등기구는 <서울특별시 LED조명 주요부품 표준화 지침> (2015. 서울특별시)규정에 준한다.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광택 재료의 적용 및 조화롭지 못한 일체형 함체
2.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3.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B10-3 CCTV(지주)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시설물의 독립지주의 사용으로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
- 고광택 금속재료 사용으로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다.
- CCTV 지주의 지면부 결합부위에 심미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기본방향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 통합을 통해 간결하게

통합디자인 적용을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디자인함

설치

- 가능하면 단독 지주 설치를 지양하고,
다른 시설물(예 : 신호등)과의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 기초 결합부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면 결합 부위를 미려하게 마감 처리한다.
- 야간감시를 위한 조명시설과의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형태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재료

- 고광택의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색채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저채도,
저명도 색상 적용을 권장한다.

기타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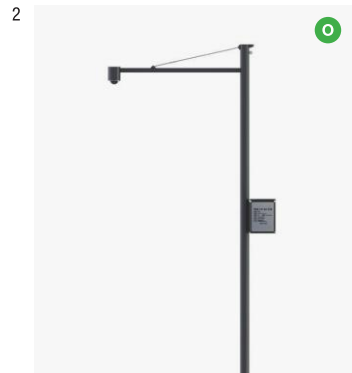


Before



After

비상벨, 보안등 등과의 통합디자인 적용



1. CCTV의 불필요한 단독지주 설치로 경관을 해치는 예시
2.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B11-1 휴지통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고풍택 금속 재료 사용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
- 분리수거 휴지통에 국가표준픽토그램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
- 무계획적이며 즉흥적인 부착물들로 시각적 공해를 유발한다.

기본방향

청결하고 아름답게 | 인지하기 쉽게 |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행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함

설치

- 금연구역에는 재떨이 설치를 지양한다.
- 휴게시설물에 인접 설치시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규정에 준한다.

형태

- 수거, 청소 등 관리가 용이하게 한다.
- 휴지통 내 수분의 배출이 원활하도록 디자인한다.
- 투입구가 위쪽을 향할 때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한다.
- 재활용 분리수거 휴지통을 권장하며, 이 경우 분리수거 식별 및 인식이 용이하도록 한다.
- 쓰레기 적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의 곡면처리를 권장한다.



Before



After

간결하고 휴지통 위 쓰레기의 적치가 불가능하도록 디자인



2



1. 휴게시설물과 조화되는 휴지통
2. 간결한 분리수거 휴지통의 예시

재료

- 고풍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권장한다.
- 외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재를 기본으로, 부식성과 내구성에 강한 무광택 도료로 표면을 마감 처리한다.
- 내화성 재질을 사용하고, 오염이 적으며 불법부착물이 붙지 않도록 마감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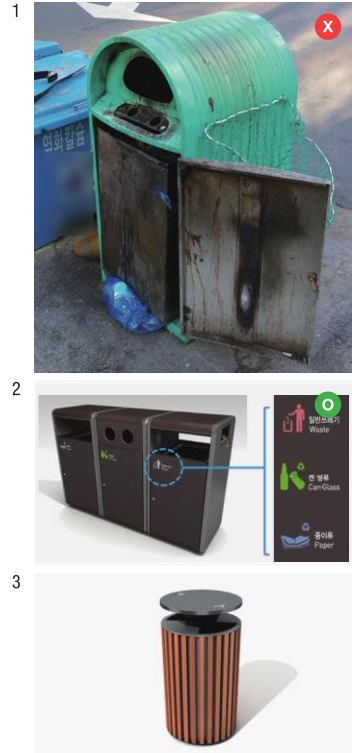
-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 고명도의 사용을 지양한다.
- 뚜껑이 포함된 경우 외부통과 동일한 재료 및 색채를 적용한다.

그래픽요소

- 분리수거의 쉬운 식별을 위해 국가표준픽토그램을 적용한다.

기타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휴지통
2. 국가표준픽토그램을 적용한 휴지통
3.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B11-2 **공중화장실**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못하며, 유지관리 상태가 미흡하다.
-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국가표준픽토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야간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

기본방향

청결하고 아름답게 | 인지가 쉽고 접근하기 쉽게 | 편리하고 아늑하게

행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중화장실의 서비스기능을 충족하도록 함

설치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진입로와 출입구 주변에 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는 경우 남녀 사용자의 동선과 시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출입로를 설계한다.
- 도심미관 확보를 위하여 대로변 설치를 제한한다.
-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CCTV 감시 중'이라는 안내 사인을 함께 부착해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을 권장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Before



After

주변환경과 어울리며
유지관리가 쉬운 디자인



1. 유지관리 상태가 미흡한 공중화장실

형태

- 출입구는 다양한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폭을 최소 800mm 이상 확보해야 하나, 되도록 1,000m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기타 사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출입문 파트 규정에 준한다.
- 출입구 턱이 없도록 디자인한다.
-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한다.
-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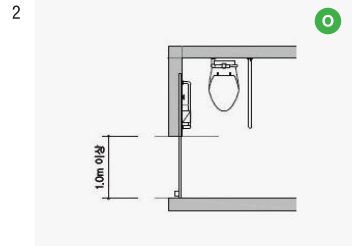
- 실내에는 내습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

재료

-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한다.
- 외부의 과도한 슈퍼그래픽 사용은 지양한다.
- 간결하고 인지하기 쉬운 픽토그램과 안내사인을 활용해 직관적인 동선유도를 권장한다.

기타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간결한 형태의 부스형 공중화장실
 2.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규정
 3. 직관적인 픽토그램 사용

B11-3 음수대

현황 및 문제점

- 주변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과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모서리가 날카로워 상해의 위험이 있다.

기본방향

청결하고 안전하게 |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신체적 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디자인함

형태

- 장식적 요소의 남용을 지양하며,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무릎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모서리가 둥근 형태로 디자인한다.
- 물을 절약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배려하여 센서 등의 자동 잠금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 크기 및 구조 결정 시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참고를 권장한다.

재료

- 주변부 바닥엔 반드시 미끄럼 방지 재료를 사용한다.
- 내부식성이 강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물받이는 물에 의한 표면 훼손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나 석재 소재를 권장한다.

색채

- 재료 자체 색의 활용을 권장한다.

색채

- 청결, 배수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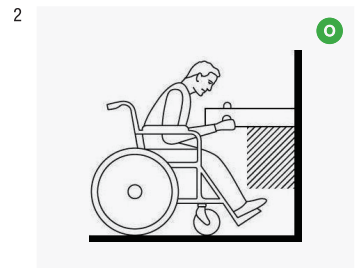


Before



After

모두가 이용하기 쉬운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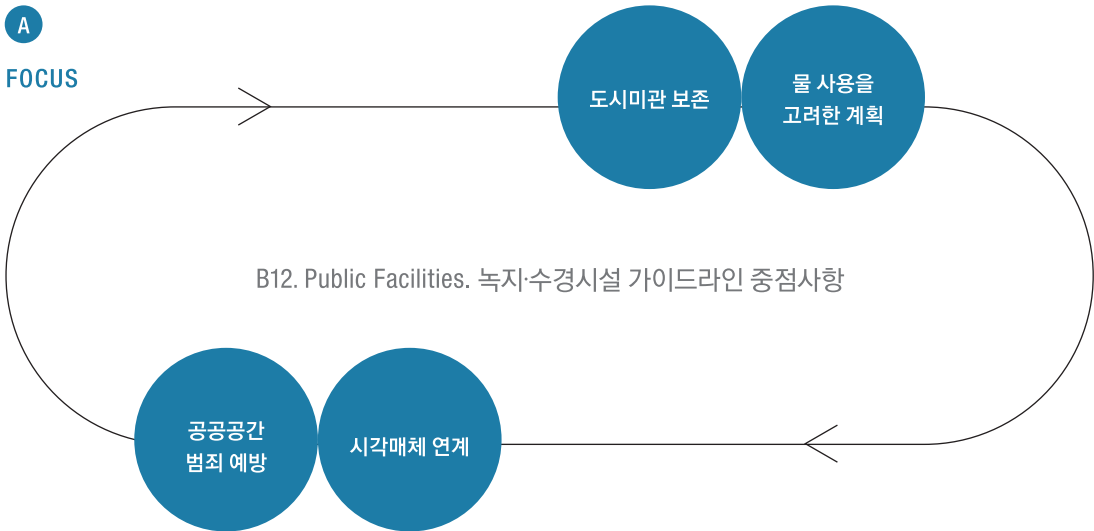


1. 휴게시설물과 조화되는 휴지통
2. 간결한 분리수거 휴지통의 예시
3.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B12 | 녹지·수경시설 가이드라인

녹지 수경시설은 도시공간의 어메니티와 풍경을 향상시키는 시설이다.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규모에 따라 집객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경관적인 측면과 안전 측면을 함께 반영한 세부 디자인 계획이 필요하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설물이 달리 운영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경시설의 경우에는 운영비용을 감안한 현실적인 규모로 시설을 설치하여 방치·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B12-1 가로수 화분대
B12-2 가로수 보호덮개

B13-1 분수대·벽천

- 도시미관 보존 시설물의 설치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한다.
- 계절대비 운영 여름철 수공간 안전사고 예방 및 겨울철 가동중지에 대비한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 자연 친화적 공간조성 녹지조성 및 다양한 식재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 쾌적한 이용 환경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B12-1 가로수 화분대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디자인이 산만하다.
- 자연재료를 인위적으로 모방하여 이질감을 보인다.
- 관할 자치구 등의 명기가 지나치게 두드러진다.
- 필요 이상의 크기로 보행 공간을 침해한다.

기본방향

보행을 방해하지 않게 | 산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인에게 시각적으로 불편하지 않고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 디자인함

설치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디자인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규정에 준한다.

형태

- 물 공급과 재수가 고려된 디자인을 적용한다.
- 자연물을 모방한 형상, 패턴의 사용은 지양한다.

재료

- 플라스틱 등 인공 재료는 지양하고,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목재 사용시 방수, 방부, 방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권장한다.
- 고풍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권장한다.

색채

- 목재 사용시 유색 페인트 도장은 지양한다.
- 단일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그래픽 요소

- 과장된 패턴이나 문자의 남용은 지양한다.

기타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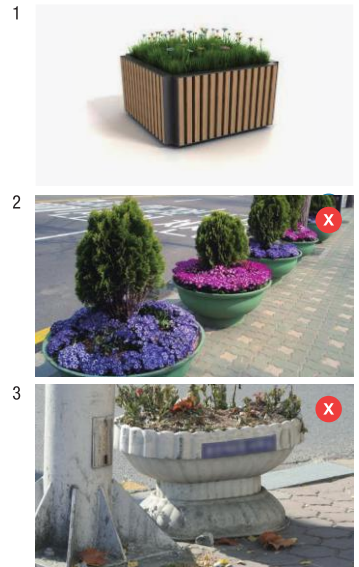


Before



After

과도한 개수로 인한 통행불편을 줄이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적용



1.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2.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단일 색채 사용
3. 장식적인 형태, 지나치게 두드러지는 문자 표기

B12-2 가로수 보호덮개

현황 및 문제점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색채 적용으로 산만한 경관을 조성한다.
- 관리 및 청소가 용이하지 않다.

기본방향

조화롭고 아름답게 | 관리가 쉽고 용이하게

주변 식재환경과 조화롭게 디자인하고
유자 관리가 용이하게 함

설치

- 보도와 높이를 같게 하여 설치한다. 단, 식물의 원활한 뿌리 호흡을 위하여 가로수보호덮개 아래 공간을 확보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2) 규정에 준한다.

형태

- 경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단순화한다.
- 식생을 위한 우수의 유입을 고려하여 타공 등을 적절하게 디자인한다. 단, 이 경우, 여성의 힐이나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 사각형 형태를 권장한다.
- 가로수보호덮개 하부의 청소가 쉬운 디자인을 권장한다.



Before



After

보행로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1. 가로수 아래 공간 확보실패 예시
2.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디자인의 예시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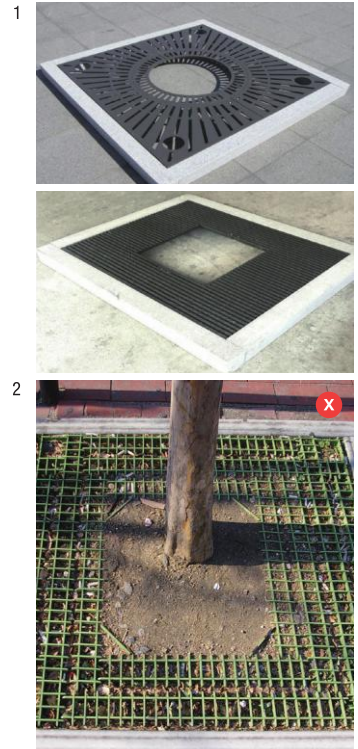
- 플라스틱 등 내구성이 약한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 고풍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며, 철재 사용시 무채색 분체도장을 권장한다.
-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분체도장 전 재료 표면가공 후 2회 이상의 분체도장 처리한다.

색채

- 단일 색채를 사용하며, 무채색 사용을 권장한다.
- 보도블록 등에 조화되는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기타

- 시설 주체, 제작 업체 등의 표기는 지양한다.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2. 제품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색채,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

B13-1 분수대, 벽천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주변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과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모서리가 날카로워 상해의 위험이 있다.

기본방향

청결하고 아름답게 | 접근하기 쉽게

보행로 점유를 최소화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개방적인 공간으로 디자인 함

설치

- 바닥분수와 같이 동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수경공간의 경우 평탄한 지형에 계획한다.
- 웅벽이나 레벨 차이가 심한 곳에는 벽천 등의 활용을 권장한다.
- 바닥분수 설치시 어린이의 발이 끼지 않도록 배수 구멍 크기를 조정한다.
- 수경시설의 보행권 침해를 지양한다.
- 휴게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휴게 공간의 보호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관찰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한다.
- 주변의 야간경관과 조화되는 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형태

- 미작동 시에도 훌륭한 조형적 가치를 지니게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노출과 같은 설비의 노출은 최소화한다.
- 벽천 배관설비의 경우 가능한 굴곡부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 수경시설 설치시 수질관리를 위한 정수여과시설을 반드시 함께 설치한다.
- 벽천 설치시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상부 및 하부수조에 여러가지 형태의 분수노즐을 함께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Before



After

보행로 점유를 최소화하고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



1. 수경설비의 노출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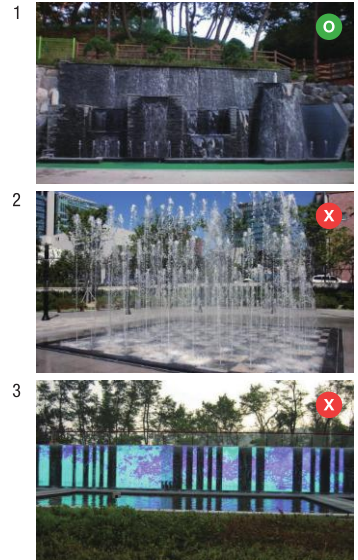
- 수경시설 주변에는 미끄럼을 최소화하는 재료와 마감재를 사용한다.
-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견고한 재료를 사용한다.
- 청각 효과를 위하여 물이 흐르는 부분의 재료 및 마감처리를 다양화할 것을 권장한다.
- 벽천 조성시, 물 접촉면의 재료 및 형태의 다양화로 리듬감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색채

-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한 패턴은 지양한다.
- 동절기 시설 유휴 시에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한다.

기타

- 낙엽이 많이 지는 수종은 배수로로 막을 수 있으므로 수종 선택과 위치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 원색의 과도한 조명 및 음량이 큰 음악기능의 도입은 지양한다.



1.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견고한 재료 사용
2.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한 패턴
3. 과도한 조명기능의 도입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및 목표	194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7원칙	195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203
규정항목 및 관련지침	205
공공시각매체 세부 가이드라인	208

Part C

Public Visual Media Guideline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전달요소에 대한 기능을 향상시키고 도시공간과의 조화 및 통합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시각매체 디자인을 실현하고자 공공시각매체의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7원칙'을 제시한다.

2020 서울 공공디자인. 공공시각매체의 목표



공공시각매체의 목표가 전반적으로 반영되도록 2020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디자인 원칙 및 각 세부지침을 수립하도록 한다.

- 기능 우선** 정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필수정보 표기, 정보 혼란을 줄이는 명료한 디자인
- 모두를 배려** 유니버설(universal)디자인 및 장애 없는(barrier-free) 디자인을 적용
- 시각매체 통합** 시설물 간 연계와 통합을 통하여 시각매체정보 통합 설치
- 표준화 실현** 표준화 계획 적용을 통해 일관된 국가(국제) 표준규격 및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 사용
- 정체성 구현** 서울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서울색과 서울서체를 구현하는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2.



정보표기는 시인성과 가독성 확보를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4.



누구나 이해하고
이용하기 쉽게 디자인한다

6.



국가 또는 국제 표준 픽토그램의
표기 체계를 적용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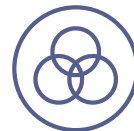
정보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적정 수량으로 설치한다.

3.



지속가능함을 위해 친환경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5.



시각매체가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7.



연계가능한 내용의
시각매체는 통합 설치한다

1

정보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적정수량으로 설치한다

○
권장

- 가장 필요한 정보의 전달을 우선으로 설치
- 주변 환경의 밀집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량으로 설치
- 다른 시설물 또는 구조물과 통합하여 공공시각매체의 점유공간을 최소화
-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



×
지양

- 중복된 설치
- 불필요한 시각매체 설치
- 도시의 필수정보 이외의 시각매체 설치
- 홍보문구 및 슬로건 표기



2

정보표기는 시인성과 가독성 확보를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O
권장

- 목적에 맞는 정보를 명료하게 전달
-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의 색채를 고려한 디자인
- 문자의 서체, 크기, 간격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확보



X
지양

-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표기
- 필요한 정보 외의 표기



3

서울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서체와 서울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
권장

- 문자정보표기 시 서울서체의 적용 및 서울색의 활용
- 서울특별시 정체성과 일관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
- 서울특별시 기준(가이드라인)에 준수한 차지구별 시각매체 설치



×
지양

- 일관되지 않은 글자 크기, 색채 및 형태 등의 사용
- 과한 심벌마크의 사용
- 디자인 컨설팅 및 협의없이 지정된 디자인 및 색채를 임의 변형



4

누구나 이해하고 이용하기 쉽게 디자인한다

○
권장

- 시각언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 다국어 병기 디자인 원칙 준수
-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채 및 픽토그램을 명확하게 표기



×
지양

- 모든 사람의 사용성이 고려되지 않은 시각매체의 설치
- 사용자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시야를 가로막는 시각매체의 설치
- 정보전달의 기능보다 디자인에 치중된 시각매체의 설치



5

시각매체가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
권장

- 금지·안전표지의 시각매체는 표준색채 적용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서울색 사용
- 경사진 장소 등에서도 항상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
- 명판후면 등의 마감처리를 미려하게 하여 안전성을 확보



×
지양

- 강렬한 색채의 사용으로 시각적 혼란을 야기
- 주변의 정보가 가려지거나 방해되는 색채 및 설치
- 교통신호등 주의·안전색채와 동일한 색상의 사용으로 혼란을 야기



6

국가 또는 국제 표준 픽토그램의 표기 체계를 적용한다

○
권장

- 주요 표기요소 픽토그램은 국가 및 국제표준을 적용
- 공통된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공간의 통일성을 확보
- 인지성을 고려한 크기의 픽토그램 적용
- 국가 및 국제 표준 픽토그램의 사용이 어려울 시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 활용



×
지양

- 무분별한 픽토그램의 적용으로 정보전달의 혼선 야기
- 고채도, 고명도의 색을 혼용, 입체형의 픽토그램 사용



7

연계가능한 내용의 시각매체는 통합 설치한다

O
권장

- 각종 안내표지의 통합적 설치를 지향
- 다른 지주시설물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간결하고 일관된 디자인으로 설치
- 최소한의 설치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



X
지양

- 다양한 종류의 안내판 설치
- 형태, 색채의 일관성이 없는 디자인



-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각매체의 정보전달 기능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물리적 기능 및 의장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다. 또한 공공시각매체의 공간상 배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다.
- 2017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 3.0을 기초로하여, 202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한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을 포함하였다.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공공시각매체)	대분류	코드	시설물요소	내용검토	비고	페이지수	
	공공공간	교통관련	C1-1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단속 표지			p 210
		안내표지	C1-2	노면표지			p 211
			C1-3	이정표, 방향, 방향예고 표지			p 212
			C1-4	공공기관, 시설안내표지		심의대상	p 213
			C1-5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	신규개발		p 215
			C1-6	주차안내 : 주차장안내, 표지 등	신규개발	심의대상	p 217
			C1-7	부설주차장 진출입 표시	신규개발	심의대상	p 219
			C1-8	신호기 : 차량용, 보행 신호등			p 221
			C1-9	버스 정류장 표지, 안내도	심의대상에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 정류소 포함		p 222
			C1-10	버스 측면 정보 영역	심의대상에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포함	심의대상	p 224
			C1-11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안내표지	신규개발		p 225
			C1-12	지하철안내표지판		심의대상	p 227
			C1-13	지하철노선, 역사 안내도			p 229
			C1-14	택시 외관	심의대상에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포함	심의대상	p 230
			C1-15	택시 정류장 표지		심의대상	p 231
		C1-16	관용차량,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외관	신규개발	심의대상	p 232	

대분류	코드	시설물요소	내용검토	비고	페이지수
공공공간	보행관련	C2-1	보행자 안내표지, 방향표지		p 233
		시각매체	C2-2	무단횡단금지표지	
	C2-3		도로명판		p 236
	C2-4		건물번호판, 건물번호 안내도		p 237
	C2-5		공원안내표지, 시설안내도		p 239
	C2-6		문화재설명표지판, 기념표석		심의대상 p 241
	C2-7		관광안내소, 매표소 안내		심의대상 p 242
	C2-8		관광안내표지, 안내도	신규개발	심의대상 p 243
	C2-9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p 245
	C2-10	장애인 유도사인, 안내표지	심의대상에 점자블록 포함	p 246	
안전관련	시각매체	C3-1	소방 및 화재예방 시설 안내표지		p 247
		C3-2	하천 안전안내표지	신규	p 249
		C3-3	범죄예방시설 안내표지	신규	p 251
		C3-4	쓰레기 투기 방지 안내	신규	심의대상 p 253
		C3-5	공사장 안내표지	신규	p 254
		C3-6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표지	신규	p 256
영상정보		C4-1	대기오염 전광판, 도로소음 전광판	심의대상에 대기오염 전광판 포함	p 257
		C4-2	교통상황 전광판, 교통사고 전광판		p 258
		C4-3	버스정보 전광판		p 259
		C4-4	디지털 영상매체		p 260
		C4-5	옥외전광판		p 261
공공건축물		C5-1	실내사인 (중합안내표지, 방향유도표지, 시설안내표지시설 이용안내표지, 층수안내표지, 안전표지, 유리안내 시트)	신규	p 264
		C5-2	실외사인 (진출입구 안내표지, 시설안내표지, 보행안내표지, 방향유도표지)	신규	p 266

가이드라인
규정 항목

설치	대상의 설치 여부, 위치, 환경, 크기, 다른 대상과의 관계, 설치 시 유의점 등을 규정한다.
표기요소	대상에 적용되는 요소의 내용과 속성을 규정한다.
색채	대상에 적용되는 색채의 속성을 규정한다.
재료	대상에 사용되는 재료의 속성을 규정한다.
형태	대상에 적용되는 형태의 속성을 규정한다.
기타	상기 이외에 대상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항목의 속성을 규정한다.

관련 가이드라인 및
설계 지침

서울색, 서울서체	서울특별시티투어버스 승차대·정보표시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II (2008. 서울특별시)	관광안내표지판 표준형디자인 (201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III (200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IV (2010. 서울특별시)	문화재안내판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V (20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문화재안내판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VI (201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기념표식 디자인 매뉴얼 (201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VII (201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VIII (201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IX (2016. 서울특별시)	시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 Ver.3 (201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X (2017. 서울특별시)	서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XI (2018. 서울특별시)	비상벨 표준형디자인 제작 및 확산계획 (2017.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XII (201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디자인가이드라인 (201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업무용 차량 디자인가이드라인 (2008. 서울특별시)	
서울해치택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2009. 서울특별시)	

[참고]
시각매체 요소별 관련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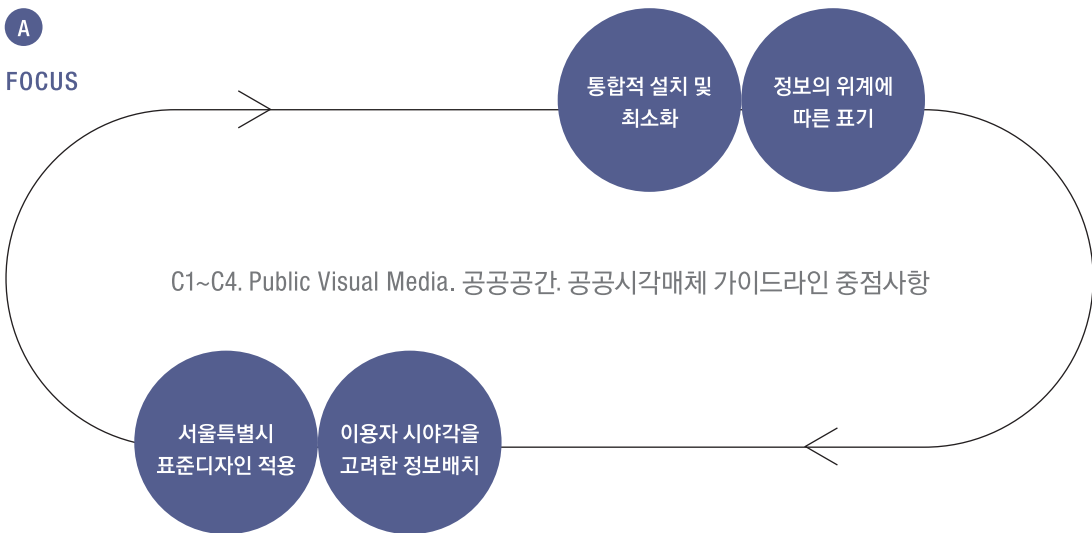
대분류	시각매체 요소	표기요소 등 관련 가이드라인	형태 관련 표준디자인매뉴얼
공공공간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단속 표지 노면표지		
	이정표, 방향, 방향예고 표지		
	공공기관, 시설안내표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Ⅹ (2015. 서울특별시)_ 통합 공공정보안내시스템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시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 Ver.3 (2016. 서울특별시)_표준형 시설안내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_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	비상벨 표준형디자인 제작 및 확산계획 (2017. 서울특별시)
	주차안내: 주차장안내, 표지 등	서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Ⅴ (2011.서울특별시) _거주자우선주차안내판 / 공영주차장안내판
	부설주차장 진출입 표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_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	
	신호기: 차량용, 보행 신호등		
	버스 정류장 표지, 안내도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_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Ⅱ (2008. 서울특별시)_ 마을버스정류장 폴사인 / 공항버스정류장 폴사인 서울특별시티투어버스 승차대·정보표시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1. 서울특별시)_ 시티투어버스정류장 폴사인
	버스측면 정보영역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안내표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_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_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승차대·폴사인 및 안내체계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지하철안내표지판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Ⅳ (2010. 서울특별시)_지하철 출입구개노피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매뉴얼Ⅵ (2012. 서울특별시)_ 지하철역 표지/ 지하철 통합 사인시스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7. 서울특별시)_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사인 (외부폴사인, 외부역명판)
	지하철노선, 역사 안내도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매뉴얼Ⅶ (2012. 서울특별시)_ 지하철통합사인시스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7. 서울특별시)_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사인 (종합안내도, 지하철노선도 등)
	택시 외관	서울해치택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2009. 서울특별시)	
	택시 정류장 표지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Ⅲ (2009. 서울특별시)_택시승차대, 폴사인
	관용차량,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외관	서울특별시 업무용 차량 디자인가이드라인 디자인가이드라인 (2008. 서울특별시)	
보행자 안내표지, 방향표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Ⅹ (2015. 서울특별시)_ 통합 공공정보안내시스템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Ⅹ (2015. 서울특별시)_ 보행자안내표지판	

대분류	시각매체 요소	표기요소 등 관련 가이드라인	형태 관련 표준디자인매뉴얼	
공공공간	무단행단금지표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건물번호 안내도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7. 서울특별시)_ 공공건물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원안내표지, 시설안내도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3. 서울특별시)_ 도시공원안내체계	
	문화재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서울특별시 문화재안내판 표준형디자인매뉴얼 (2014. 서울특별시)_ 문화재안내판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기념표석 디자인 매뉴얼 (2014. 서울특별시)_ 문화재표석	
	관광안내소, 매표소 안내	시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 Ver.3 (2015. 서울특별시)_ 표준형 시설안내표지판	서울특별시티투어버스 승차대_정보표시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1. 서울특별시)_ 시티투어버스 매표소	
	관광안내표지, 안내도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IX (2015. 서울특별시)_ 통합 공공정보안내시스템+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표지판 표준형디자인 (2013. 서울특별시)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자전거도로 노면표지			
	장애인 유도사인, 안내표지	서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8. 서울특별시)_ 소방안전시설물 및 소방안전정보 디자인	
	소방 및 화재예방 시설 안내표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하천 안전안내표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_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2019. 서울 하천 수변공간 안내체계)	
	범죄예방시설 안내표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쓰레기 투기 방지 안내			
	공사장 안내표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_공사용 안전시설물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표지			
	대기오염전광판, 도로소음전광판			
	교통상황전광판, 교통사고 전광판 버스정보전광판			
	디지털 영상매체 옥외전광판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종합안내표지, 시설안내표지, 방향유도표지, 층수안내표지, 안전표지, 유리안내 시트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_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진출입구 안내표지, 시설안내표지, 보행안내표지, 방향유도표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_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매뉴얼IX (2015. 서울특별시)_보행자 안내표지판

C1~C4 |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공공공간에 적용되는 공공시각매체는 공공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시각정보물로서 교통체계 및 보행 안전과 편의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교통 및 보행관련 공공시설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통·도로안전, 주차안내, 버스·지하철·택시 등 교통이용안내, 보행안내 및 환경·안전에 대한 정보 등이 실생활과 밀접하게 제공된다.

이러한 공공시각매체는 현재 지나치게 많은 정보전달요소가 난립되어 과다·중복 설치로 도시 경관 및 사용성, 안전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화되는 시각정보를 일관된 서울특별시 표준디자인체계로 적용하고 다양한 이용자들이 읽기 쉽고 이용하기 쉽게 계획되어야 한다.



통합적 설치 및 최소화

필수적인 정보에 대해 다른 시설물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통합 설치하고 명료한 정보전달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적정크기의 규모로 최소화를 지향한다.

서울특별시 표준디자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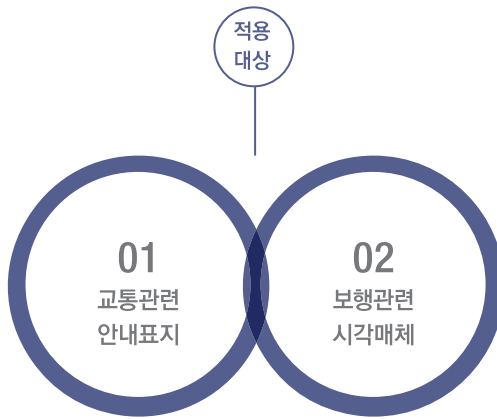
국제(국가)표준 픽토그램을 기반으로 서울색, 서울서체,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 등이 적용된 표준디자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의 위계에 따른 표기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 병기를 원칙으로하며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정보위계를 나누고 글자크기, 간격, 색채, 배치 등을 계획한다.

이용자 시야각을 고려한 정보배치

차량 및 자전거 이용시 또는 보행시 보는 각도에 따라 정보형태의 왜곡을 최소화하며 멀리서도 쉽게 인식되도록 정보 시각화 및 배치를 고려한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1-1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단속 표지 C1-2 노면표지 C1-3 이정표, 방향, 방향예고 표지 C1-4 공공기관, 사설안내표지 C1-5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 C1-6 주차안내 C1-7 부설주차장 진출입 표지 C1-8 신호기 C1-9 버스 정류장 표지, 안내도 C1-10 버스측면정보영역 C1-11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안내표지 C1-12 지하철안내표지판 C1-13 지하철 노선, 역사 안내도 C1-14 택시외관 C1-15 택시 정류장 표지 C1-16 관용차량,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외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2-1 보행자 안내표지, 방향표지 C2-2 무단횡단금지표지 C2-3 도로명판 C2-4 건물번호판, 건물번호 안내도 C2-5 공원안내표지, 시설안내도 C2-6 문화재설명표지판, 기념표석 C2-7 관광안내소, 매표소 안내 C2-8 관광안내표지, 안내도 C2-9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노면표지 C2-10 장애인 유도사인, 안내표지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3-1 소방 및 화재예방시설 안내표지 C3-2 하천 안전안내표지 C3-3 범죄예방시설 안내표지 C3-4 쓰레기 투기 방지 안내 C3-5 공사장 안내표지 C3-6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표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4-1 대기오염, 도로소음 전광판 C4-2 교통상황, 교통사고 전광판 C4-3 버스정보전광판 C4-4 디지털 영상매체 C4-5 옥외전광판 |
|---|---|

C1-1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단속 표지

현황 및 문제점

- 중복 설치된 경우가 있다.
- 다른 표지판이나 가로수에 가려져 있다.
- 표지판 후면 마감처리가 미려하지 않다.
- 크기와 색상 등 일관성 없는 보조표지가 무분별 하게 설치되어 있다.

기본방향

지시정보가 명확하게 | 지장물에 가려지지 않게

운전자가 도로의 안내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설치

- 가로수 및 다른 표지와 일정간격을 유지한다.
- 중복 설치된 표지는 철거하고, 최소 수량을 적정위치에 설치한다.
-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형태

- 표지판 후면의 지주 결합부위 및 마감처리를 미려하게 한다.
- 단속 등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는 표준화된 디자인을 적용한다.
- 규정된 교통안전표지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



Before



After

불필요한 시각매체를 지양하여
명시성 확보



1. 시인성 미흡
2. 동일 표지의 중복 설치
3. 가로지주와 통합 설치 된 표지판

C1-2. 노면표지

현황 및 문제점

- 숫자 및 문자의 크기와 형태에 일관성이 없다.
- 크기가 지나치게 커 가독성이 떨어진다.

기본방향

바닥과 대비가 크게 | 주행자 시선에서 왜곡이 적게

보는 각도를 고려한 노면 표시로 명확한 교통안내정보를 전달

표기요소

- 바닥면과 노면표지가 대비를 이루도록 도로면에 여유를 두고 표기한다.
- 숫자의 너비는 시인성을 고려하여 차로폭의 1/3 이하로 한다.

형태

- 보는 각도에 따른 형태의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한다.
- 원근법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확보한다.

기타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Before



After

노면의 정비로
가독성을 높인 노면표시



1. 목적이 불분명한 노면표지의 남용
2. 원근법 고려 미흡
3. 깔끔한 노면처리

C1-3 이정표, 방향, 방향예고 표지

현황 및 문제점

- 지명과의 연계성이 없고 표기내용상 오류가 있다.
- 과다 설치와 무계획적인 부가표지의 난립으로 도시경관을 훼손한다.
- 바탕색상에 통일성이 없다.
- 문자의 자간 및 행간 설정이 무분별하고, 지명표기가 과다하여 가독성이 저하된다.

기본방향

지시정보가 명확하게 | 지장물에 가려지지 않게

문자, 크기, 간격, 색채를 통일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방향에 맞는 표지 정비

설치

- 중복 설치는 지양한다.
-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표기요소

- 도로명 안내 체계를 적용한다.
- 한글과 영문의 병기를 권장한다.
-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명 및 시설명의 영문 병기는 지양한다.

형태

- 바탕색상은 녹색으로 한다.



Before



After

방향이 통일된 이정표의 정비로 가독성 확보



1. 무질서한 부가표지
2. 과다한 지명표기

C1-4 공공기관, 사설안내표지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과다 설치로 정보전달체계에 혼란을 일으킨다.
- 색상, 서체, 크기가 통일되지 않아 도시경관을 훼손한다.
- 목적과 장소에 따른 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기본방향

표시 정보에 통일성 있게 | 필수 위치에만 통합하여

서울색과 서울서체를 적용한 표준형 디자인의
안내표지 설치로 일관된 정보를 전달

설치

- 각종 기관안내표지는 통합적으로 설치한다.
- 사설안내표지는 보행자용과 운전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 공공기관 등 중요시설의 안내표지는 표준형 사설안내표지판을 사용한다.
- 사설안내판 설치시 '가로등 통합형'을 권장한다.
- 지주시설물이 없는 경우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전용지주형'의 설치를 권장한다.
- 보도의 폭이 1,500mm 이하인 곳은 지주시설물과의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 보도의 폭이 1,500mm 이상인 곳이라도 지주시설물과 연계를 우선으로 하며, 최소한의 설치를 권장한다.
- 표기할 정보와 시인성을 고려하여 크기를 최소화한다.
- 통합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IX> (2015.서울특별시) '공공정보 통합안내 시스템' 규정에 준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Before



After

서울색 기와진회색을 적용한
통합형 안내표지



1. 통일성 없는 공공기관 및 사설안내 표지
2. 표준형 사설안내표지판

표기요소

- 픽토그램은 국제(국가)표준을 적용한다.
- 문자, 화살표 및 거리 등 주요 표기요소는 간단명료하게 표기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한다.
-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명 및 시설명의 영문 병기는 지양한다.
- 장소 표기시 한글은 10자 이내로 요약하며, 거주민 및 내방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 글자의 크기는 이용자로부터 적정 가지거리 내에 읽기 쉬운 크기로 표기한다.
- 거리표시 단위는 기본적으로 미터(m)를 사용한다.
- 1,000m 이상의 경우 킬로미터(km)로 표기한다.
- 다국어 표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색채

- 이정표지, 방향표지, 방향예고표지 등 다른 도로안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는 지양한다.
- 서울특별시에서 권장하는 기와진회색에 흰색의 서체를 사용한다.

기타

- 표준형 사설안내표지판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사설안내표지판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5,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가로등 통합지주형과 전용지주형 설치
 2. 가로등통합지주형 안내표지
 3. 가로등통합지주형 안내표지

C1-5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

현황 및 문제점

- 주변으로부터 시인성 확보가 어렵다.
- 다른 표지판이나 가로수에 가려져 있다.
- 표지판 후면 마감처리가 미려하지 않다.
-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다.

기본방향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게 | 공간인지가 쉽게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들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시점부와 주출입구, 주횡단보도 전방에 노면표시를 한다.
- 차량속도측정기를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안전주의 및 불법주차금지 표지는 시설물에 통합 설치한다.
- 비상벨 및 방향안내표지는 기존 지주에 통합 설치한다.
- 안내표지 설치로 보행 시야를 막지 않는다.
- 학교 통학로 내 은폐구간에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기법을 적용한다.
- 야간에도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조명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 비상벨 설치 관련사항은 <비상벨 표준형디자인 제작 및 확산계획> (2017.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Before



After

색채 정온화 및 안내표지 설치를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확보



1. 차량속도측정 안내표지
2. 야간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태양광 LED 표지판

표기요소

-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에 30km 제한속도를 표기한다.
- 안내표지에는 스쿨존 내 주정차금지, 속도관련 등의 내용을 표기한다.
- 하나의 표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표기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 내의 픽토그램은
<서울특별시 공공안내 그림표지 표준형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형태

-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점에는 가로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를 사용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호구역 내에 안전표지판이 필요한 경우 세로형으로 설치한다.

색채 및 재료

- 어린이보호구역의 바닥 마감재 질감 또는 명도차이를 적용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각매체 및 안내표지에는 황색을 적용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도면은 적색과 녹색 등의 색채와 패턴을 적용한다.
-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미끄럼 방지 바닥포장을 한다.
- 야간 이용을 위해 노면에 고휘도 반사시트 부착을 권장한다.
- 표지판 후면의 지주 결합부위 및 마감처리를 미려하게 한다.



1. 서울특별시 어린이보호구역 픽토그램
2. 통합된 내용의 안내표지판
3. 차량속도저감을 위한 선형의 어린이보호구역

C1-6 주차안내: 주차장안내, 표지 등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표지가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 표지의 크기, 색상, 형태 등이 통일되지 않아 시민 이용에 혼란을 초래한다.
- 주차장이용안내에 표기된 문장이나 단어가 어렵고 복잡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기본방향

차량에서 확인하기 용이하게 | 이용자 구분이 명확하고 쉽게

이용방법 및 전용주차구역의 정보를 표기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조성

설치

- 주차장 위치표지는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 보행자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한다.
- 주차장 입구에 요금 및 전용주차장 안내판의 설치를 권장한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표지는 바닥과 출입통로에 표시하고, 휠체어 활동공간도 표시한다.
- 여성, 임산부, 장애인주차구역은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한다.
- 여성우선주차구역 10% 범위 내에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
-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구획은 일반주차구획보다 800mm이상 확보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Before



After

전용색상 및 픽토그램의 적용으로
시인성 확보

1



1. 주차 후에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표시

표기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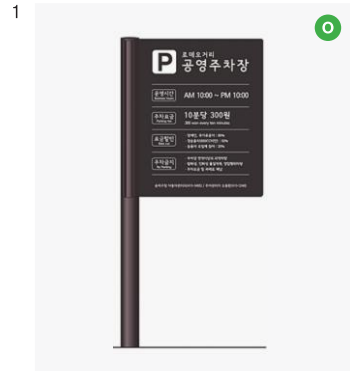
- 차량 운전자가 전용주차구역임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과 색채를 표기한다.
- 픽토그램은 국제(국가)표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 이용안내판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내용을 표기한다.
- 주차장의 로고와 표기명을 강조하여 기재한 후, 주차장의 특징, 운영시간, 주차요금, 담당 연락처 등의 내용을 선별하여 표기한다.
- 안내표지의 문장은 명사형으로 표기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영어)를 병기한다.
- 다국어표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전기차 우선 주차구역의 구획은 녹색바탕에 흰색실선 및 문자로 표시한다.

색채 및 재료

- 주차노면표지는 무광택 재료를 사용한다.
- 주차노면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사도가 높은 재질을 사용한다.
- 전체적으로 일관성있는 색채를 적용한다.
- 상징색채를 적용하여 전용주차구역을 구분한다.
- 여성우선 전용주차장의 색채는 '분홍색(PANTONE 190C)',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보라색',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파랑색 (PANTONE 300C)', 전기차 우선 주차장은 '녹색 (PANTONE 7739C)'을 적용한다.
- 안내판은 서울특별시에서 권장하는 기와진회색에 흰색의 서체를 사용한다.

기타

- 거주자우선주차안내판 등에 관련된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2011. 서울특별시)규정에 준한다.
- 장애인 주차장에 관련된 지침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2016.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1. 표준형 공영주차장안내판
 2. 표준형 거주자 우선주차안내판
 3. 임산부전용주차장
 4. 여성전용주차장

C1-7 부설 주차장 진출입 표지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벽면정보가 차량에 가려져 이용이 불편하다.
- 주차장의 진출입 정보표기가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않는다.

기본방향

진출입 구분이 확실하게 | 안전하도록

진출입구간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함

설치

- 주차장 출입구를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출입구가 함께 있는 경우 두 사인 사이에 일정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입구 혹은 출구의 차선이 2차선일 경우 한 개의 안내표지를 중앙에 배치한다.
- 출입구 규격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한다.
- 출구사인은 출구와 인접한 코너 및 갈림길 등의 벽면에 설치한다.
- 출구사인 설치시 출구가 주차장의 중앙에 있거나 벽면 공간이 부족한 경우 달대 사인으로 대체 설치한다.
- 주차구역이 있는 벽면에는 출구 사인을 배치하지 않는다.



Before



After

벽면을 활용하여
주차장 진출입 표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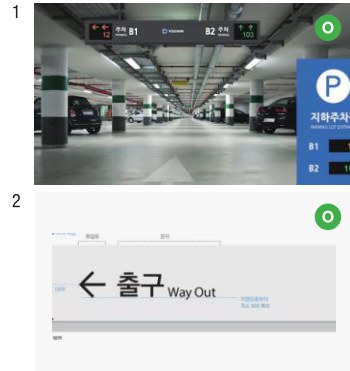
1. 통일되지 않은 서체와 픽토그램
2. 주차장진출입구

표기요소

- 문자, 화살표 및 거리 등 주요 표기요소는 간단명료하게 표기한다.
- 명칭 표기시 한 줄로 표기한다.
- 사인의 가로폭이 작거나 주차장명이 긴 경우(6자 이상) 시간을 축소하는 것을 권장한다.
- 차량 입구 사인은 제한 높이를 좌측 정렬하며, 입구 표시를 중앙 정렬한다.
- 차량 출구사인은 진입금지 방향표시와 출구표시를 하나의 사인으로 취급하여 정중앙에 배치한다.
- 외부 출입구는 주차장 심벌, 공영주차장, 주차장명, 관리기관 로고를 표기한다.
- 달대형 화살표는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2016. 서울특별시)에서 규정한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의 공공시설 그림표지 화살표를 사용한다.
- 아래 방향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색채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에 사용되는 색, 문자, 기호, 픽토그램의 표기는 상황에 따라 흑색 또는 백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1. 주차장 방향 달대표지
2. 벽면 출구유도사인

C1-8 신호기: 차량용, 보행 신호등

현황 및 문제점

- 1~2차로에는 차로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차량용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 보행 신호등의 경우 신호 대기시간을 인지하기 어렵다.
- 보행 신호등이 지나치게 크다.

기본방향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 신호바뀔을 알기 쉽게

주변의 지주와 통합 설치하여
정돈된 가로를 조성함

설치

-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크기를 최소화한다.
- 차량용 및 보행용신호등은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 차량 정차 시 안전거리 확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규정에 준한다.

표기요소

- 보행 신호등에는 잔여 횡단시간 표시를 권장한다.



Before



After

통합형 신호등 설치로
점유면적 최소화



1. 차량용신호등 및 통제기기 등의
과다 설치로 운전 환경 방해 및 도시 미관 훼손
2. 잔여횡단시간 표시 예시

C1-9 버스 정류장 표지, 안내도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버스(지선, 간선, 순환, 광역, 마을, 시티투어)의 정류장 표지가 일관성 없이 다양한 형태, 크기, 색채로 설치되어 혼란을 일으킨다.
- 노선도에 표시된 버스 진행방향과 실제 도로상 버스 진행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본방향

보행을 방해하지 않게 | 노선정보 파악이 쉽게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전용버스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설치

- 버스노선 안내도는 지면으로부터 1,500mm내외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주형 안내표지만 설치할시 승하차 지점에서 1,000mm 이내에 설치한다.
- 보행로의 폭 넓이에 따라 버스정류장 설치의 규모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설치 관련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Before



After

각 버스 유형별 전용색채 및
픽토그램을 적용



1. 일관성이 결여된 다양한 형태와 크기, 색채

표기요소

- 보행자가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색채 및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 교통 환승이 가능한 곳에는 환승정보를 표기한다.
- 주요 환승가능 정류장 표기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 가독성을 고려하여 문자의 서체, 크기, 간격을 고려한다.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선을 명확하게 표기한다.
- 노선안내도에서 동일 구간 왕복 표시는 지양한다.
- 버스 정류장 표지에는 현재 위치의 정류장 명을 크게 표기한다.
- 버스정류장 전후의 정류장 명은 작게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 각종 버스 시설물의 픽토그램은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 매뉴얼 가이드라인> (2016.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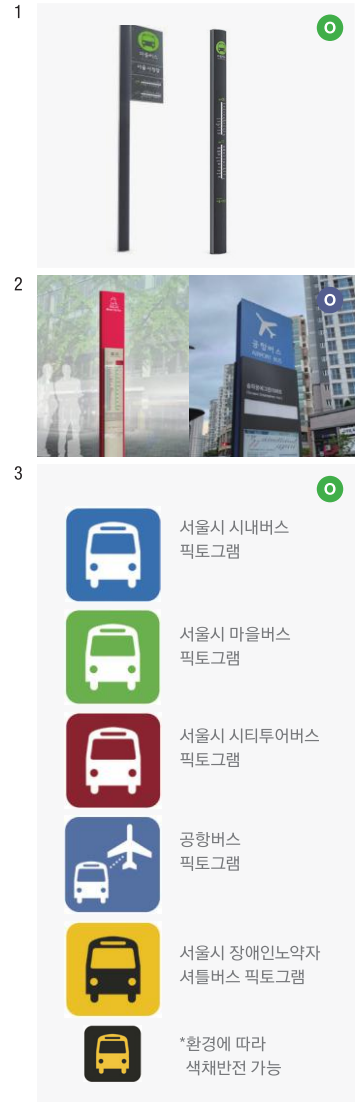
- 노선도와 실제 도로의 차량 진행방향을 일치시킨다.
- 보도의 폭에 따라 안내표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 마을버스 및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의 정류장표지는 각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 기준에 준한다.
- 마을버스정류장 폴사인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II> (2008.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폴사인'을, 공항버스정류장 폴사인은 공항버스 운영사가 서울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통과한 표준형디자인을, 시티투어버스정류장 폴사인은 <서울특별시티투어버스 승차대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0.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색채

- 각종 버스(간선, 지선, 순환, 광역)의 시각적 구분을 위해 버스유형별 색상을 달리 적용한다.
- 각종 버스시설물의 대표색상은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 매뉴얼 가이드라인> (2016.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기타

- 각종 버스정류장 쉼터 및 폴사인, 표기정보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1. 표준형 마을버스 폴사인
2. 표준형 시티투어 및 공항버스 폴사인
3.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 버스유형별 픽토그램 및 색상

C1-10 버스 측면 정보 영역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상업광고가 차지하는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운행정보전달체계가 미흡하다.

기본방향

노선정보 파악이 쉽게 | 상업적 활용을 최소화하여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전용버스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표기요소

- 인도 방향 버스측면에는 노선도를 표시한다.
- 시티투어버스의 외관 디자인은 단순화하며, 관련 색채를 적용한다.
- 버스 측면의 상업광고는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 광고 설치 기준은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향후 버스 디자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Before



After

상업화된 광고를 지양하여
단순화 한 버스외관 디자인



1. 현란한 문양, 지나치게 큰 상업광고

C1-11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안내표지

현황 및 문제점

- 다른 버스시설물과 근접하게 설치하여 구분하기 어렵다.
- 작은 글씨, 불친절한 표기로 이해하기 어렵다.

기본방향

누구든 이해할 수 있게 |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설치

- 보도폭에 따라 승차대 또는 폴사인을 설치한다.
- 보도폭이 2,000mm 이상일 경우에는 승차대를 설치한다.
- 보도폭이 2,000mm 이하일 경우에는 폴사인을 설치한다.
- 보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를 고려하여 승차대 및 폴사인을 설치한다.
- 승차대 및 폴사인 설치 시 주변 보행로에 방향전환의 점자블록과 승하차 구간의 유도블록을 함께 설치한다.
- 폴사인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안내기를 함께 설치한다.
- 노면에 휠체어 승하차구간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한다.



Before



After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통일성 부여

1



1.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 폴사인과 승차대

형태

- 기본 휴먼스케일과 휠체어 이용자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승차대와 함께 연계가능한 시설물을 통합한다.
- 승차대에 편의를 고려한 보조손잡이와 고정형벤치를 설치한다.
- 승차대 및 폴사인은 표준형디자인 시설물을 사용한다.
-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관련 지침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2016.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표기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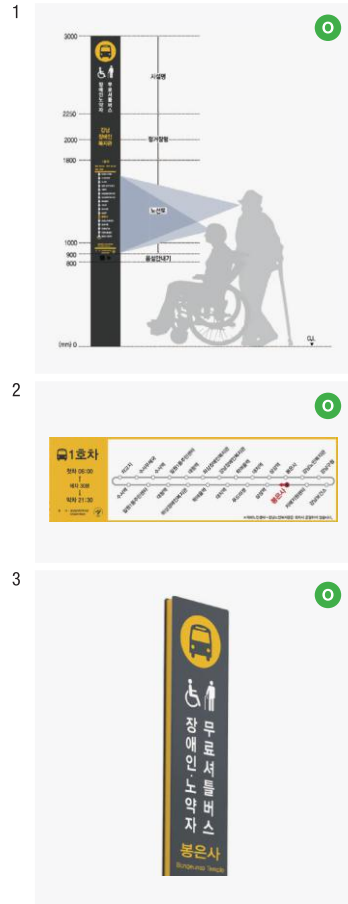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선을 명확하게 표기한다.
- 승차장 표지에는 현재 위치의 정류장 이름을 크고, 돋보이게 표기한다.
- 승차장 전 후의 정류장 명은 비교적 작게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 약시자를 배려해 글씨크기를 고려하여 표기한다.
- 폴사인에는 정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시설명, 정거장명, 노선도, 음성안내기 순으로 표기한다.
- 약시자를 배려한 인포그래픽을 사용한다.
- 시각매체에 사용되는 픽토그램은 <서울특별시 공공안내 그림표지> (2016.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색채

- 색각이상자, 저시력자, 고령자를 위해 명시성이 높은 대비색채를 사용한다.
- 폴사인 측부에는 서울색과 강조색을 배색하여 적용한다.
- 서울의 지역색 및 대표색을 적용한다.

기타

-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안내표지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2016.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폴사인 세부표기요소
 2. 무료버스 노선 디자인
 3. 측부의 컬러배색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

C1-12 지하철 안내표지판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주목성이 낮아 시선을 끌지 못한다.
- 형태와 마크가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킨다.
- 인근 시설물, 광고물, 가로수 등의 간섭으로 인지도가 떨어진다.

기본방향

노선과 현위치 파악이 명확하게 | 누구나 정보인지가 쉽게

통일된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여, 어디에서든 지하철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설치

- 지하철심볼 사인은 폴사인으로 통합하고, 별도 설치는 지양한다.
- 지주와 접하는 부분은 정교하게 마감하여 설치한다.
- 주변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타 설치 관련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형태

- 어느 방향에서든 역 표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방이 면처리된 형태를 적용한다.
-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폴사인은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의 사용을 권장한다.



Before



After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 지하철역 표지



1. 형태와 마크가 통일되지 않아 시각적 혼란을 초래

표기요소

- 지하철심볼사인, 노선번호, 역명, 출구번호를 표기하며, 그 외의 표기는 지양한다.
- 역 내의 모든 표지가 일관성을 갖도록 마크, 색상을 통일시킨다.
- 문자의 서체, 크기, 간격을 고려한다.
- 전용서체인 서울남산체를 사용한다.

색채

- 무채색을 기본으로 노선별 색상을 강조색으로 사용한다.
- 노선별 전용색채를 다르게 적용한다.
- 픽토그램 및 출구번호에 황색계열의 색채를 적용한다.

기타

- 지하철출입구캐노피 및 정보 표기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및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Ⅳ> (2010. 서울특별시) '지하철출입구캐노피' 규정에 준한다.
- 지하철역 표지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7. 서울특별시) '지하철 통합 사인시스템' 규정에 준한다.



1. 어느 방향에서든 인지할 수 있는 폴사인

C1-13 지하철노선, 역사 안내도

현황 및 문제점

- 지하철 노선안내도의 형태가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준다.
- 노선의 증가에 따라 노선안내도와 종합 안내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노선별 색채 분별이 어려워져 가독성이 떨어진다.

기본방향

이동경로 파악이 쉽게 | 누구나 정보인지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노선을 정돈하며, 동일한 디자인의 시각정보안내도를 적용해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함

설치

- 각 역마다 동일한 시각정보안내도를 적용한다.
- 지하철 노선에 대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주요 동선에 설치한다.
- 안내도 설치시, 점자 병기 및 음성안내장치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표기요소

- 가독성과 사용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어를 병기한다.
- 다국어표기에 관한사항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주변시설정보와 역사 내 편의시설 정보를 포함하여 표기한다.

기타

- 기타 세부 사항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7. 서울특별시) '지하철 통합 사인시스템' 규정에 준한다.



Before



After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통합형 종합안내도



1. 표준형 지하철역 종합안내도

C1-14 택시 외관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택시와 일반 승용차의 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등 택시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 차량에 운행 주체, 광고물 등이 혼잡스럽게 표시된다.
- 캡의 형태, 픽토그램, 색채 등에 일관성이 없다.
-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픽토그램, 글자, 색채가 사용된다.

기본방향

운행정보 파악이 쉽게 |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서울특별시만의 정체성 확보

표기요소

- 택시 캡의 픽토그램, 형태, 색채, 서체 등의 통일을 권장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어를 병기한다.

색채

- 택시 외관 전반(색채, 로고, 서체 등)에 대해서는 <서울해치택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2009.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기타

- 향후 그외 택시 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자인을 선정한다.



Before



After

서울특별시 택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 외관



1. 일반 승용차와 구분이 쉽지않은 택시 외관
2. 서울해치택시 디자인
3. 해치 픽토그램 택시 캡을 적용한 모습

C1-15 택시 정류장 표지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픽토그램, 글자, 색채가 사용된다.

기본방향

차량, 사람 모두 멀리서 인지하기 쉽게 | 도시환경과 어울리게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서울특별시만의 정체성 확보

설치

- 설치 관련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표기요소

- 명시성 높은 배색의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 픽토그램은 국제(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한다.
- 택시정류장 쉼터의 형태, 색채, 부착물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Ⅲ> (2009. 서울특별시) '택시승차대 폴사인' 규정에 준한다.
- 광고 위치 등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2015.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Before



After

서울특별시 택시
 표준형 디자인의 적용



1. 표준형 택시정류장 폴사인

C1-16 관용차량,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외관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일반차량과 관용차의 색상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픽토그램, 글자 색채가 사용된다.

기본방향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 | 차량의 목적 파악이 쉽게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서울특별시만의 정체성 확보

표기요소

- 서울남산체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 국·영문 병기하며 좌측, 우측, 중앙정렬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 기타 친환경 차량표시는 친환경 차량 종류에 따라 표기를 달리하여 적용한다.
- 단속차량 우측 리어뷰 미러의 시작점에 맞추어 단속목적 표기 글자가 시작되도록 한다.
- 서울 브랜드 표기의 가로폭은 차량 전면의 램프를 제외한 영역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며 세로폭은 앞유리와 범퍼를 제외한 영역 1/4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서울특별시 표기는 좌측의 차량 모델명의 위치와 대칭을 이루도록 한다.

색채

- 업무용차량 및 수상운송수단의 용도별 색상을 적용한다.
- 색채는 단색을 적용한다.
- 서울대표 10색 중 선정하여 사용하며 시각적 보정을 할 수 있다.
- 보조색의 경우 서울지역 50색 중 선정하여 사용한다.
- 다목적 차량의 경우 '단청빨강색'을 적용한다.(PANTONE 187C)
- 단속용 차량의 경우 '서울 하늘색'을 적용한다.(PANTONE 285C)
- 수상택시의 경우 '꽃담 황토색'을 적용한다.(PANTONE 7415C)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업무용차량 디자인 매뉴얼> (2008. 서울특별시)규정에 준한다.



Before



After

서울특별시 택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 외관



1. 서울특별시 업무용차량 표준디자인
2. 서울특별시 수상택시 표준디자인

C2-1 보행자 안내표지, 방향표지

현황 및 문제점

- 자치구별 설치로 인하여 크기, 색채, 형태의 통일성이 없다.
- 교통안전표지와 동일 색채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 지나치게 큰 규모와 무분별한 장식으로 도시경관을 훼손한다.

기본방향

누구나 정보를 읽기 쉽게 | 보행을 방해하지 않게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위치 및 방향의 정보를 전달

설치

-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자와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높이와 크기를 결정한다.
- 방향안내표지는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 보도폭이 충분할 경우 보행방향과 표지면을 직각이 되게 설치한다.
- 기존 안내사인에서 신규 그래픽 정보면 시트를 부착하여 개선한다.
- 통합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5. 서울특별시) '공공정보 통합안내 시스템' 규정에 준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에 준한다.

표기요소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한다.
- 화살표 방향에 따라 전체정렬로 표기한다.
- 화살표의 방향이 왼쪽방향이면 좌정렬, 오른쪽 방향이면 우정렬로 배치한다.
- 다국어표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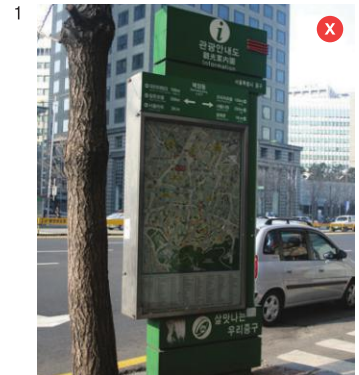


Before



After

방향과 위치정보를 전달해주는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의 통합형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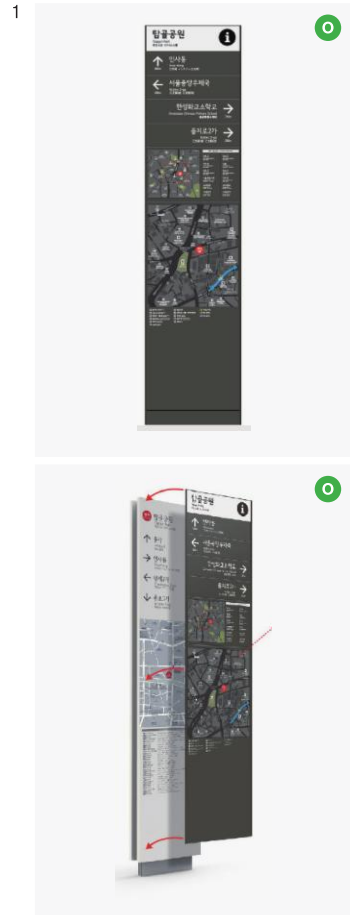
1.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색채 및 형태
2. 방향에 따른 정렬표기

색채

- 바탕색과 서체의 색상이 서로 대비되도록 한다.
- 서울특별시의 정체성을 담아 서울 대표색(기와진회색)을 적용한다.
- 바탕색이 흰색일 경우 검정색의 서체를 사용하며, 바탕색이 기와진회색일 경우 흰색의 서체를 사용한다.

기타

-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IX>
(2015. 서울특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 규정에 준한다.



1. 표준형 보행안내표지판과 부착방식의 교체방법

C2-2 무단횡단 금지표지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치게 큰 규모와 무질서한 형태로 도시경관을 훼손한다.
- 주목성이 지나치게 강한 색채로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기본방향

필수적 위치에 |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

독립적인 설치는 지양하며,
시설물과 결합하여 정보를 전달

설치

- 무단횡단금지표지의 설치는 지양한다.
-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채색 계열의 시설물과 최소화된 정보전달 요소를 결합하여 설치한다.
- 장식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정보전달이 우선시 되도록 설치한다.



Before



After

무채색 적용 및 시설물과
통합 설치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제공



1. 형태가 무질서하고 색채의 주목성이 지나치게 강한 예시

C2-3 도로명판

현황 및 문제점

- 표기요소, 색채, 형태, 설치 방법 등에 일관성이 없다.
- 용도가 모호하고, 실질적인 길안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방향

가독성이 우수하도록 | 통일된 정보체계로

통일된 도로명판을 사용하여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설치

-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 통합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 벽면에 설치한다.
- 지주와의 결합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미려하게 마감처리한다.
- 도로명판은 차량용과 보행자용으로 분리하여 설치한다.
- 차량용 도로명판은 교차로에 한정하여 설치한다.
- 야간에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반사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표기요소 및 색채

- 지자체 상징로고 및 픽토그램의 부가내용은 표기하지 않는다.
- 문자의 서체, 크기, 간격을 고려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한다.
- 다국어표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바탕색은 청색(PANTONE 294C)으로 한다.
- 부분적으로 녹색(PANTONE 355C)을 사용할 수 있다.



Before



After

서체 및 색채가 통일된
도로명판



1. 일관성 없는 도로명판
2. 야간에도 인지할 수 있는 반사소재 도로명판
3. 통일된 도로명판 디자인의 예시

C2-4 건물번호판, 건물번호 안내도

현황 및 문제점

- 자치구별 상징물을 디자인에 도입하여 통일성이 없다.
- 같은 지역 내에서도 건물번호판의 색채, 서체, 형태에 일관성이 없다.
- 디자인이 복잡하고 조잡한 건물번호안내도 설치로 인하여 보행 환경과 도시경관을 훼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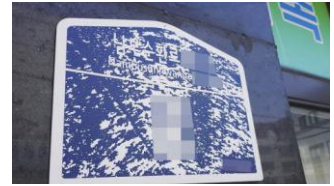
기본방향

필수적 위치에 | 건물 외관과 어울리도록

필요한 정보만 표기하며,
건물의 번호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함

설치

- 건물번호안내도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 외부에서 인식이 잘 되는 진입부에 설치한다.
- 건물번호판의 상부 부착은 지양하며, 부착이 필요할시 건물 높이 3층 이하 위치에 설치한다.
- 출입구 및 주출입구 담장에 부착할시 지면으로부터 1,800mm에 설치한다.
- 건물 출입문 측면 우측에 설치한다.
- 건물 출입구와 주출입구 담장 중 1개소만 설치하며, 중복설치는 지양한다.
- 건물번호판은 접착제 및 PIN으로 부착한다.



Before



After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는 규모의
자율형 건물번호표지판



1. 형태와 색채가 장식적인 건물번호안내도

표기요소

- 상징물이나 특징 등을 복잡하고 조잡하게 적용한 디자인은 지양한다.
- 건물번호판의 불필요한 표기는 지양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영어)를 병기한다.
- 한글 도로명은 띄어쓰기 없이 붙여쓰며, 영문 도로명은 띄어서 표기한다.
- 건물번호판의 한글과 영문은 상하배치한다.
- 다국어표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색채

-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건축물 마감의 명도에 따라 적용 색채를 지정한다.
- 건축물 마감의 명도가 0~50%일 경우, Black 또는 기화진회색을 적용하며, 50~100%일 경우, White 또는 한강은백색을 적용한다.
- 별도의 채색은 하지 않는다.

형태

-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구 단위 내 공공건물은 동일한 타입의 건물번호판을 적용한다.
- 모서리에 부착시 건물의 정면과 측면이 이어진 형태의 건물번호판 적용을 권장한다.

기타

-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2013.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2017. 서울특별시) '공공건물자율형 건물번호판' 규정에 준한다.



1. 명도에 따른 건물표지판
2. 자율형 건물표지판 표준형 디자인

C2-5 공원안내표지, 시설안내도

현황 및 문제점

- 형태와 재료 및 색채가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
- 이용자의 시각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기본방향

자연, 설치환경과 조화롭게 | 공간정보 파악이 쉽게

각 공원별 표준형 디자인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통일성 확보

설치

-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크기로 설치한다.
- 공유유도 시각매체는 공원주변도로 녹지대 및 시설물 구역에 설치한다.
- 식재 및 수목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 공원 규모에 따라 크기의 차이를 두어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자연공원, 근린공원과 같은 큰 규모의 공원에는
최대 2,400~3,600mm 높이의 공원명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중규모의 근린공원에는 최대 1,800mm 높이의 공원명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야간시 시야확보를 위해 조명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 한강공원 안내판은 한강으로 접근하는 보행로 시설물 구간에 설치한다.
- 한강공원의 각 구간에는 동일한 안내표지를 적용한다.
-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공원융합안내표지는 공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등
소규모 공원을 제외한 모든 공원 주진입로에 설치를 권장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규정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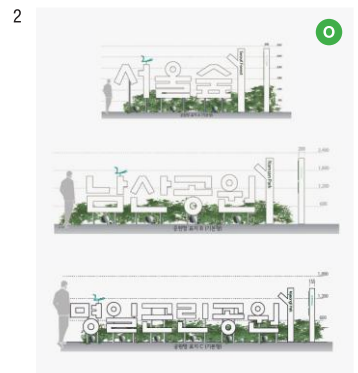


Before



After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룬
표준형 디자인의 안내판



1. 과장된 디자인과 색채, 사용자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시야를 가로막는 안내도
2. 표준형 도시공원안내체계

표기요소

- 원명, 공원까지의 거리, 방향표시를 함께 표기한다.
- 글자 수가 범위 이상 초과할 경우, 서체의 크기 및 자간을 부분적으로 조절한다.
- 한강공원 풀사인 안내표지의 한글은 세로형으로 표기하며, 영문은 가로수직형으로 표기한다.
- 도시공원 유도표지는 공원명은 좌측정렬, 화살표는 우측정렬하여 표기한다.
- 불필요한 상징표기는 지양한다.
- 픽토그램은 국제(국가)표준을 적용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한다.
- 다국어표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표기요소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Ⅶ> (201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안내체계' 규정에 준한다.

색채 및 재료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 보행자가 안내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도 대비를 활용한다.
- 도시공원 유도표지는 목재를 사용하며, 공원명은 스테인리스 강판의 사용을 권장한다.
- 한강공원 풀사인 안내표지는 서울특별시의 정체성을 담아 서울 대표색(기와진회색)을 적용하며, 흰색의 서체를 사용한다.
- 공원안내 심볼은 서울 공원의 상징색인 녹색을 적용한다.
- 배경색을 고려하여 서체 및 픽토그램은 공원색을 적용한다.

기타

- 공원안내표지와 공원시설안내도의 정체성,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Ⅶ> (201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안내체계' 규정에 준한다.



1. 표준형 도시공원안내체계
2. 한강공원 안내표지

C2-6 문화재설명표지판, 기념표석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재와 안내판이 조화되지 않는다.
- 지나치게 많은 정보량과 일관성 없는 형태로 시인성이 떨어진다.
- 표석의 위치와 크기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기본방향

문화재와 시각적으로 어울리게 | 관람을 방해하지 않게

문화재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설치

- 문화재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관광객의 이동 시작점, 도착점, 주요분기점에 설치한다.
- 근접한 위치에 중복설치 되지 않도록 한다.

표기요소

- 가독성을 고려하여 문자의 서체, 크기, 간격을 결정한다.
- 안내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도대비를 활용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어를 병기한다.
- 다국어표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기타

-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재안내판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안내판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4. 서울특별시)을, 문화재표석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기념 표석 디자인 매뉴얼> (2014.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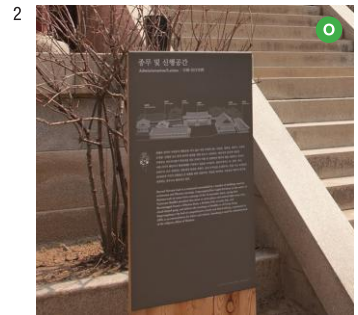


Before



After

기와진화색을 적용한 표준형디자인의
문화재 안내판



1. 역사문화유적 기념 표석 표준형 디자인
2. 문화재 안내판 표준형디자인

C2-7 관광안내소, 매표소 안내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디자인과 색채가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
- 지나치게 많은 정보량으로 혼란을 일으킨다.

기본방향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 간결한 정보로

한눈에 인지할 수 있는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설치

- 관광안내소의 안내판에는 관광안내소 픽토그램과 거리정보만 표기한다.
- 기타 표기요소에 관해서는 <사설안내표지판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5.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색채 및 형태

- 관광안내소 디자인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형태와 색채를 적용한다.
- 시티투어버스 매표소 디자인은 <서울특별시시티투어버스 승차대 특화디자인> (2011.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기타

- 관광안내소 디자인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르고, 설치에 앞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Before



After

서울색을 적용한 깔끔한
외형의 관광안내소



1. 일관성 결여, 지나치게 많은 정보량
2. 서울특별시시티투어버스 매표소 특화디자인

C2-8 관광안내표지, 안내도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크기의 일관성이 없다.
- 형태와 색상이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

기본방향

공간정보 파악이 쉽게 | 정보변경이 쉽게

방향안내와 지도가 결합된
표준형 디자인 안내표지 적용

설치

- 관광안내도는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관광안내표지 및 안내도는 도로진행방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주변 광고물 및 사인과 충돌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재료

- 변경된 노선도는 기존 관광안내표지에 신규 그래픽 정보면을 시트로 부착하여 교체한다.
- 서울특별시티버스 노선도는 시트지 부착방식을 적용한다.



Before



After

표준화된 안내판을 사용하여
관광안내판의 실효성 및 체계성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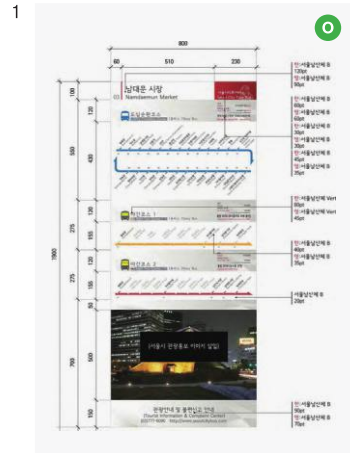
1. 보행용 가로막는 설치
2.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형태와 색채

표기요소

- 관광지도 내 주요 공공정보 명칭을 표기한다.
- 현위치명 및 목적지명은 4개국어(한,영,중,일)를 좌정렬 표기한다.
- 관광지에 대한 정보표기로 홍보효과, 정보전달 효과를 높일 것을 권장한다.
- 안내픽토그램은 우정렬을 원칙으로 한다.
- 화살표 방향을 따라 정렬한다.
- 노선 정보도는 노선 정보 외 각 승차장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표기한다.
- 시티투어버스의 노선정보 표기시 코스별 노선 색채는 유지한다.
- 1층·2층 버스의 용도는 픽토그램으로 구분한다.
- 표기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내용 교체가 가능한 방식의 디자인을 사용한다.
- 표기요소에 관해서는 <관광안내표지판 표준형디자인> (2013. 서울특별시)규정에 준한다.

형태 및 색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하며 지나친 장식 및 상징표현은 지양한다.
- 노선도 부착시 돌출형 배치방식을 권장한다.
- 외부 오염의 위험이 있는 하단부까지 노선도를 연장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 시티투어 승차대 폴사인 색채는 단청빨강색을 적용하여, 시티투어버스 외장 주조색과의 일관성을 부여한다.
- 알루미늄 도장 위 흰색 반사시트 'C'를 부착해 야간의 시인성을 높일 것을 권장한다.
- 형태 및 색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관광안내판은 <관광안내표지판 표준형디자인> (2013.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통합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IX> (2015. 서울특별시) '공공정보 통합안내 시스템' 규정에 준한다.



1. 서울특별시 시티투어버스 승차대 노선도 예시
 2. 서울특별시 표준형 관광안내표지판
 3. 서울특별시 시티투어버스 폴사인

C2-9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노면표지

현황 및 문제점

- 지주형으로 세워져 사고 위험이 있고 동선을 방해한다.
- 좁은 보도에 무리하게 설치한 사례가 많다.
- 노면표지의 경우 세로 방향으로 표기되어 혼란을 일으킨다.

기본방향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 안전하도록

픽토그램 위주의 안내표지 설치로

자전거 통행시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설치

- 안내표지는 독립지주형 표지의 설치는 지양한다.
- 자전거도로 노면표지와와의 중복 설치는 제한한다.
- 노면표지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행방향의 직각으로 표기한다.

기타

- 기타 사항은 도로 노면표지 관련 규정을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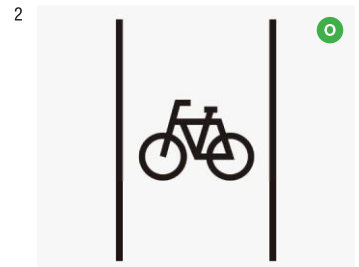


Before



After

자전거 도로를 방해하지 않는
통합형 자전거 안내표지판



1. 세로방향 표기로 혼란스러움
2. 자전거 노면의 올바른 표기

C2-10 장애인 유도사인, 안내표지

현황 및 문제점

- 지주형으로 세워져 사고 위험이 있고 동선을 방해한다.
- 좁은 보도에 무리하게 설치한 사례가 많다.
- 노면표지의 경우 세로 방향으로 표기되어 혼란을 일으킨다.

기본방향

정보요소 인지가 쉽도록 |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게

연속적인 유도사인의 설치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함

설치

- 점자블록은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보도면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한다.
- 점자블록과 휠체어 통행로를 분리하여 설치한다.
- 횡단보도에 보도와 연결된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단, 대로는 예외로 한다.
- 선형블록 좌우 900mm내에는 보행장애물이 없도록한다.
- 선형블록 좌우에 900mm의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최소 1,200mm폭의 보행안전통로 설치를 권장한다.
- 주위환경용 점형블록은 방향전환지점, 위험물 주변, 계단, 경사로 등의 시작과 끝지점, 승강기 조작판 전면 등에 설치한다.
- 문자, 점자, 자동음향신호기 등의 조합설치를 권장한다.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및 <서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Before



After

볼라드 등의 시설물에도
점자블록의 연속성을 유지



1. 색채를 인지할 수 없는 점자블록
2. 시각장애인용 촉지 볼라드

C3-1 소방 및 화재예방 시설 안내표지

현황 및 문제점

- 시인성 및 인지성이 낮다.
- 사용방법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 정보위계 및 그래픽의 통일성이 부족하다.
- 화재시 대피경로 확보를 위한 유도사인이 미비하다.

기본방향

안전정보를 쉽게 인지하도록 |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색채와 이해하기 쉬운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비상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설치

- 소방 및 화재예방 시설물을 쉽게 인지하도록 벽면 및 노면표지를 함께 사용한다.
- 주변에 의해 방해되지 않도록 적지금지 공간을 확보한다.
-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 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형태

- 소방시설 주변에 부착하는 형태로 설치한다.
- 매입형 소화기 및 소화전의 경우 벽면안내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 비상구 유도사인은 바닥면 사인 및 대형 유도사인을 사용한다.
- 출구를 쉽게 인지하도록 벽면을 활용한 대형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 야간의 시야 및 경로를 확보하도록 조명사인을 함께 설치한다.
- 소방 및 화재예방 표준형 디자인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2018.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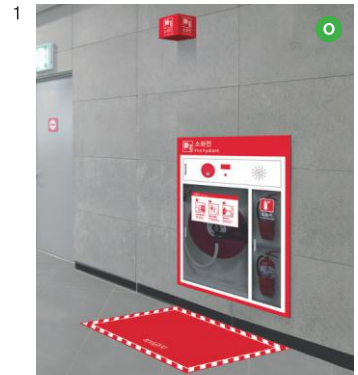


Before



After

주변으로부터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1.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간 표시
2. 대형 벽면 픽토그램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비상구

표기요소

- 소방시설 명칭 및 비품을 쉽게 이해하도록 픽토그램을 적용한다.
- 설명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픽을 적용한다.
- 픽토그램은 국제(국가)표준을 적용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표기한다.
- 다국어표기에 관한 지침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색채

- 소방시설은 방재, 긴급, 구호를 의미하는 적색을 사용한다.
- 비상대피도는 전용색인 초록계열을 적용한다.
- 벽 마감과 구분되는 색채 및 정온한 그래픽을 사용한다.
- 원거리에서도 영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주변의 도색을 권장한다.
- 중저명도 배경색일시 주변의 색상과 어울리는 무채색의 단색을 권장한다.
- 고명도 배경색일시 적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1. 소방시설관련 픽토그램
 2. 픽토그램을 적용한 사용법 디자인
 3. 중저명도의 배경색에 설치된 소화전

C3-2 하천 안전안내표지

현황 및 문제점

- 구조시설물이 방치되어 있다.
- 표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기본방향

최적의 대피방법을 제시하도록 | 명확한 정보로 통제에 따르도록

안전시설물 주변과 안내표지를 정돈하여

평상시에도 주의하고, 비상시 최적의 대피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설치

-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 주출입로에 폴사인을 설치한다.
- 폴사인이 없을시 금지행위 안내판을 대체 설치한다.
- 금지행위 안내판과 폴사인을 함께 설치하지 않는다.
- 필요한 구간에 최소한의 수문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진출입로 계단에 고회도 반사시트 부착을 권장한다.
- 비상사다리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형광패드를 부착한다.
- 구명환은 걸이 형태로 변경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함 형태로 설치한다.

형태

- 소방시설 주변에 부착하는 형태로 설치한다.
- 매입형 소화기 및 소화전의 경우 벽면안내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 비상구 유도사인은 바닥면 사인 및 대형 유도사인을 사용한다.
- 출구를 쉽게 인지하도록 벽면을 활용한 대형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 야간의 시야 및 경로를 확보하도록 조명사인을 함께 설치한다.
- 소방 및 화재예방 표준형 디자인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2018.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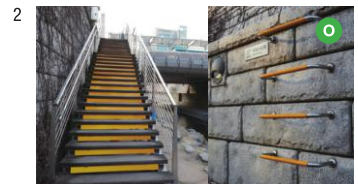


Before



After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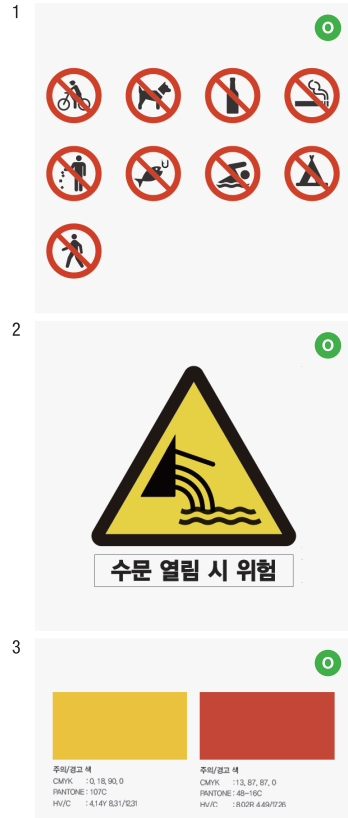
1. 표준디자인이 적용된 폴사인과금지행위 안내판
2.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트를 부착한 계단과 사다리

표기요소

- 수문이 열리거나 우천시 침수를 대비하여 출입을 경고하는 픽토그램을 표기한다.
- 출입통제안내에는 픽토그램과 통제원인도 함께 표기한다.
- 구명한 시설명칭과 함께 픽토그램을 표기한다.
- 적용된 픽토그램은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 표지> (2016.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 표기한다.
- 다국어표기에 관한 지침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하천의 안내체계와 관련한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의 '하천 수변공간 안내체계 표준형디자인' (2019.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색채

- 안전시설물에 적용되는 주조색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무채색을 적용한다.
- 주조색은 서울색 중 한강은백색 또는 기와진회색을 권장한다.
-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강조색은 주의/경고를 의미하는 안전색채를 적용한다.
- 문자, 기호, 픽토그램의 표기는 상황에 따라 흑색, 백색, 서울 기와진회색을 권장한다.



1. 금지행위 안내 픽토그램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
2. 수문 개방 위험 안내표지
3. 주의/경고를 의미하는 안전색채

C3-3 범죄예방시설 안내표지

현황 및 문제점

- 방치 및 낙후된 골목이 많다.
- 주거인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기본방향

위치 인지 및 대피가 쉽도록 | 야간에도 안전하도록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야간 안전유도 및
응급상황 발생시 원활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심장소를 구축함

설치

- 범죄다발구간 및 협소하고 어두운 골목길에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 진출입구에는 구조 및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를 권장한다.
- 유희공간에는 환경적 개선을 위해 시각적인 그래픽 디자인을 사용한다.
- 사각지대에는 반사시트의 설치를 권장한다.

형태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관성있는 형태를 적용한다.
- 비상벨과 같은 안전시설물 설치시 벽면 및
가로시설물에 부착한 형태를 권장한다.
- 다른 가로시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야간에도 쉽게 인지하도록 조명형 주소판을 설치한다.



Before



After

위급상황 시 위치 인지가 쉽도록
안내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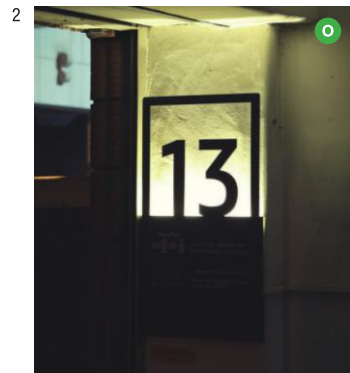
1. 골목길 진출입구간에 설치된 안전지도 및 비상벨
2. 범죄 시 상황인식을 위한 반사시트 설치
3. 벽면을 활용하여 설치한 비상벨

표기요소

- 일관성 있는 픽토그램 및 디자인을 적용한다.
- 안내표지판 설치시 쉽게 이해하기 위한 픽토그램을 동시에 표기한다.
- 픽토그램의 내용이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 상관인접 골목길의 경우 주거영역에 대해 알리는 내용과 함께 주의사항에 대해 표기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하며, 다국어 표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색채

- 야간을 고려하여 반사소재의 적용을 권장한다.
- 멀리서도 인지가 가능토록 시인성이 높은 색상을 적용한다.
- 한 골목에 일관성있는 색채의 사용을 권장한다.
- 사유와 공적의 영역의 구분을 위해 바닥재료, 마감, 컬러 등을 다르게 적용한다.



1. 현 상황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CCTV
 2. 야간 조명을 결합한 주소정보사인
 3.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는 색채 적용

C3-4 쓰레기 투기 방지 안내

현황 및 문제점

- 지나갈 때 악취로 인해 불쾌하다
- 쓰레기가 쌓여 방치되어 있다.

기본방향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동을 유도하는 넛지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민 및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함

설치

- 자연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CCTV와 함께 설치한다.
- 기존 전봇대 및 벽면에 통합 설치한다.
- 쓰레기투기 방지를 유도할 수 있는 넛지디자인을 권장한다.
- 야간시에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바닥부에 매입조명을 설치한다.

표기요소

- 다문화 주거지역을 고려하여 안내표지에 다국어를 표기한다.
- 올바른 쓰레기처리 안내표지에는 픽토그램과 함께 표기한다.
- 분리수거 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을 표기한다.
- 쓰레기 무단투기 안내표지 설치시 경고문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표기한다.



Before



After

직관적인 방법으로 쓰레기 배출정보를 명시하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



1.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안내표지
2. 자발적으로 골목길 청소를 유도하는 디자인

C3-5 공사장 안내표지

현황 및 문제점

- 통행에 불편함을 느낀다.
- 디자인이 저저분하다.

기본방향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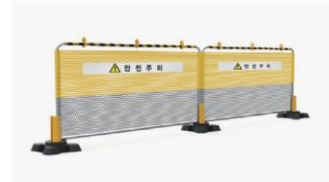
통일된 공사장용 시설물로 미리 인지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설치

- 공사안내판은 공사장 주출입구, 주이동동선에 설치한다.
-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넘어지거나 밀려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보행로 확보에 따라 각 구간에는 펜스형 디자인 적용을 권장한다.
- 안전시설물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공사장용 드럼 및 칼라콘의 설치를 권장한다.
- 공사구간의 전후방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 교통, 보행안내표의 설치를 권장한다.
- 안전펜스, 공사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2016.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Before



After

공사중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통일된 색채를 적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 공사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 보행안내표지판
- 메쉬펜스형 PE펜스형
-

1. 공사 및 교통, 보행안내 입간판 권장디자인
2. 보행로 안전펜스 권장디자인
3. 도로공사 시 이격거리 및 완충구간 배치를 위한 공사장용 드럼과 칼라콘 권장디자인

표기요소

- 공사장 안내표지에는 제목과 공사시간, 유도방향, 픽토그램을 표기한다.
- 공사종합안내도에는 사업명, 공사기간, 위치, 사업기간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표기한다.
- 설명서에는 시각적인 그래픽을 적용한다.
- 픽토그램은 국제(국가)표준을 적용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어를 병기하며, 표기에 관한사항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규정 에 준한다.

형태

- 공사종합안내도는 공사장가림막에 부착하는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각 지역의 특성이 담긴 공사장가림막의 설치를 권장한다.
- 공사장 안내표지에 관련한 디자인은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을 따르는 것을 권장하며,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2016.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색채 및 재료

- 명시성이 높은 노란색계열의 색채를 권장한다.
- 금지와 강조부분에서는 적색계열의 색채를 권장한다.
- 야간 이용을 위해 고휘도반사시트를 부착한다.
- 공사장 안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는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2016.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1. 공사종합안내도 (벽부형) 권장디자인
2. 각 지역의 특색있는 공사장가림막 디자인
3. 안내문구 적용 기준
4.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의 노란색 권장색채

C3-6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표지

현황 및 문제점

- 감염우려가 높은 공공시설의 이용이 활발하다.
- 다양한 그래픽과 색채의 혼재로 정보전달이 어렵다
- 유동인구가 많다.
- 안내표지의 설치 빈도가 높다.

기본방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 간결하게 전달될 수 있게

코로나 19 사태로부터 안전하고,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함

설치

- 공공시설 및 사람밀집구간의 경우 거리두기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대기공간 및 진입공간에 최소 1,000~2,000mm의 간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거리두기 실천 및 예방수칙, 의심증상시 대처방안 등의 안내표지는 유동인구가 활발한 구간에 설치한다.
-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코로나19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표기요소

-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필수사항을 중점적으로 표기한다.
-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대처방법 및 예방수칙에 대한 안내는 시각화 자료와 함께 표기한다.
- 누구든 이해할 수 있도록 다국어(를 함께 병기한다.



Before



After

코로나의 영향으로 의무화 된 거리두기의 행동을 유도



1. 코로나 19를 대비하여 물리적으로 구분한 환경

C4-1 대기오염 전광판, 도로소음 전광판

심의대상

현황 및 문제점

- 제공하는 정보량에 비하여 크기가 지나치게 크다.
- 표출되는 용어의 의미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기본방향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 | 정보이해가 쉽게

필요구간에 최소한의 크기를

적용하여 정보 전달

설치

- 문화재 지역 등 설치불가지역에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크기를 최소화한다.
- 별도 지주로 설치하지 않고 버스전광판, 교통전광판 등에 포함시킨다.

표기요소

- 전달이 빠른 시각언어로 표현한다.(예 : 일기에보의 빨래지수, 세차지수)
- 평균지수-기준지수 비교 등 환경 관련 정보는 보조요소로 표기한다.
- 서체는 가독성이 좋은 서울남산체를 권장한다.

색채

- 차량신호체계에 사용되는 색채는 지양한다.
- 색채는 최대한 단색을 적용한다.

기타

- 야간 운전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휘도를 제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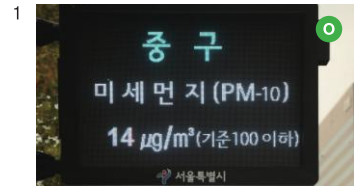


Before



After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언어를 적용한 안내표지



1. 서울남산체를 적용한 대기오염전광판

C4-2 교통상황 전광판, 교통사고 전광판

현황 및 문제점

- 제공하는 정보량에 비하여 크기가 지나치게 크다.
- '사망사고 다발지역' 등 거부감을 주는 용어가 남용된다.
- 상업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기본방향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 | 교통정보 중심으로

필요구간에 최소한의 크기를

적용하여 정보전달

설치

-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규정에 준한다.

표기요소

- 현재 교통상황, 주의구간 알림, 소요시간, 교통상황 지연 이유,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 정보를 주요소로 표기한다.
- 시민에게 거부감을 주는 용어는 지양한다.
- 상업광고 비중의 최소화를 권장한다.



Before



After

색채 및 그림을 통해 교통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



1. 정보량에 비해 지나치게 큰 규모
2. 거부감을 주는 표현, 지나치게 큰 상업광고

C4-3 버스정보 전광판

현황 및 문제점

- 고휘도 화면으로 시각공해를 일으킨다.
- 지나치게 많은 정보량으로 혼란을 일으킨다.

기본방향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 | 필수정보만 간결하게

교통신호색채의 사용을 지양하며,
실시간 버스의 교통정보를 전달

설치

- 독립지주형 표지 설치는 지양한다.
- 크기 및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표기요소

-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표시는 지양한다.

색채

- 교통신호등과 동일한 색채의 사용을 금지한다.

기타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휘도를 제한한다.
- 타 시설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휘도를 제한한다.



Before



After

버스도착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버스표지 전광판 설치



1. 고휘도 발광으로 시각적 공해 발생

C4-4 디지털 영상매체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치게 화려한 색채 및 고휘도로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 시설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 대형 상업광고와 구분되지 않는다.

기본방향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게 |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주변을 고려하여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설치

- 녹지, 주거, 문화재 지역에 설치를 지양한다.
- 크기 및 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표기요소

- 용도 지역별로 휘도를 규제한다.
- 심야에는 조도를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지나치게 잦은 점멸은 지양한다.
- 상업광고의 표기는 지양한다.
- 향후 디지털영상매체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별도의 종합적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기타 사항은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Before



After

적절한 밝기를 사용해
관광콘텐츠로 활용



1. 지나치게 화려한 색채 및 고휘도

C4-5 옥외전광판

현황 및 문제점

- 편의에 따라 무질서하게 설치, 운영되어 도시경관을 해친다.
- 지나치게 화려한 색채 및 고휘도로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기본방향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게 |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

상업광고를 최소화하고,
공익광고를 적용하여 유익한 정보를 전달

설치

- 녹지, 주거, 문화재 지역에 설치를 지양한다.
- 옥외전광판은 입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설치한다.

기타

- 기타 사항은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의 발광광고물 조명 가이드라인-설계기준, 디자인원칙 규정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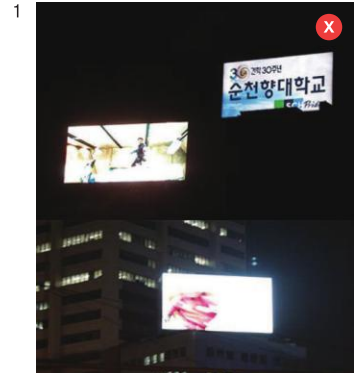


Before



After

도시경관과 조화되면서
공익성을 담은 전광판



1. 지나치게 화려한 색채 및 고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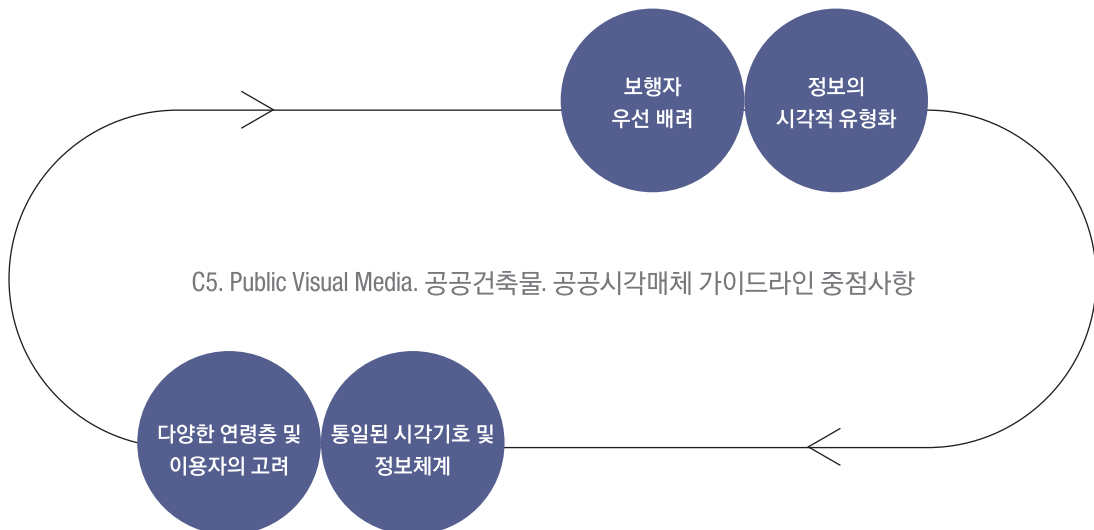
C5 |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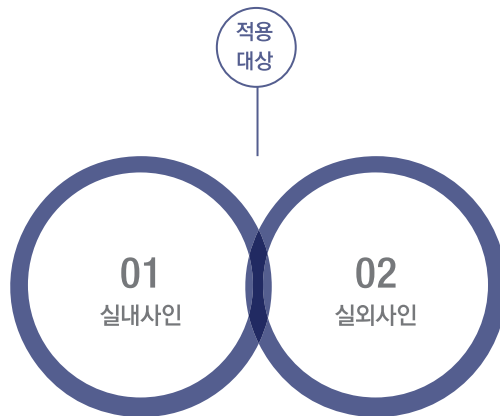
공공건축물 내 공공시각매체는 건축설계상에서 계획되지 않으며 준공이후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공공건축물과 조화되지 않은 시각매체들이 산발적으로 적용되어 공공건축물의 경관성 및 심미성, 사용성을 저해한다.

공공건축물의 공공시각매체는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공공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디자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용자 관점의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며 시각적 통일성이 고려된 공공시각매체가 계획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A

FOCUS





- C5-1 종합안내표지
 시설안내표지
 시설이용안내표지
 방향유도표지
 층수안내표지
 안전표지
 유리안내 시트

- C5-2 진출입구 안내표지
 시설안내표지
 보행안내표지
 방향유도표지

보행자 우선 배려

보행자(보행약자)의 편의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동선과 연계하여 통합계획한다.

정보의 시각적 유형화

이용안내, 방향유도, 안전표시 등 다양한 정보를 명료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숫자 등의 표기요소와 색채를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적용한다.

다양한 연령층 및 이용자의 고려

어린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여성까지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가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형태, 설치위치 등을 계획한다.

통일된 시각기호 및 정보체계

공공건축물의 BI 및 관리기관 등 과도한 홍보를 지양하고 주요 전달정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화된 규격과 양식으로 통일되게 적용한다.

C5-1 실내사인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물 계획과 별도로 진행되어 디자인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시설물별로 정보표기 방법이 다르거나 정보의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다.

기본방향

다양한 계층이 인지하기 쉽고 간결하게 |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쉽고 간결하게 표기하여

누구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함

설치

- 가독성확보를 위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시설안내표지는 사람의 이용이 활발한 구간에 설치를 권장한다.
- 방해물에 가려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 안내표지를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방향유도표지는 동선의 혼란이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방향안내사인은 벽면에 설치하여 공간차지를 최소화한다.
- 방향안내사인은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 실내 안전시설물의 경우 적색의 안전표지를 함께 부착한다.
- 안전 시각매체는 주출입동선 및 대피 동선 내에 필히 설치한다.
- 야간에 대비하여 조명 및 발광형 시설물을 통합 설치한다.
- 건물 내의 적절한 위치에 1개소 이상의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를 권장한다.
- 건물 내-외부 계단손잡이 및 계단 중앙에 설치된 난간 양측에 점자표지판의 설치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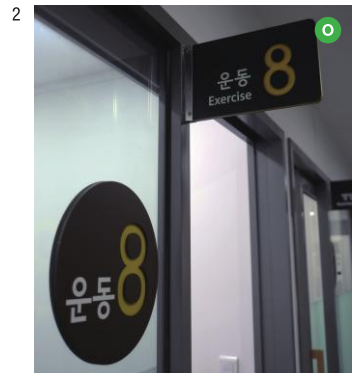


Before



After

각 층별의 정보를 정돈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



1.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실내 안내판 디자인
2.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안내사인

표기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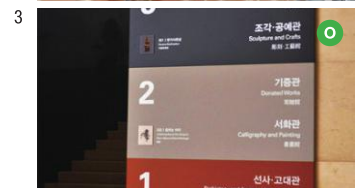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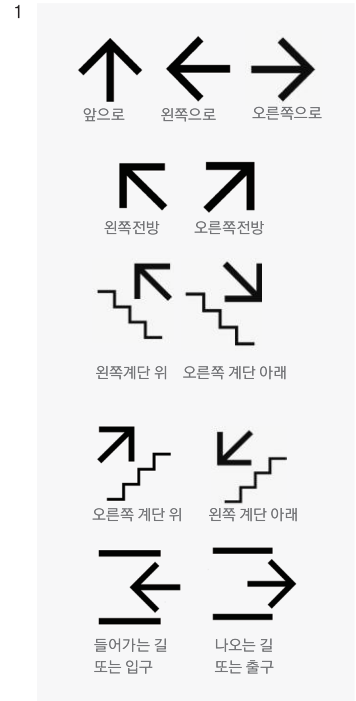
-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 및 인지정보를 고려하여 도안, 글자크기, 설치위치를 계획한다.
- 픽토그램, 숫자 등 간결하고 직관적인 표기요소를 사용한다.
- 전체적으로 통일된 문자 크기, 재료, 색채, 비 등을 적용한다.
- 의미없는 장식적 요소는 배제하고 최대한 간결하고 눈에 띄는 시각기호를 사용한다.
- 엘리베이터, 계단 등은 방향 픽토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방향 픽토그램은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 매뉴얼 가이드라인> (2016,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 정보 및 픽토그램을 표기한다.
- 다국어표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시정 또는 구정 상징요소, 관리주체 및 제작업체 등 표기요소의 남용을 지양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 촉지안내도 설치시 안전 및 이동편의 정보를 우선으로 한다.

색채

- 엘리베이터 안내표지, 시설안내표지 등 각 층별 색채는 차이를 둔다.
- 벽면 마감재 색채와 조화성을 고려한 색채계획을 세운다.
- 안전표지의 경우 안전시설물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색채를 강조색으로 사용하여 시인성을 확보한다.

기타

- 안내사인디자인이 개별적으로 계획되지 않도록 통합계획한다.
- 안내사인의 통합계획은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며 설계단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 시공이후 적절한 설치가 이루어졌는지 안내표지의 크기, 배치 등을 검토한다.



1.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 방향픽토그램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안내도
3. 각 층별 색채를 차별화 한 안내표지
4. 각 층별 색채를 차별화 한 엘리베이터 표지

C5-2 실외사인

현황 및 문제점

- 무분별한 설치로 가로의 미관을 해친다
- 시설물별로 정보표기 방법이 달라 정보의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다.

기본방향

다양한 계층이 인지하기 쉽고 간결하게 |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

연속적으로 안내사인을 설치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설치

- 공공건축물의 옥외간판은 건축물의 파사드와 통일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 정보의 위계에 맞게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 건물명 간판은 입체문자형을 권장한다.
- 2개 이상의 현판 설치는 지양한다.
- 건물명 간판과 현판을 제외한 홍보용 현수막과 기타 옥외광고물의 부착은 지양한다.
- 건물명 간판은 부드럽고 은은한 간접조명방식과 외부조명 방식의 조명연출을 권장한다.
- 지역특성 및 건축물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다.
- 멀리서도 쉽게 인식되도록 시설명판, 출입구 사인 등을 계획한다.
- 도로에서부터 건축물 내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명판, 안내도, 출입구 사인 등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공공건축물의 간판표지는 규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개수로 설치한다.
- 시설안내표지판 설치시 보행에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물 구역에 설치한다.
- 건물 주출입구에는 시청각장애인의 출입을 위해 점자노면안내판과 문자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건물 주출입구에는 사고를 방지하여 유리문, 바닥면에 주위환기용 표지의 설치를 권장한다.
- 공공건축물 외부공간에는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공간을 알리는 노면표지 설치를 권장한다.
- 옥외전광판은 건축물 파사드와 조화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며, 건축가의 의도를 반영한다.
- 옥외전광판은 입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설치한다.



Before



After

건물의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 설치



1.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실외 안내판 디자인
2. 입체문자형 건물명 간판

표기요소

- 픽토그램, 숫자 등 간결하고 직관적인 표기요소를 사용한다.
- 전체적으로 통일된 문자 크기, 재료, 색채, 비등을 적용한다.
- 안내도에는 거리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까지의 거리나 소요시간을 표기한다.
- 안내표지에는 쉬운 이해를 위한 방향픽토그램을 함께 표기한다.
- 방향픽토그램은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 매뉴얼 가이드라인> (2016.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어를 병기한다.
- 다국어표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규정에 준한다.
- 기타 표기요소에 대한 내용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IX> (2015. 서울특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 규정에 준한다.

색채

- 외부안내표지는 멀리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배경색과 글자색의 대비를 명확하게 한다.
- 공공건축물 간판표지는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한다.
- 고채도 원색은 강조할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

- 안내사인의 통합계획은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며 설계단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며 안내정보매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1. 소방차 전용구역 표기
2. 장애인을 위한 주위환경이용 표지
3. 시설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안내표지
4. 배경색과 서체의 색채대비

서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
SEOUL PUBLIC DESIGN GUIDELINE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부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발행일자	2021. 3. 30
기획개발	문화본부장 유연식 디자인정책과장 이해영 공공디자인진흥팀장 권은선 공공디자인진흥팀 이유진
자문위원	이경돈, 최성호, 백진경, 공순구, 이윤주, 김성곤, 최인규, 홍승대, 김남형, 강부성, 김주연, 반영환, 안장원, 이석현, 차강희, 김국선, 김주경, 김현선, 나장수, 박연선, 박준휘, 변혜령
연구	(주)에스이디자인그룹
디자인	그래픽바이러스

비매품
ISBN 979-11-6599-251-4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51-6110000-002478-01

비매품

ISBN 979-11-6599-251-4

